

#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2018. 3.



[ 입 학 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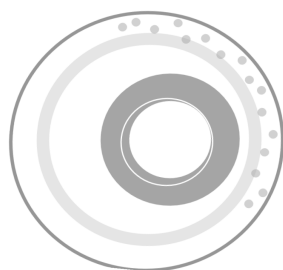
# 목 차

I. 선행 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	1
II. 선행 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3
1. 선행 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4
2. 선행 학습 영향평가 소위원회 조직 구성 .....	5
3. 2018학년도 선행 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6
III.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7
1. 출제 전 .....	8
2. 출제 과정 .....	12
3. 출제 후 .....	13
4. 금년도 개선사항 요약 .....	17
IV. 문항 분석 결과 요약 .....	19
1. 문항분석결과 요약표 .....	20
2. 문항별 분석결과 .....	21
V.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28
1. 평가결과의 활용과정과 절차 .....	29
2. 선행 학습 영향평가 소위원회 평가의견 .....	29
3. 2019학년도 대입전형에의 반영 계획 .....	38
VI. 부록 .....	39
1. II-1.의 규정 .....	40
2. 논술고사의 문항 제출 양식 : 『문항카드』 .....	42
3. 기타고사(재외국민 특별전형) 출제 문항 .....	108





# I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 2018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숙명여자대학교는 정부의 대학입학정책에 따라 우리대학의 신입학 전형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의 신입생 선발 관련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의 적절함에 대한 사회적 공인을 확보하고, 신입생 선발 전형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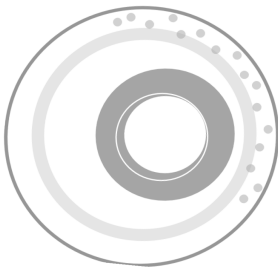
### 【문항 총괄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 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관리 번호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고사	논술우수자	인문계	-	2018-1 (1교시)공통	1	○	○	○								
			-	2018-2 (1교시)계열	2		○	○								
			-	2018-3 (2교시)공통	1		○									
			-	2018-4 (2교시)계열	2	○		○								
			-	2018-5 (3교시)공통	1		○									
			-	2018-6 (3교시)계열	2	○	○	○								
		자연계	-	2018-7 공통문항	1		○	○								
			-	2018-8	2-1				○							
					2-2(a)				○							
					계열문항	2-2(b)				○						
기타 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 계열	-	2018-9 국어과	1~40	○										
			-	2018-10 수학과	1~20				○							
			-	2018-11 영어과	1~33								○ (영어)			





##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II. 선행 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대학별 고사의 선행 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자체 점검 결과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 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2. 선행 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3. 선행 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 1. 선행 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대학은 관련 내용을 규정화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 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5조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 및 제5조의2

#### ■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법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 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14.6.26.)
-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제5조의2(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조신설 2015.2.6.)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 입학전형개발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선행 학습영향평가 소위원회 조직구성

□ 선행 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입학처장을 위촉함
- 내부위원은 본교 교수 6인, 외부위원은 현직교사(일반고) 3인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입학처	입학처장	차OO	내부위원
위원	기초교양학부	교수	이OO	
위원	컴퓨터과학부	교수	유OO	
위원	한국어문학부	교수	이OO	
위원	수학과	교수	신OO	
위원	영어영문학부	교수	전OO	
위원	OO고등학교	교사(사회)	박OO	현직고교교사 (일반고)
위원	OO여자고등학교	교사(국어)	이OO	
위원	OO여자고등학교	교사(수학)	홍OO	
간사	입학처	입학사정관	박OO	-



- 재외국민 필답고사(영어) 검토를 위해 현직교사(일반고) 1인을 별도로 위촉하였다.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별도 위촉	OO외국어고등학교	교사(영어)	박OO	현직고교교사

□ 선행학습영향평가 소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

외부위원 직위	참여 인원	소위원회 구성 비율 (외부위원 / 전체 위원)	일반고 교사 참여 비율 (일반고 교사 / 전체 고교 교사)
현직 고교 교사	3명	33.3%	100%

### 3. 2018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내용	일자	담당
입학처 자체평가 자료 작성 및 평가	‘17.8~’17.12	입학팀
입학처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 심의 및 평가	‘18.1~’18.2 1차 회의: 1월 23일(화) 2차 회의: 2월 12일(월)	선행학습영향평가 소위원회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확정 및 처리	‘18.3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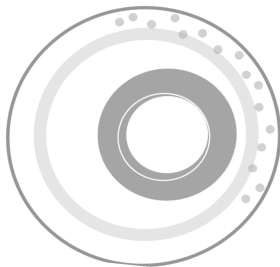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활동사항

일자	내용	관련 공문
	<b>(1차)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개최</b>	
1.2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시간 : 숙명여대 행정관 705호 회의실 17:00</li> <li>· 참석 : 위원장(입학처장)을 포함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및 입학팀장, 간사</li> <li>· 주요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당위성 설명</li> <li>- 2018학년도 ‘논술고사, 재외국민 필답고사’ 등 대학별고사 출제 문항 검토와 위원별 업무분장 논의</li> <li>- 본교 내부위원과 외부 현직 고교교사의 특성(전공,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업무분장 확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팀-2682(2018.01.22.)</li> <li>· 입학팀-2720(2018.01.26.)</li> <li>-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첨부</li> </ul>
1.24.(수)~2.1.(목)	(위원별) 업무 분장에 따른 출제문항 검토 및 결과보고서 제출	
2.2.(금)~2.11.(일)	결과보고서 내용점검 및 2차 회의 자료(자체평가 보고서 내용) 작성	
	<b>(2차)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개최</b>	
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시간 : 숙명여대 행정관 705호 회의실 17:00</li> <li>· 참석 : 위원장(입학처장)을 포함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및 입학팀장, 간사</li> <li>· 주요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학년도 ‘논술고사, 재외국민 필답고사’ 등 출제문항의 위원별 검토결과 내용 공유</li> <li>- 위원별 기타 의견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논의</li> <li>- ‘2018학년도 숙명여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안)’ 내용 검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팀-2907(2018.02.12.)</li> <li>· 입학팀-2934(2018.02.13.)</li> <li>-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첨부</li> </ul>
2.13.(화)~2.21(수)	(위원별) 보고서 내용 추가 검토 및 차년도 대학입학전형 반영사항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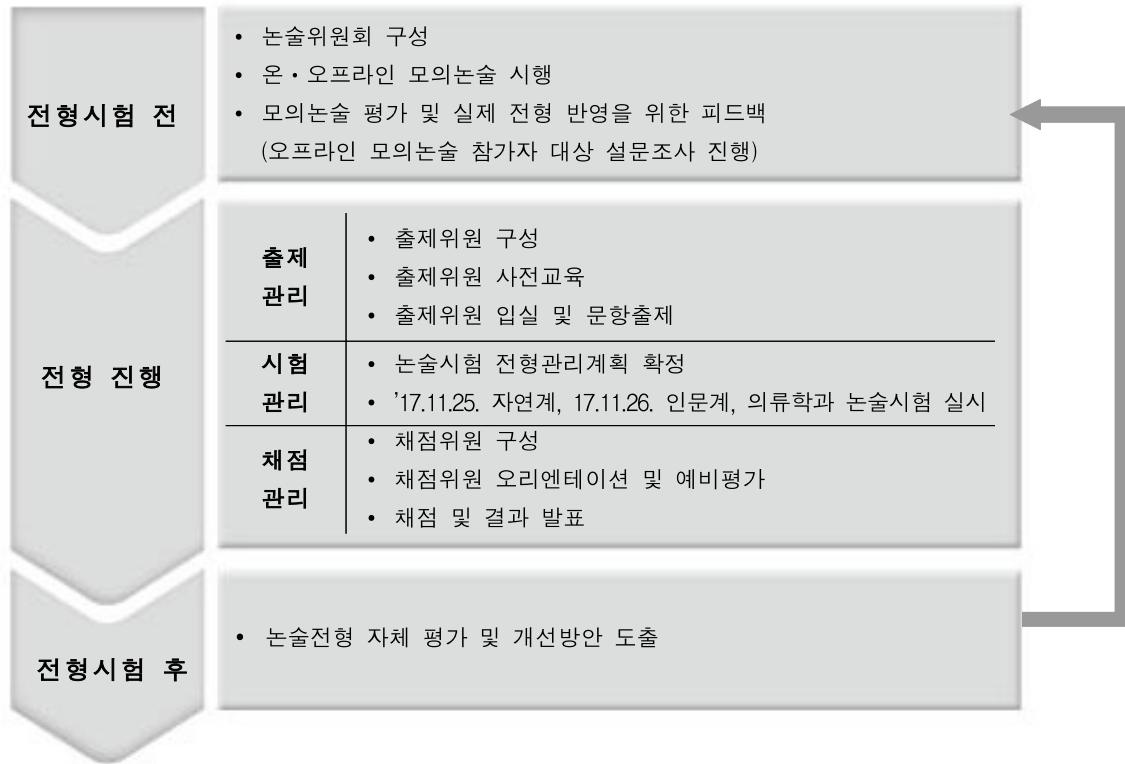
###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III.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우리대학 2018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의 운영은 아래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었으며, 논술고사가 전형 이전, 전형 과정, 전형 이후 모든 과정에 걸쳐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였다.



#### 1. 출제전

□ 고교 교육과정 분석 및 출제·검토위원회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교육

- 우리대학은 대학입학전형 고사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각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연계되고 그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
- 2018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문항 출제 전,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사전교육 및 팀별 자체검토를 실시하여 논술우수자전형 문항연구를 통하여 전년 수준의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팀별 자체 검토 및 논의 기회는 확대함

구분	세부 내용
고교 교육과정 분석 및 사전교육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의 교과목별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li> <li>• 기출문제 및 교과서 확인</li> </ul>
고교 교육과정 사전교육	<p>【2017.10.10. 논술출제위원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안내</li> <li>•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입학담당자 연수(2017.07.20.)' 내용 전달 교육</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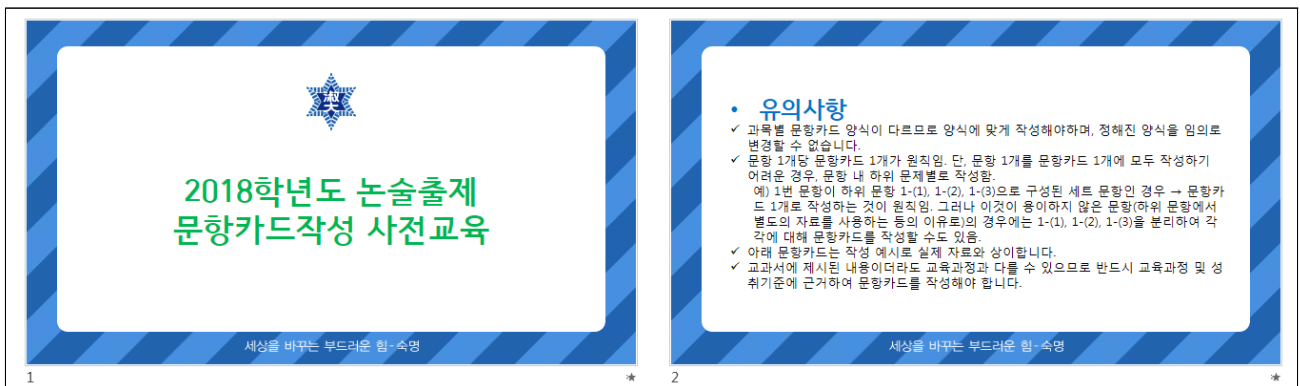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수학과, 영어과 적용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사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국어」 (발간물 등록번호: 11-1341000-002321-01)의 &lt;일반 과목&gt;</li> <li>-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도덕」 (발간물 등록번호: 11-1341000-002326-01)의 &lt;일반 과목&gt;</li> <li>-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사회」 (발간물 등록번호: 11-1341000-002324-01)의 &lt;일반 과목&gt;</li> <li>-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수학」 (발간물 등록번호: 11-1341000-002322-01)의 &lt;일반 과목&gt;</li> <li>-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영어」 (발간물 등록번호: 11-1341000-002323-01)의 &lt;일반 과목&gt;</li> </ul> </li> <li>• 출제문제에 대한 출제의도 및 관련근거 등 공교육정상화법 준수 여부 사전 확인 안내</li> </ul>
고교 교육과정 자체 검토 및 출제 논의	<p><b>【2017.10.11~2017.11.1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출제위원 팀별로 고교 교육과정 과목별 내용과 성취기준 자체검토 실시</li> <li>• 교육과정 내용 및 성취기준, 적용 교과서 내용 검토, 필요도서 구매, 기출문제 검토</li> </ul>

[참고] 논술출제자 사전교육 및 자체검토 내용

구분	과목	세부 내용
인문계열	국어/사회/도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사회, 도덕 교과 교육과정 및 내용정리</li> <li>• 숙명여대 논술시험에 대한 제언</li> </ul>
자연계열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li> <li>•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li> <li>• 수학과 교육과정 및 선택교과목의 내용</li> <li>• 숙명여대 논술시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의 교육과정 준수여부 확인</li> </ul>

[참고] 논술출제자 사전교육 ppt자료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숙명

✱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숨명


★

##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숙명



[illegible]

## 2. 수리계열



REINVESTMENT  
www.reinvestment.kr

### 7. 보편 교육

차별 교육행위 제보 채널 기호코 및 해명, 재청 시 유익성상 등록 제시한다.(과제 예시 3)

제보 내용	제출 기호	해명
1-1	수업시간 내 차별행위 신고 (강제)등교육권 침해	4
	입학지원금 지급 불응행위 신고	3
1-2	강제입학금 부과 불응행위 신고 (수업시간 내 입학지원금 지급 불응행위)	3
	수업시간 내 입학지원금 지급 불응행위 신고	3
	수업시간 내 입학지원금 지급 불응행위 신고	3
1-3	수업시간 내 입학지원금 지급 불응행위 신고	3
	수업시간 내 입학지원금 지급 불응행위 신고	3

수업시간 내 입학지원금 지급 불응행위 신고

수업시간 내 입학지원금 지급 불응행위 신고


세상을 바꾸는 부트러프 힘+속력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고사

<b>2. 수리계열</b>		 RENAISSANCE UNIVERSITY www.renaissance.ac.kr			
<b>도형 및 공간</b>					
1) 기본 용어					
① 관련 교과에서는 학습 2종 이상 제시,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관련 자료별로 교과서 근거를 추가 작성함					
영역/교과	도형 및 공간	과목	단원명		
관련 교과 교과서	기하학 B	이중평면	2014 100~105		
	기하학 B	이중평면	2014 106~107		
	기하학 B	이중평면	2014 108~109		
	기하학 B	이중평면	2014 114~115		
	기하학 B	이중평면	2014 116~117		
기타	기하학 B	이중평면	2014 118~119		
	기하학 B	이중평면	2014 120~121		
2) 수식 자료, 보기 자료의 적용 교과에 근거 제시					
<b>6. 탐구 분야</b>					
탐구 적용을 위해 필요한 개념, 원리, 정리 내용과 탐구 작성방법, 실험방법, 안전사항, 실험 결과분석에 요구되는 내용 구성 및 전개 방식을 제시함.					

[illegible]

### 3. 재외국민 필답고사(국어/수학/영어)


**RENAISSANCE**  
 KORE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유의사항**
- ✓ 재외국민 특검정렬의 경우 문항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성형학습영향평가 대상이며,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차등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라도 교육과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을 확인합니다.

【참고】

- ◆ 2018학년도 대학별 고사 영어과 국문 교육과정
- 1. 교육과정(영어문학) 교과서 제1권(1) 제1차(1) 단원 <영국과 교육과정>
- 교과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영어독해와 쓰기』, 『영어 1』,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쓰기』
- ◆ 영어과 2 - 외국어교육과정 문서 참고
- 1. 교육과정(영어문학) 발간(2009 개정) 교과과정별: 마흔, 성취기준: 고급형과 영재,

(발간본 교육번호: 11-1340300-00232-0219) <발간본>

- 모의논술 시행

- 전형 전, 모의논술시험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본 논술 출제 시 반영.
- 2018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논술 출제방향을 안내하고 개인별 채점 결과 및 우수답안을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입시부담 경감과 사교육 유발 억제에 기여하고, 2018학년도 논술고사의 방향과 난이도 측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참고] 모의논술 세부 운영 내용

구분	온·오프라인 모의논술
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프라인 모의논술 : 2017. 6. 10(토), 우리대학 지정 고사장</li> <li>온라인 모의논술 : 2017. 6. 10(토) ~ 6. 17(토), 입학처 홈페이지</li> </ul>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학년도 우리대학 논술우수자전형에 관심 있는 수험생</li> </ul>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모의논술 신청 페이지 가입을 통해 학생 개인 선착순 접수</li> <li>- 오프라인 : 2017. 5. 22(월) 18:00 ~ 5. 28(일) 17:00, 선착순 800명</li> <li>- 온라인 : 2017. 6. 10.(토) 13:30 ~ 6. 17.(토) 10:00, 기간 내 신청 후 응시, 선착순 600명</li> </ul>								
세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모의논술 (2017.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30~15:30 : 오프라인 모의논술시험 실시</li> <li>- 16:00~18:00 : 2018학년도 전형 안내, 모의논술 문항해설 및 특강</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문항해설 및 특강자</th></tr> </thead> <tbody> <tr> <td>공통문항</td><td>신○○ 교수</td></tr> <tr> <td>인문계열문항</td><td>박○○ 교수</td></tr> <tr> <td>자연계열문항</td><td>최○○ 교수</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모의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6. 10(토) 13:30 ~ 6. 17(토) 17:00 : 시험 실시</li> </ul> </li> </ul>	문항해설 및 특강자		공통문항	신○○ 교수	인문계열문항	박○○ 교수	자연계열문항	최○○ 교수
문항해설 및 특강자									
공통문항	신○○ 교수								
인문계열문항	박○○ 교수								
자연계열문항	최○○ 교수								
채점결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점결과 2017. 6. 30(금)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분포도를 제공함으로써 수험생이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li>• 문항, 해설, 총평 및 우수답안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개</li> </ul>								

## 2. 출제 과정

### □ 전문가 확보 및 참여

- 2018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 과정에는 전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반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계열별 각 2명씩 총 4명으로 현직교사가 참여하였다.
- 사교육 확대를 방지하고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검토하기 위해 논술 문제의 출제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그 출제과정에 교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현직 교사가 문항출제 초기단계부터 문항의 검토, 개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위원의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하였다.
- 출제 과정 중 출제위원과 현직 교사 검토위원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 및 수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 2018학년도 논술고사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 연기에 따라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의 입실 기간이 일주일 연장되었으며, 연장기간을 문항검토에 적극 활용하였다.

일자	세부 내용
2017.11.12.~2017.11.26.	<p>논술 출제 기간 중 고교 교사가 입실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여 문항 검토 실시 (4명)</p> <p>※ 2015년부터 고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 출제 및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현직교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입실에 참여함</p>

- 고교 교원 참여 비율 : 논술출제위원 및 출제검토위원 19명 중 고교 교원은 총 4명 참여하였다.

직위	참여 인원	고교 교원 구성 비율 <sup>1)</sup>	일반고 교원 참여 비율 <sup>2)</sup>
현직 고교교사	4명	21%	75% (일반고 교원 : 3명)

1) 고교 교원 구성 비율 : 고교 교원 / 전체 위원

2) 일반고 교원 참여 비율 : 일반고 교원 / 전체 고교 교원



### 3. 출제 후

□ 출제 이후 출제·검토위원회에 출제문항 및 평가기준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확인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 위원 전원이 출제 문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출제 과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참고] 고교교사 검토위원 결과보고서 제출 내용

구분	내용
위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명여대 2018 인문계열 공통문항, 자연계열 공통문항, 인문계열 1~3회차 문항들의 논제와 제시문들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화법과 작문’, ‘문학’, ‘고전’ 과목 등의 목표와 성취 기준에 부합한 글들을 우리나라와 동서양의 다양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문학 작품과 저작들에서 발췌하여 복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시문의 수준이나 논리적 연관성, 제시문 발체의 범위 등도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성하였다.</li> <li>• 숙명여대의 2018학년도 논술고사의 논제들은 제시문들을 일정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통합적으로 내용을 연결하고 구상하는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모두 우리의 삶과 사회의 문제들 중에서 지성적인 성찰을 통해 철학적, 학문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다.</li> <li>• 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해결 방안의 논리성과 비판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들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별하기에 적합한 기준들이다. 특히 논거의 타당성과 내용의 완결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논제들을 제시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고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하다.</li> <li>• 첨언하면,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실린 비문학 글들이나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사회교과 여러 과목들의 교과용 지도서에 실린 참고 자료들이나 참고 문헌 등에서 제시문이나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li> </ul>
위원2	<p>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 전형의 제시문과 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을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문항의 제시문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는 수준임. 일부 시사성을 갖는 제시문의 경우에도 평소 사회, 도덕 및 국어 교과에서 다루지고 있는 내용인 만큼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독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li> <li>• 모든 문항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교과와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합적, 분석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함. 아울러 이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종합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보도록 하고 있음. 이는 평상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 학습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우수한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춘 학생들을 변별해내기 적합함. 이에 제시된 모든 제시문들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수학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함.</li> <li>• 모든 문항의 논제는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던 모의논술과 기출논술의 논제를 따름으로써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형태의 논제라고 판단함. 아울러 일정한 관점에서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이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논제로 구성함. 논술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의견을 넘어 철학적,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분석, 비판, 평가해야하는 고차원적인 논제로 충분히 변별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함.</li> <li>• 채점기준에 있어서도 논리성, 비판력 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들로 평가항목과 요소를 세분화하였고, 내용, 분량, 표현 능력 등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평가 기준을 확립함</li> </ul>



	<p>종합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교과와 교육과정을 명확히 고려함. 이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선행학습금지법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고등학교 교육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술우수자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활동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li> <li>모든 제시문과 논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통합적인 시각을 기르고, 도덕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윤리적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역량 있는 탐구자로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이는 고등학교 사회과,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와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짐.</li> </ul>
위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적인 부등식을 두 변수로 적용시켜 부등식의 영역의 문제로 접근한 제시문 &lt;가&gt;에서는 두 단원을 연계시키는 수학적 접근이 돋보인다. 학생들의 생각을 고차원적으로 일깨우면서도 어렵지 않게 이해시켜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 있게 출제되었고, 제시문 &lt;나&gt;에서는 방정식으로 주로 다루던 미분계수의 정의를 부등식을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낯선 내용이 제시되었지만 수학적 원리와 정의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한 문제의 우수성이 돋보인다 할 수 있다.</li> <li>고등학교 수준의 수리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교과서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올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 난이도가 적절했으며, 문제에서도 구체적으로 풀이 방법을 주어서 제시문만 충분히 이해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답을 찾을 수 있게 출제되었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추론능력이 부족하거나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고 단순 공식 암기 위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많이 어렵지 않으나 충분히 변별력은 확보할 수 있는 제시문과 문항들로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li> </ul>
위원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에 주어진 수학적 사고 과정을 이해하여 이를 병렬적으로 적용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시문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변별력을 모두 갖추었다고 본다. 기존의 기출 및 모의논술에서 출제되었던 기초가 유지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와 심도 있는 수학적 개념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li> <li>향후 기존의 출제 방향을 현재처럼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제시문 내용과 같이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가 요구되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논술 전형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li> <li>전체적으로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대학 수학능력 평가, 의사소통능력 평가라는 논술 전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li> </ul>

□ 2018학년도 전형 후, 논술시험 자료 공개 현황

일자	세부 내용
2018. 3. 12(월)	<p>2018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문항 해설(제시문 출처,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답안 구성요소, 모범답안 예시 등 포함)을 입학처 홈페이지(<a href="http://admission.sookmyung.ac.kr">http://admission.sookmyung.ac.kr</a>)에 탑재하여 논술준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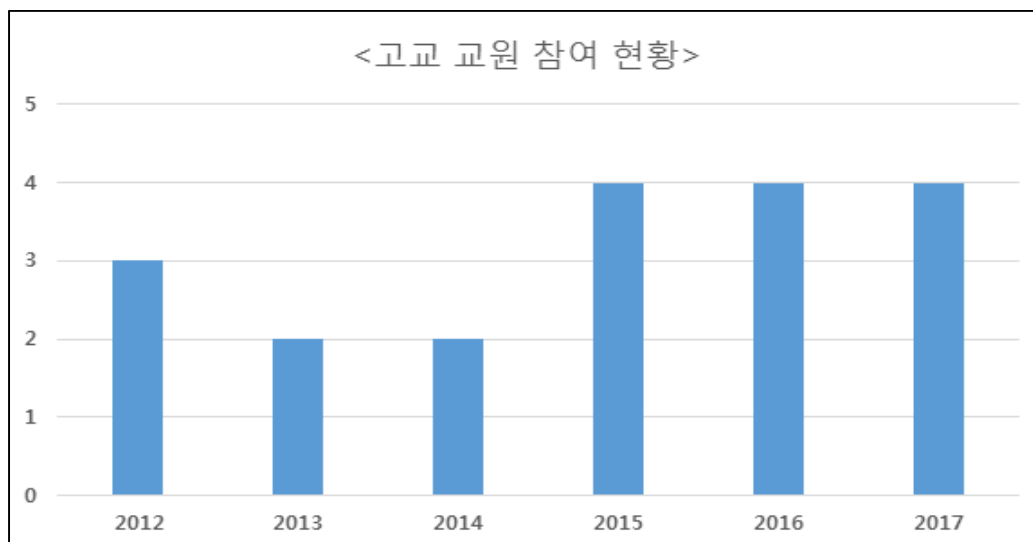


□ 우리대학은 논술고사 출제 과정에서 고교 교원을 꾸준히 출제·검토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그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 논술문항 출제 고교교사 참여 현황(2012~2017년)

년도	고교명	담당교과	이름	인원
2012	OO고등학교	수학	지OO	3명
	OO고등학교	국어	고OO	
	OO고등학교	사회(한국사)	권OO	
2013	OO고등학교	수학	조OO	2명
	OO고등학교	국어	송OO	
2014	OO고등학교	국어	정OO	2명
	OO고등학교	수학	홍OO	
2015	OO고등학교	국어	김OO	4명
	OO고등학교	국어	정OO	
	OO고등학교	수학	지OO	
	OO고등학교	수학	홍OO	
2016	OO고등학교	국어	김OO	4명
	OO고등학교	사회	이OO	
	OO고등학교	수학	리OO	
	OO고등학교	수학	이OO	
2017	OO고등학교	국어	김OO	4명
	OO고등학교	사회	이OO	
	OO고등학교	수학	리OO	
	OO고등학교	수학	이OO	

[참고] 논술문항 출제 고교 교원 참여 현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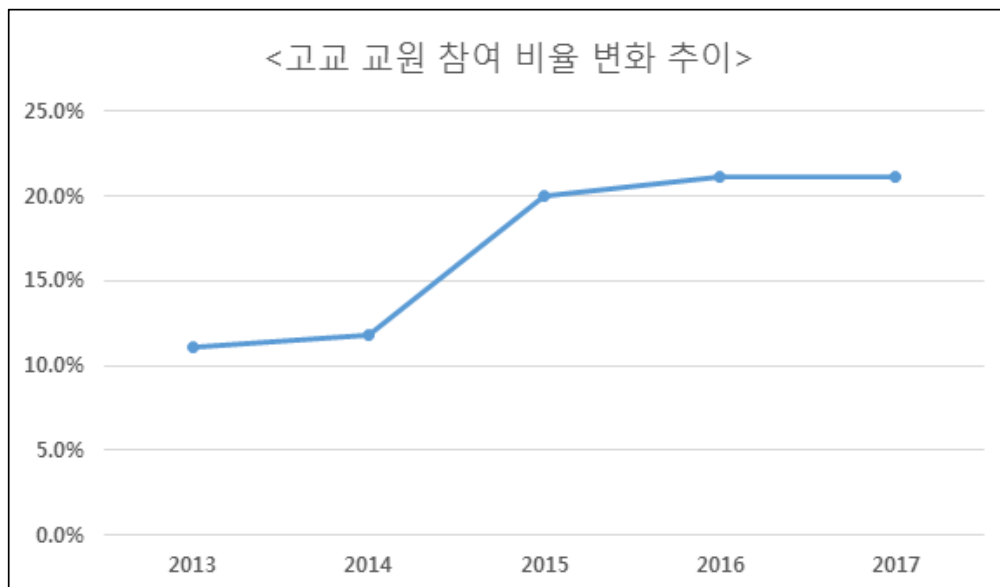
- 2015년부터 계열별 각 2명씩 총 4명으로 현직교사 참여를 확대하였고, 2017년에도 확대된 인원을 유지하고 있음.



[참고] 논술문항 출제 고교 교원 참여 비율 변화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위원 수(명)	18	17	20	19	19
고교 교원 수(명)	2	2	4	4	4
<b>고교 교원 참여 비율</b>	<b>11.1%</b>	<b>11.8%</b>	<b>20.0%</b>	<b>21.1%</b>	<b>21.1%</b>

[참고] 논술문항 출제 고교 교원 참여 비율 변화 추이 그래프



-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논술문항 출제에 참여한 고교 교원 참여 비율 변화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논술고사 외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우리대학은 논술고사 외에 면접 질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시험 출제 문항에 대해서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면접

□ 우리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숙명인재전형 및 고른기회전형)과 글로벌인재전형 등의 심사위원인 위촉사정관과 전임 사정관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교내 교육·훈련 연구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였으며,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일체 배제하기 위해 교과 관련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

- 해당 수험생의 면접 전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를 검토하여 질문 문항 도출
-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배제
- 전공적합성, 종합적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과 관련한 수험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 우리대학은 2018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고사 출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교내 교수진을 위촉하여, 출제지침을 수립하고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검토하였음.

과목	소속	성명
국어	한국어문학부	박OO
	한국어문학부	김OO
영어	영어영문학부	강OO
	영어영문학부	강OO
수학	수학과	이OO
	수학과	신OO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시험의 출제 문항 검토위원은 현직 고교 교원이 적극 참여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 국어 및 수학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중 현직 고교 교사 참여
- 영어 : 별도로 현직 고교 교사를 위촉하여 진행

☐ 홈페이지 공지 현황

일자	세부 내용
2017.03.30(목)	201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출문제(국어/수학/영어)를 입학처 홈페이지( <a href="http://admission.sookmyung.ac.kr">http://admission.sookmyung.ac.kr</a> )에 탑재
2017.05.18(목)	기존 시험의 출제범위, 문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한 문제 출제를 확정하여 2018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시험 출제 방향 및 범위를 홈페이지( <a href="http://admission.sookmyung.ac.kr">http://admission.sookmyung.ac.kr</a> )에 탑재

#### 4. 금년도 개선사항 요약

#####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에 대한 2018학년도 개선사항 요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별 고사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평가 결과를 출제위원에게 주지
- 출제위원에게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 출제 지침 전달
-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문항 카드를 작성토록 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사전 검증
- 출제자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교육하고, 교과서 검토를 출제 팀별로 실시
- 고교 교사를 검토위원으로 배치하여 출제 문항을 검토하고, 출제위원과 합동회의를 통해 의견 개선
- 출제검토위원은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결과를 행정적으로 확인함
- 모의논술을 온·오프라인 방법으로 시행하여 수험생의 사전 논술 준비에 도움을 줌
- 논술가이드북 제작 배포, 기출문제 및 문제해설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제해설 동영상 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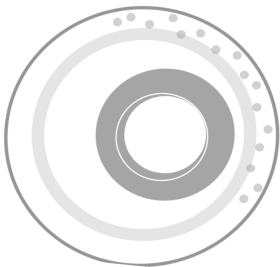


- 
- 논술시험 문항의 간소화
    - 금년도 논술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안정된 입시전형형태를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함. 인문·자연계열 모두 공통1문항, 계열1문항에 답해야 하며, 자연계열문항의 경우 문제풀이를 노트형식으로 답하게 됨. 2019학년도부터는 인문 및 자연계열의 공통문항을 삭제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고자 하며, 문항의 난이도 또한 고교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함
  - 여러 과목을 균형 있게 반영한 문항 개발
    - 한 교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출제가 되도록 하였고, 그래프와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 출제를 고려함
-





## IV. 문항 분석 결과 요약





#### IV. 문항 분석 결과 요약

#####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대학별 고사 유형	입학전형	계열	관리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문항 번호				
논술고사	논술우수자	인문계	2018-1	1	• 국어과 (화법과 작문) • 사회과 (사회) • 도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문항카드 ①
			(1교시)공통				
			2018-2	2	• 도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 (사회, 사회·문화)	○	문항카드 ②
			(1교시)계열				
			2018-3	1	• 사회과 (사회·문화)	○	문항카드 ③
			(2교시)공통				
			2018-4	2	• 국어과 (문학, 고전) • 도덕과 (생활과 윤리)	○	문항카드 ④
			(2교시)계열				
			2018-5	1	• 사회과 (사회)	○	문항카드 ⑤
			(3교시)공통				
			2018-6	2	• 국어과 (고전) • 사회과 (사회) • 도덕과 (생활과 윤리)	○	문항카드 ⑥
			(3교시)계열				
		자연계	2018-7	1	• 사회과 (사회) • 도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문항카드 ⑦
			공통문항				
			2018-8	2-1	• 수학과 (기하와 벡터)	○	문항카드 ⑧
				2-2	• 수학과 (수학 I, 기하와 벡터)		
			계열문항	2-2(a)	• 수학과 (수학 I, 수학II)		
				2-2(b)	• 수학과 (미적분 I, 미적분II, 수학II)		
기타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2018-9		• 모집계열 특성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선 별적으로 부과'하였음.	○	'IV.2-다' 본문참조
			국어과				
			2018-10				
			수학과				
			2018-11				
			영어과				

\*: 문항 붙임 번호는 [붙임]으로 제시한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번호 기재, 세부 문항 분석 결과는 “VI.부록-2”에 첨부함



## 2. 문항별 분석 결과

### 가. 논술고사

#### ☐ 논술고사 문항 제출 양식 『문항카드(①~⑧)』은 “Ⅵ.부록-2”로 첨부함.

- ‘문항카드’는 각 문항별 일반정보, 문항 및 제시문, 출제 의도, 출제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 ☐ 논술고사 개요

- 전형명 : 논술우수자전형
- 모집인원 : 317명(인문계 219명, 자연계 98명)
- 모집시기 : 수시
- 모집단위 : 인문계(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제외) 및 자연계(응용물리전공 제외) 모집단위
- 지원자격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합격자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논술60 + 학생부(교과)40
- 수능최저학력기준 :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의 등급 합 6 이내
- 전형일정(논술시험일)
  - 자연계열(의류학과 제외) : ‘17.11.25(토) 15:00~17:00
  - 인문계열, 의류학과 : ‘17.11.26(일)

차수	시험시간
1회차	09:00~11:00
2회차	13:00~15:00
3회차	16:30~18:30

- 논술시험
  - 유형 : 통합논술형
  - 출제범위 : 고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범위에서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
  - 문항수 : 공통문항 1문항, 계열문항(인문계/자연계) 1문항(총 2문항)
  - 시험시간 : 120분
  - 답안분량
    - 공통문항 : 1,000자±100자(원고지형식)
    - 인문계열문항 : 1,000자±100자(원고지형식)
    - 자연계열문항 : 노트형식
  - 성적산출 : 평가위원 2인이 각각 9등급(최고600점~최저450점)으로 종합평가함

#### ☐ 논술고사 출제의 적절성

- 논술고사의 경우는 인문·자연계열별로 진행되고 각 계열별로 공통문항과 계열문항이 한 세트로 구성되며,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1~3교시까지 각 교시별 세트문항, 자연계열은 1교시 한 세트 문항으로 진행된다.
- 논술고사 출제문항 및 고교 교육과정 분석내용
  - 숙명여자대학교 2018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의 문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관련 교과 학습활동의 수준과 목표성취 정도를 고려하여 출제되었다.
  - 모든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깊이 공부하여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의도에 부합하며, 본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적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



- 인문계 문항은 고등학교 국어, 사회 및 도덕 교과와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자연계 문항 또한 고등학교 수학 교과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제시문들의 각각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러한 출제경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논술고사 방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어휘력과 이해력과 적용력을 측정하고 나아가 고등정신기능인 비판 능력과 종합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나. 면접

### □ 면접 개요

- 전형명 (※괄호 안의 숫자는 모집인원)
  - [수시] 숙명인재(480), 국가보훈대상자(8), 기회균형선발(11), 사회기여및배려자(13), 농어촌학생(65), 특성화고교출신자(32), 특성화고졸재직자(80), 특수교육대상자(15), 숙명글로벌인재(55)
  - [정시] 일반학생전형(체육교육과 2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 전형일정(면접시행일)
  - [수시] 숙명인재(인문계, 의류학과) : '17.11.4(토)
  - [수시] 숙명인재(자연계, 의류학과제외), 특수교육대상자, 글로벌인재 : '17.11.5(일)
  - [수시]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사회기여및배려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특성화고졸재직자 : '17.11.25(토)
  - [정시] 일반학생(체육교육과) : '18.1.16(화)
  - [정시]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 '18.1.19(금)
- 면접유형
  - [수시] 개별면접(면접시간 : 10~15분 내외, 평가위원 2인)
  - [정시] 개별면접(면접시간 : 5분 내외, 평가위원 2인)

### □ 면접 평가 방법

-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종합적사고력',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 정시 일반전형 면접(체육교육과에 한함)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종합적사고력',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교직적성·인성 포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반면접으로 이루어진다.
- 질문 문항은 제출서류 기반 기재내용 확인 면접으로 진행된다. 일률적으로 제시되는 공통질문 및 제시문 없으며, 수험생별 개별질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선행학습 유발요인 없음

### □ 면접 평가 항목 (학생부종합위주 전형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자료 및 주요 활용 영역
전공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선택 동기, 관심, 적성, 진로 탐색과정, 발전가능성 등</li> <li>•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학업에 대한 노력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기록부 : 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진로지도사항/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상황</li> <li>• 자기소개서 : 1번, 2번, 4번 문항</li> </ul>
종합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li> <li>• 다양한 시각 및 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기록부 :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및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독서활동상황</li> <li>• 자기소개서 : 2번, 4번 문항</li> </ul>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태도, 의사소통능력</li> <li>• 협력, 배려, 리더십, 도덕적 가치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기록부 : 창의적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봉사활동), 행동특성및종합의견</li> <li>• 자기소개서 : 3번, 4번 문항</li> </ul>



## 다. 기타고사

### □ 기타고사 개요

- 모집시기 : 수시
- 전형명 : 재외국민·새터민·외국의 전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
- 전형일정(필답시험) : '17.07.14(금)
- 모집인원 : 재외국민군 최대선발가능인원 총 43명(인문계 34명, 자연계 6명, 예체능계 3명)  
※새터민, 외국의 전교육과정 이수자 : 정원제한 없음.

- 기타 고사는 '재외국민·새터민·외국의전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의 필답고사로 국한하며, '국어, 영어, 수학'의 3개 영역으로 나뉜다.
- 본교 기타고사의 출제범위는 일반고에서 편성된 과목을 출제범위로 하였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출제 개요를 공지 하였다.

### □ 기타 고사 출제의 적절성

#### 1) 국어

- **국어과목 출제문항은 “Ⅵ.부록. 3-1”으로 첨부함.**
- 국어과목 필답고사의 출제범위는 국어 I, II의 내용과 지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고교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기초 학업역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출제하였고 모든 문항들이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되어 전형특성에 맞게 출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어영역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여부 분석>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국어 I	문법	310111. 음운과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2	국어 II	문법	310211. 국어의 변천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3	국어 I	문법	310111. 음운과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4	국어 I	문법	3101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5	국어 I	문법	310111. 음운과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6	국어 I	문법	310111. 음운과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7	국어 I	문법	310112.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8	국어 II	문법	3102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9	국어 I	문법	3101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10	국어 II	문법	3102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1	국어 I	문법	3101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12	국어 II	문법	3102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3	국어 I	문법	3101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14	국어 I	문법	3101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15	국어 I	문법	310111. 음운과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16	국어 II	문법	3102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7	국어 II	문법	3102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8	국어 II	문법	3102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9	국어 II	문법	3102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20	국어 II	문법	3102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21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22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23	국어 I	문학	310114. 문학 갈래의 개념을 알고 각 갈래의 특징을 이해한다.
24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25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26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27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28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29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30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31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32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33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34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35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36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37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38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39	국어 I	문학	3101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40	국어 II	문학	3102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국어」(교육과학기술부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2321-01)

## 2) 수학

### • 수학과목 출제문항은 “Ⅵ.부록. 3-2”으로 첨부함.

- 수학과목 필답고사는 출제범위에 공지된 대로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I 과목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자연계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하여 평가하였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 또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거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배우는 필수 교육과정에서 고른 문항수로 출제되어 고교 수준의 학업성취수준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수학영역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여부 분석>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수학I	인수분해	수학1131.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2	수학I	나머지정리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수학1121. 항등식의 의미와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1214. 이차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수학I	여러 가지 부등식	수학1242-1. 이차함수와 이차부등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4	수학I	원의 방정식	수학1332-2. 좌표평면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5	수학I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수학1211.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6	수학II	집합	수학2113.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있다.
7	수학II	함수	수학221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8	수학II	수열의 합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수학2321. $\sum$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수학1214. 이차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9	수학II	지수	수학2412. 지수가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10	수학II	로그	수학2421-2.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다.
11	수학II	로그	수학2422. 상용로그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	확률과 통계	확률의 뜻과 활용	확통1211/1212.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의 의미와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13	확률과 통계	조건부확률	확통1222-2.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4	확률과 통계	확률분포	확통1313. 이항분포의 뜻을 알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15	확률과 통계	확률분포	확통1314-1.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의 성질을 이해한다.
16	미적분I	함수의 연속	미적1221.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7	미적분I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1.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8	미적분I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4.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19	미적분I	정적분	미적1423.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20	미적분I	정적분의 활용	미적1431.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수학」(교육과학기술부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2322-01)

### 3) 영어

- 영어과목 출제문항은 “VI.부록. 3-3”으로 첨부함.
- 2018학년도 재외국민/새터민 특별전형 영어 문제는 단편적 지식의 암기로 풀 수 있는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고, 이해력, 분석력 등 폭넓은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위주로 출제하였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영어적인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말하기 영역의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되어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평가와 듣기와 쓰기 영역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평가가 있었다.

<영어영역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여부 분석>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영고1131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영고1131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영고1131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4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영고1131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5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영고1131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6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영고1131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7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영고1131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8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영고1131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9	실용영어 I	말하기	영고11211-1. 실생활 중심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10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1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2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3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 어법	영고1142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4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 어법	영고1142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5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6	실용영어 I	말하기	영고11211-1. 실생활 중심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17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8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9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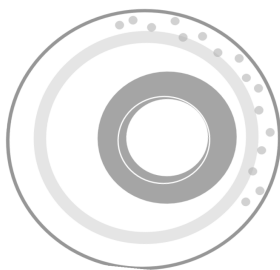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20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어법	영고1142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단어나 주어진 문맥을 통하여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21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2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3	영 어 I , 영어 II	읽기	영고1134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4	영 어 I , 영어 II	읽기	영고1134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5	영 어 I , 영어 II	읽기	영고1134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6	영 어 I , 영어 II	읽기	영고1134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7	영 어 I , 영어 II	읽기	영고1134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8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어법	영고1142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단어나 주어진 문맥을 통하여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29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30	영어 I	읽기	영고11321-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31	영어독해 와 작문	어휘· 어법	영고1142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단어나 주어진 문맥을 통하여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32	영 어 I , 영어 II	읽기	영고1134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33	영 어 I , 영어 II	읽기	영고1134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영어」(교육과학기술부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2323-01)





##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1. 평가결과의 활용 과정과 절차

☐ 우리대학은 현행 관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 실시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차년도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참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반영 절차

절차	내용	시행 주체
(1) 대학 입학 전형 실시	· 입학 전형 실시	입학처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매년 2월 말 평가완료)	선행학습 영향평가 소위원회
(3)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공개	· 소위원회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와 전형 개선방안 보고서를 심의하고 공개(매년 3월 말)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4)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	· 차년도 전형계획수립에 반영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 2. 선행 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평가의견

☐ 소위원회의 항목별 검토결과 총괄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관리 번호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위원별 검토결과
						인문사회			수 학	과학				기타			
						국 어	사 회	도 덕		물 리	화 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고사	논술우수자	인문계	-	2018-1 (1교시)공통	1	○	○	○								적합	
			-	2018-2 (1교시)계열	2		○	○								적합	
			-	2018-3 (2교시)공통	1		○									적합	
			-	2018-4 (2교시)계열	2	○		○								적합	
			-	2018-5 (3교시)공통	1		○									적합	
			-	2018-6 (3교시)계열	2	○	○	○								적합	



기타 고사	재외국민특별전형	자연계	-	2018-7 공통문항	1		○	○									적합
			-	2018-8 계열문항	2-1				○								적합
					2-2(a)				○								적합
					2-2(b)				○								적합
			-	2018-9 국어과	1~40	○											적합
			-	2018-10 수학과	1~20				○								적합
			-	2018-11 영어과	1~33										○ (영어)		적합

□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별로 평가를 진행 후, 평가에 대한 문항별 의견.

구분	내용																
인문 (공통) 1교시	위원1	<p>▶ 이 문항은 인간의 기억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대비시키며, 동일한 언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맥락을 이해하고, 그 주제를 정확히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p> <p>이와 같은 문항의 주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으면서도 현 시대적 변화와 추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판단된다.</p> <p>구체적으로 문항의 출제는 도덕과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구성 되었으므로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를 일정 수준이 이상 달성한 학생이라면 문항의 요구를 파악 하고 제시문을 이해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p> <p>제시문을 활용한 논제 또한 1) 논지의 비교과 차이 분석, 2) 제 3의 논지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각 논지에 대한 재해석, 3) 제시된 그림이나 표를 활용하여 제시문을 이해한 바를 재구성 하여 표현하는 등 기존의 숙명여자대학교가 반복적으로 출제해온 논술문항의 기본적인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논술 전형 지원자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상호 비교하여 우위를 변별함에 적절한 문항이며, 별도의 추가적인 사고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으로 판단되지 않는다.</p>															
	위원2	<p>▶ 인문 논술고사 문항 1번은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화법과 작문 등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게 될 학생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주제인 디지털 메모리를 포함한 기억(메모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p> <p>제시문의 수준과 길이, 각 제시문간의 논리적 연결성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충분히 준수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구성된 제시문을 일반화하여 하나의 주장으로 도출해낼 것을 요구하는 논제, 한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논제는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른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하나의 논제 안에 제시문 요약과 입장을 비교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고자한 평가의 의도에 적합하고, 두 가지 요구사항을 둘로서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시문의 표면적인 분석과 비판만으로는 문제가 의도한 바를 끌어내지 못하도록 설계를 하여 변별력을 판단하고자 한 점도 돋보입니다.</p>															



		<p>제시문의 수준이나 논리적 연관성, 제시문 발체의 범위 등 모든 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제시문들로 구성하여 통섭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통합논술의 목표에 맞는 문항입니다.</p> <p>모의논술로 제시된 논술 유형이고, 시사적인 내용과 교과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교육과정 내에서 풀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시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지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우수한 독해력과 분석력을 갖춘 학생들을 변별하기에도 적합한 문제들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p>
인문 (계열) 1교시	위원1	<p>▶ 이 문항은 현대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즉,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통상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제시문에 나타나는 소수자에 대한 시각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이해된 바를 특정 현상이나 모습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 '다양성과 관용'등의 교과내용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미 익숙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와 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의 교과를 통해서 사회 계층과 불평등, 성적 소수자의 문제, 차별과 역차별 등의 교과 내용이 교육과정 내에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논술문항의 주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p> <p>제시문을 활용한 논제 또한 1) 2개의 제시문에 나타난 공통 주제를 인식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고, 2) 제 3의 제시문을 앞의 제시문 2개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으로, 기존의 숙명여자대학교가 반복적으로 출제해온 논술문항의 기본적인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논술 전형 지원자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상호 비교하여 우위를 변별함에 적절한 문항이며, 별도의 추가적인 사고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으로 판단되지 않는다.</p>
	위원2	<p>▶ 숙명여자대학교의 2017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1교시 문항의 주제는 현대 사회의 당면 과제인 '소수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삶과 사회의 문제들을 단순한 개인적 소견 차원에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철학적, 학문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수험생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과 성찰적 태도를 갖게 하려는 대학의 교육적 배려와 의도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와 의의가 있는 훌륭한 문제로 평가함.</p> <p>제시문의 수준이나 논리적 연관성, 제시문 발체의 범위 등 모든 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성하였다. 또한 인문학은 물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제시문들로 구성하여 통섭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통합논술의 지향점과도 일치함.</p> <p>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해결 방안의 논리성과 비판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들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별하기에 적합한 기준들임.</p> <p>형식과 내용, 분량, 표현 능력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른 능력을 평가하되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도록 9등급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 점이 인상적임. 특히 논거의 타당성과 내용의 완결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문제들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고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들을 선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p>
인문 (공통) 2교시	위원1	<p>▶ 인문 공통 2교시 논술고사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한국사회 성 불평등에 대한 사회 문제를 교육과정 내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잘 결합하여 대학의 우수한 인재선발과 고교교육정상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되었습니다.</p> <p>그래프와 제시문을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해석함으로써 사회 현상의 이면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한국 사회의 성 불평등을 주제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재취업 현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성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한 내용을 요즘 이슈가 되는 문</p>



인문 (계열) 2교시		<p>학 작품 속에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맥 속에서 꼬집어낸 핵심을 요약해 논리적으로 서술해내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대학 입학 후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충분히 검증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술고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p> <p>현대사회의 변동에 따라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의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험으로 판단됩니다.</p> <p>논술 문제가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 소설에서 그래프까지 참신한 제시문으로 구성하여 공교육 과정 안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교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출제된 아주 좋은 문제라고 여겨집니다.</p>
	위원2	<p>▶ 2018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2교시 공통문항은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p> <p>한국 사회 '성 불평등'을 주제로 하여 제시문과 그림에 나타난 주요 부문의 지표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재취업 현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이다. 주어진 지문들은 모두 고교교육과정의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이 주어진 지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논술고사에서는 고교교육과정에서 이미 읽은 지문을 다시 주고 암기한 내용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지문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어과에서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도록 하는 교육내용을 익힌 수험생은 사회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지문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p>
	위원1	<p>▶ 2018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2교시 계열문항은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p> <p>'처세의 갈등과 주체적 삶'이라는 주제 아래 서로 다른 상황 속에 놓인 지문을 각각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고전적 사유가 갖는 사상적 깊이와 주제를 이해하고 삶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따르고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문학 텍스트를 통해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문제이다. 계열문제의 제시문은 고전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깨닫게 된 점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양을 형성하고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고교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 소통, 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도달한 수험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p>
	위원2	<p>▶ 숙명여자대학교의 2018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2교시 문항의 출제 의도는 '처세의 갈등과 주체적 삶'이라는 주제 아래 서로 다른 상황 속에 놓인 지문을 각각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시문에 비해 논제가 다소 복잡하여 어려울 수 있으며 핵심주제를 파악하여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변별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예상함.</p> <p>제시문은 수험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광용의 소설 '꺼삐딴 리'가 출제되었고 제시문 (다)도 역시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였으며 제시문 (가)도 다소 낯선 고전이지만 독해력과 사고력을 갖춘 학</p>



		<p>생이라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교육과정에 충실함을 확인할 수 있음.</p> <p>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해결 방안의 논리성과 비판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들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별하기에 적합한 기준들임.</p> <p>형식과 내용, 분량, 표현 능력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른 능력을 평가하되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도록 9등급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 점이 인상적임. 특히 논거의 타당성과 내용의 완결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논제들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고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들을 선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p>
인문 (공통) 3교시	위원1	<p>▶ 인문 3교시 공통 문항은 최근 정부가 시행한 블라인드 채용을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과 연결시킴과 동시에 정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다루고 있지만, 문제에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사회적 신뢰'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보다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한 점이 돋보입니다.</p> <p>정책에 관한 대립되는 두 입장의 관점에서 의의와 한계 서술을 요구한 점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다각적 안목을 기른 학생들을 선별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p> <p>블라인드 채용과 절차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회 정의 및 절차적 공정성의 설명 배경과 취지, 적용 과정의 의의, 정책 실현 한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돋보이는 문항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성하였습니다.</p> <p>학생들에게 정의에 대한 교과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실천적 정책을 이해하여 논리적 사고 및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수준 높은 논술 문항으로 학교 수업과 사회현상에 관심 있는 학생은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p>
	위원2	<p>▶ 제시문 - 세 개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면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 개인과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탐색하는 사회교과목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제시문이다.</p> <p>논제 - 기존의 논술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문제 유형에 따른 선행학습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사용되어진 그림 역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교과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p> <p>출제 방향 -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수행하고 이해한 학생들이라면 논제에서 제시된 공정성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고, 심화된 지식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보다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p> <p>채점 기준 - 9개의 등급으로 구성하였고, 제시문을 논제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와 논증력과 표현력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고등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채점기준이 설정되었다.</p>
인문 (계열) 3교시	위원1	<p>▶ 제시문 - 세 개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 고전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면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위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문화 사회의 윤리, 관용, 문화 상대주의 등을 탐색하는 교과목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제시문이다.</p> <p>논제 - 기존의 논술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문제 유형에 따른 선행학습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각 제시문을 통합하여 이해하고 적</p>



		<p>용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논술할 수 있도록 논제가 구성되어 있어서, 고등학생들의 논술에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p> <p>출제 방향 -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논제에서 제시된 문화상대주의와 개인의 자유라는 쟁점과 논의에 익숙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출제방향은 교육과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p> <p>채점 기준 - 9개의 등급으로 구성하였고, 제시문을 논제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와 논증력, 이해력과 표현력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고등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채점기준이 설정되었다.</p>
	위원2	<p>▶ 숙명여자대학교의 2017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3교시 문항의 출제 의도는 이 세 지문의 연관성은 &lt;가&gt;·&lt;나&gt;에서 사회적 금기를 깨뜨린 행위가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lt;다&gt;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lt;가&gt;는 금기를 깨뜨린 후 법적인 제재, 즉 강제적인 처벌을 받고 있고, &lt;나&gt;는 비난과 동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에게 가하고 있는 법적인 처벌과 비난은 &lt;다&gt;의 준칙에서 볼 때 정당한 것인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시문에 비해 논제가 다소 복잡하여 어려울 수 있으며 핵심주제를 파악하여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변별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예상함.</p> <p>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해결 방안의 논리성과 비판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들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별하기에 적합한 기준들임. 9등급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 점이 인상적임. 특히 논거의 타당성과 내용의 완결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논제들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고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들을 선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p> <p>&lt;총평&gt; 숙명여자대학교의 2017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1, 2, 3교시 모든 계열문항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출제된 것으로 확인함. 고등학생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고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학생이라면 답안 작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p>
자연 (공통)	위원1	<p>▶ 이 문항은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 논술 문항이다. 따라서 자연계열 공통문항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논제의 주제 역시 과학기술, 생명 등과 관련된 논제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논제를 자유주의, 개인과 공동체 등의 인문학적 쟁점들과 연결시킴으로써 숙명여자대학교의 자연계열 공동 논술 문항으로서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p> <p>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인류가 마주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토대로 또 다른 텍스트를 해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논술문항의 한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제시문을 교과서의 일부 발췌하고 재편집하여 적용하는 등 논술주제 자체가 고등학교 사회,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과학기술과 미래 등의 교과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 것으로 인정된다.</p> <p>제시문을 활용한 논제 또한 1) 별도의 보기 문장을 제시문 1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2) 보기의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제시문 2, 3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입각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해석하고 각 논리에 입각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은 기존의 숙명여자대학교가 반복적으로 출제해온 논술문항의 기본적인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논술 전형 지원자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상호 비교하여 우위를 변별함에 적절한 문항이며, 별도의 추가적인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으로 판단되지 않는다.</p>



	위원2	<p>▶ 자연계열 공통 문항은 생활과 윤리 교과와 생명과학 윤리 주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평등과 자유주의, 구체적으로 유전자 조작 서비스의 상용화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처하게 된 유전자 조작 서비스를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하게 하여 학생의 논리력을 확인하고, 두 번째 요구사항인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하게 함으로서 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려고 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p> <p>또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해 보며,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자연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술 문제로서 의미가 큰 문항으로 여겨집니다.</p> <p>모든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 사회, 도덕(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교과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별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목에서 소개되는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주어진 문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시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지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우수한 독해력과 분석력을 갖춘 학생들을 변별하기에도 적합한 문제들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p> <p>자연계열 학생들이 통합적, 융합적 사고를 갖게 하여 학문적으로 편식하지 않도록 하는 숙명여대의 인재 선발 목표에 부응하는 논술 문항으로 인문, 사회 관련 교육과정에서 충실하고,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고찰을 충분히 해 온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교육과정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훌륭한 문항이라고 판단됩니다.</p>
	위원1	<p>▶ 자연계열 2-1, 2-2 문항에서 사용된 &lt;가&gt; 제시문은 [수학1]의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기하와 벡터]의 속도와 가속도 단원에서 출제된 것으로 학생들의 문제 이해 능력과 분석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고등학교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p> <p>또한 &lt;나&gt; 제시문과 2-3 문항은 [수학II]의 함수, [미적분I]의 함수의 극한, [미적분II]의 적분법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응용하여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함수의 극한과 부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아는 학생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고교 수준의 문제라고 판단된다.</p>
자연 (계열)	위원2	<p>▶ 논술고사 자연계 2번 문항에서 주어진 제시문&lt;가&gt;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미적분I 과목의 속도와 가속도 단원과 기하와 벡터의 평면 운동 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물체의 운동을 원이라는 상황에서 주어진 것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시각에 대한 두 점 P, Q가 움직인 거리를 수학I 과정에서 배운 좌표평면을 도입하여 표현하고, 이를 부등식의 기본 성질과 부등식의 영역 표시를 활용하여 두 점 P, Q가 만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p> <p>그리고 논술고사 자연계 2번 문항에서 주어진 제시문&lt;나&gt;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학II 과목의 함수 단원에서 정의된 함수 <math>f(x)</math>에 대하여 미적분I 과목의 함수의 극한 단원의 대소 관계와 미적분I 과목의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의 미분계수 정의와 부정적분 단원의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함수 <math>f(x)</math>를 구하는 과정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본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토대로 제시되었다.</p> <p>이에 따라 주어진 문제 2-1은 제시문&lt;가&gt;의 앞부분에 설명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따라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주어진 문제 2-2도 제시문&lt;가&gt;의 뒷부분에 설명된 내용을 이해한 학생은 같은 방법으로 따라 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제시되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p> <p>그리고 주어진 문제 2-3(a)은 주어진 함수에 <math>x=0</math>을 대입하면 간단하게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이고, 문제 2-3(b)는 제시문&lt;나&gt;의 설명된 내용과 똑같은 방법으로 함수의 극한과 미</p>



		<p>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따라가면 함수 <math>f(x)</math>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이다.</p> <p>이는 제시문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에서 제시되었고, 이를 그대로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p>
	위원3	<p>▶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지문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p> <p>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시문에서 잘 보여 주었고, 제시문을 따라서 이해하고 적용하면 문제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p> <p>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부등식, 함수의 극한, 미분, 부정적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을 평가하고자 하였다.</p>
재외국민 (국어)	위원1	<p>▶ 모든 문항들이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되었으며 전형 특성에 맞게 출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임.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음을 확인함.</p>
재외국민 (수학)	위원1	<p>▶ 재외국민 필답고사 수학영역은 고교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다.</p> <p>수학영역은 총 20문항을 출제하여 고교 교육과정인 수학I 과목에서 5문항, 수학II 과목에서 6문항,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4문항, 미적분I 과목에서 5문항으로 구성하여 고교 학생이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배우는 필수 교육과정에서만 출제하여 고교 수준의 학업을 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였다.</p>
재외국민 (영어)	위원1	<p>▶ 2018학년도 재외국민/새터민 특별전형 영어 문제의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영어적인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음. 향후 듣기, 쓰기(에세이 등) 영역을 추가하는 방안과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p>

□ 소위원회 문항별 추가 의견 및 논의내용

구분	내용	
인문 (계열) 1교시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제와 제시문들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음을 확인함. 다만,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하였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3개의 제시문 중 교과서 내 제시문이 하나도 없어 다소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함. 보완책으로 차후에는 교과서 내 제시문 채택을 확대하고 낯선 제시문일 경우 어휘풀이나 제시문 출처(제목)라도 포함시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함.</li> <li>▶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EBS 교재 활용안 검토 필요. 또한 제시문 출처 공개에 대한 의견에 원문의 가공정도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을 논의.</li> </ul>
인문 (계열) 3교시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을 원문 그대로 사용할 경우, 수험생들에게 지문이해가 쉽도록 윤문이 필요한 지 검토 요망</li> <li>- 한자/영어 병기를 위한 병기 처리 기준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li> <li>- 특정 종교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해당 종교적 시각이나 입장이 답안을 작성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점검하여 논술문항의 성격을 현재 처럼 잘 유지해야 함</li> <li>- 논제에 사용된 특정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지 검토 요망</li> </ul>



인문 (공통) 2·3교시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구성에 있어, 한자, 영어 등을 병기해야 하는 지문은 가능하면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li> <li>- 사회영역을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출제하여 미선택 학생의 역차별이 없도록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li> </ul>
자연 (공통)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계열 공통문항과 같이 제시문의 일부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하는 사례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li> <li>- 현재의 출제 시 검토하는 고교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과 함께 각 교과목의 세부 성취기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li> <li>- 단순히 교과서에 언급된 주제에서 대학의 논술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으로의 고교교육과 대학 논술문항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해당 논술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기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함.</li> <li>- 이를 통해 단순한 교과내용과 논술 제시문의 외형적, 형식적 연계성보다는 궁극적으로 고교의 교육성취와 교육방법 등과 대학의 논술시험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결국 논술 시험 또한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와 학교 내에서의 교과학습목표의 성취를 통해 근본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li> </ul>



### 3. 2019학년도 대입전형에의 반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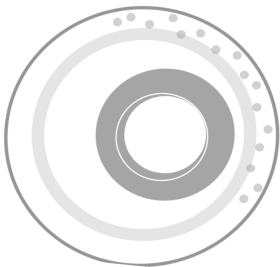
-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차년도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 절차 및 내용 개선에 반영

구분	2019학년도 대입전형에의 반영계획
논술고사	<p><input type="checkbox"/> 현재 우리대학의 논술고사 형태 및 수험생 지원 방향 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문항과 계열문항으로 나누어진 기존 논술고사 체계에서 공통문항을 삭제하고 계열 문항을 확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함. 계열별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 및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며, 고교교육과정범위 내 출제를 준수하고자 함</li> <li>• 모의논술 실시, 논술가이드북 제작 및 공개, 기출문제 및 해설 공개 등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 출제 방향 및 형태를 경험하게 하고, 수험생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대학 제공 자료만으로 충분히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모의논술 답안 제출자의 경우, 채점결과를 통해 본인의 등급 외 점수분포도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출제와 평가의 연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제자가 평가에 다수 참여하면서 본인의 출제의도에 맞는 답안이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자 사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여 출제와 평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유지하도록 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출제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 준수 여부 지속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중요성 및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li> <li>• 출제위원은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해 스스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출제하도록 하며, 출제과정 중 검토위원의 점검 및 최종 검토결과 제출을 통하여 출제 전부터 출제 후까지의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li> </ul>
기타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p><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 과목의 간소화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새터민·외국의전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의 필답고사로 국한되는 기타고사는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 국어, 외국어에세이, 영어, 수학의 과목을 선별적으로 부과했으며, 이 중 외국어에세이 과목은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바, 2018학년도부터 폐지하여 필답고사 과목의 간소화를 실천하였으며, 이를 2019학년도에도 유지함</li> </ul>
면접	<p><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질문은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도출하여 ‘종합적 사고력,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공통질문 및 제시문 출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2019학년도에도 유지함</p>





## Ⅵ. 부록





## VI. 부록

### 1. 선행 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숙명여자대학교의 자체 규정

□ 선행 학습 영향평가 시행 배경 및 관련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규정화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 학습 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도 개발 및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구술고사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법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 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실무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입학처장 및 관리정보처장)은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6.26.)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 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신설 2015.2.6.)

-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 학습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 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행 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 2. 대학별고사의 선행 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 3.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 4. 선행 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 ⑤ 대학별 고사의 선행 학습 영향평가는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완료하고, 3월 10일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선행 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은 3월 말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2. 논술고사의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붙임

###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교시 공통문항>

#### 1. 일반정보

관리번호	2018-1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공통) / 1교시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기억, 정보, 망각, 디지털, 컴퓨터, 인터넷
예상 소요 시간	60분	

#### 2. 문항 및 제시문

##### 1. <가>와 <나>의 차이를 요약하고,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의 한계를 논하시오.

(단, <그림>을 활용하시오.) (1,000±100자)

##### 제시문 <가>

인간은 대부분의 것들을 망각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쓴다. 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인간은 책부터 비디오에 이르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해 외부 메모리로 활용해 왔다. 이 도구들로 인해 인간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혁명을 통해 값싼 디지털 저장 장치의 이용, 손쉬운 검색, 전지구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도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으며,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 메카니즘의 하나를 일상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생물학적 망각이라는 구속과 인간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방대하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메모리는 정확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반드시 수반되는 망각조차도 인간이 초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수년 간 희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한 환자의 기록이 상세하게 담긴 디지털 의료 파일을 예로 들어보자. 의사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의사가 손으로 기록한 지 여러 해가 지나 판독하기 어려운 메모 같은 수단에 의지하는 것보다 이 파일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고 조사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기록이나 항공기 블랙박스는 증인의 두뇌가 재구성한 과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괄적이고 간편한 기억을 통해 확보된 부가적 효율성도 디지털 메모리가 지닌 큰 장점 중 하나다. 정교한 과학적 성과물이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자료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 메모리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매우 정확한 디지털 메모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여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더 잘 정의된 목표 집단을 향해 홍보할 수 있게 해준다.

##### 제시문 <나>



신경생물학의 발견 중 하나는 생물체의 기억이 컴퓨터 메모리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것이다. 생물체의 기억은 살아있는 데 비해 컴퓨터의 메모리는 그렇지 않다. 기억을 인터넷에 의존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은 생물체의 기억이 지닌 유기적인 성격을 간과한다. 생물체의 기억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과정에 있다. 컴퓨터와 달리 기억이 강화되면 뇌에는 새로운 연결의 조합, 즉 새로운 문맥이 생긴다. 반대로 컴퓨터에 저장된 기억은 별개의 정적인 비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저장 드라이브에서 다른 드라이브로 이 비트들을 원하는 횟수만큼 이동시킬 수 있고, 이 기억은 항상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다른 점은, 인간의 뇌는 더 이상 경험을 기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장기 기억을 저장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힘을 강화하며, 기억을 강화할 때마다 우리의 지적 능력은 향상된다. 인터넷은 기억에 편리하고 매력적인 보조물을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기억의 대체물로 사용하면서 내부적인 강화 과정을 무시해 버리면 풍부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정신은 텅 비게 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기억하거나 망각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기억 강화의 핵심은 집중이다. 기억을 저장하고 이와 동일한 강도로 중요한 것들을 연결하는 일은, 지적인 반복과 감정적인 개입을 통해 확대되는 강한 정신적 집중을 필요로 한다. 예리하게 집중할수록 기억도 더 예리해진다. 이에 비해 우리가 온라인상에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하기가 어렵다.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욱 산만해지는데, 정보를 매우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그것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평소 인터넷 서핑을 즐겨 하던 많은 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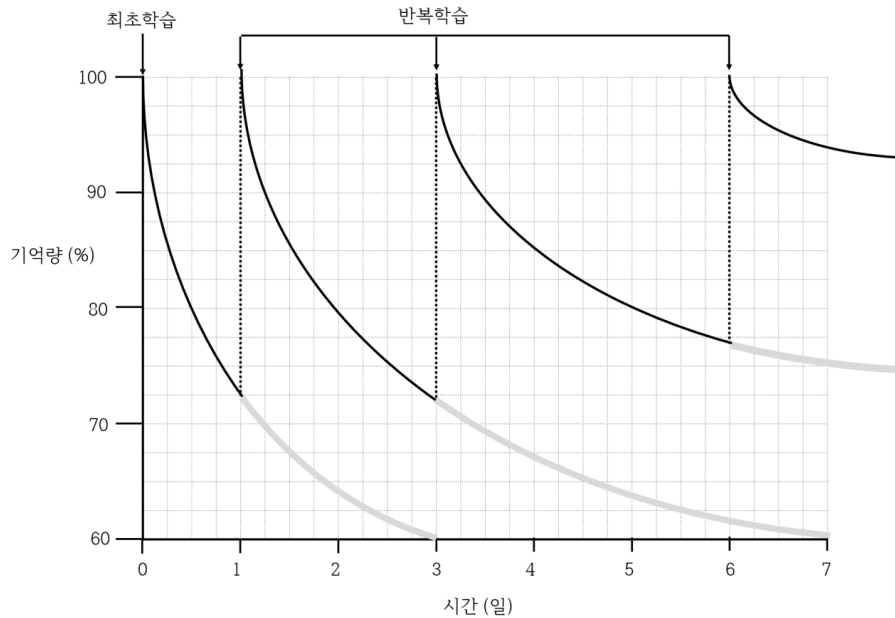
## 제시문 <다>

심리학자들은 기억을 길들여진 습관, 즉 반복에 의해 점점 더 깊게 새겨지는 지각의 인상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의 기억들이 우리 삶의 사건들과 세부 사항들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특정한 날에 발생하며 결코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학습된 기억들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학습된 기억들에 더 주목한다. 그리고 동일한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이 기억들을 획득하는 과정이 이미 알려진 습관의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기억을 기꺼이 전면으로 밀어 올려 ‘기억의 전형’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반복에 의해 구성되어야만 하는 것’과 ‘본질상 반복될 수 없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어떤 계기를 통해 불현듯 찾아오는 회상과 같은 ‘우발적 기억’은 반복에 의해 가능하지 않고 개인에게 고유한 것이다.

이에 비해 습관과 같은 학습된 기억은 더 잘 암기될수록 점점 더 비개인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반복으로 인해 우발적 기억이 습관적 기억으로 전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책에 나오는 특정한 내용을 반복 학습하여 기억하는 것과, 어떤 책을 단 한 번 읽었을 뿐인데도 훗날 우연한 계기를 통해 그 사건이 특별한 독서 경험으로 회상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내가 방금 구별한 두 기억들 중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기억으로 보이는 것은 우발적 기억이다. 심리학자들은 반복 학습에 의해 획득된 기억을 탐구하지만, 이것은 기억 자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 기억에 의해 조명된 습관이다. 우리의 뇌는 주어진 어떤 지각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추억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은 뇌의 기능과는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적 기억과 우발적 기억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그림> 반복학습과 기억량의 변화





### 3. 제시문 요약

제시문<가> : V. M. Schönberger, 구본권 옮김,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5, 139-140쪽.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가>는 과거와 달리 디지털 시대에는 외부 저장 장치의 도움으로 망각보다 기억이 더 쉬워지고 일 반화되었다는 점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다. 이제는 외부 저장 장치나 인터넷의 손쉬운 검색 등을 통 해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힘들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나> : N. Carr, 최지향 옮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2017, 279-286쪽. 발췌 후 재구 성.

제시문<나>는 컴퓨터의 메모리와 달리 인간의 기억은 강화를 통해 부단히 갱신되며, 발달된 디지털 매체 들에 의존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뇌는 더 산만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집중과 같은 인간에게 고유한 지적 능력은 저하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제시문<다> : H. Bergson,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7, 145-146쪽.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다>는 반복 학습되어 암기된 기억은 개인에게 고유한 기억이 아니라 동일한 지각을 계속 유지하 는 습관일 뿐이며, 개인에게 탁월한 기억은 어느 순간 선명하게 다가오는 회상과 같은 우발적 기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발적 기억은 단순히 지각에 의존하는 뇌의 기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억을 생 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림> : D. A. Liebermann, 김기중 외 옮김, <학습과 기억>, 교육과학사, 2013, 366-368쪽. 참조하여 재 구성.

<그림>은 인간이 학습한 최초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망각되지만, 반복학습을 통해 망각되는 속도를 늦추고 기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이 보여주는 바처럼, 최초 학습 후 1일이 경과했을 때의 기억량(약72%)과 반복 학습을 한 후 2일이 경과했을 때 기억량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시



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량의 추이를 볼 때, 학습이 반복될수록 기억은 점점 더 오래 지속되고 기억량도 더 증가한다.

#### 4. 출제 의도

인간에게 ‘기억(메모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라고 부르는 오늘날 기억이라는 말은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라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 또한,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 기억을 인간의 신체 중 뇌가 담당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관점도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정보의 저장 및 검색이나 뇌의 기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기억은 없는 것일까? 우리의 기억은 모두 정보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일까? 본 문항은 디지털 기술과 뇌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기억의 문제를 상이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제시문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고안되었다.

####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의 의의  (가) 인간의 삶과 윤리 사상 인간의 본질과 특성, 인간 행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이해하여 윤리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간의 삶에서 윤리 사상이 필요함을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① 인간의 본질과 특성(49쪽)	제시문 <다> 문항1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3)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라) 정보 사회와 윤리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끼친 영향 및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저작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폭력, 게임·인터넷 중독 등)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순기능과 역기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정보 사회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 윤리에 대해 탐구한다. ①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39쪽) ② 사이버 공간과 자아 정체성(39쪽)	제시문 <가> <나> <다> 문항1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4) 환경 변화와 인간  (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삶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를 이해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일상 공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①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며, 비판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과학 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파악한다.(66쪽)	제시문 <가> <나> 문항1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25) 논거의 타당성, 조직의 효과성, 표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고쳐 쓴다. 설득을 위한 글을 쓸 때 설득하는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비추어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쓰는 것은 글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기본적으로 어휘나 어법을 바르게 고치려면 어휘와 문장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어휘나 문장의 오용 유형을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설득을 위한 글은 내용 면에서 논거의 타당성과 풍부성이 중요하고 조직 면에서는 일관성, 내용 조직의 체계성 등이 중요하며, 표현 면에서는 논리성, 명확성 등이 중요하다. 특히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독자를 포함한 언어 공동체를 고려한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부분을 수정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108쪽)			제시문 <가> <나> <다> 문항1
문 항	고등학교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윤리와 사상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교훈11. 인간의 본질과 특성 · 인간 행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이해하고, 윤리 사상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으며, 윤리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능력과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생활과 윤리	과학 기술과 윤리	고생31.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윤리 문제에 관한 조사 · 분석을 통해 과학 기술과 관련된 윤리 문제와 책임을 이해하고, 과학 기술에 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윤리 시각을 확립 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사회	환경 변화와 인간	사회1241. 과학 기술 의 발달이 인간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비판적인 관점에 기하여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설득을 위한 작문	310325-2. 논거의 타 당성을 점검하며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잊혀질 권리	V. M. Schönberger (구본권 옮김)	지식의날개	2015	139-140	제시문(가)	○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N. Carr (최지향 옮김)	청림출판	2017	279-286	제시문(나)	○
물질과 기억	H. Bergson (박종원 옮김)	아카넷	2007	145-146	제시문(다)	○
학습과 기억	D. A. Lieberman (김기중 외 옮김)	교육과학사	2013	366-368	<그림>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5	10-13	제시문 <다>문항1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6	150-155	제시문 < 가 > < 나 > <다>문항1	○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5	148-153	제시문 < 가 > < 나 > 문항1	○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박영민 외	비상	2015	210-215	제시문 < 가 > < 나 > <다>문항1	○



## 6. 문항 해설

### ■ 논제의 구성

논제는 ‘기억(메모리)’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달에 대해 상반되는 관점을 보여주는 <가>와 <나>의 논지를 이해하고, 기술의 발달과 무관하게 인간의 고유한 기억을 강조하는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를 비교·평가하여 그 한계를 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 아래 주어진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논제는 다음 세 개의 요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요약하시오.

둘째,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의 한계를 논하시오.

셋째, <그림>을 활용하시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그림>의 요지를 파악한 후, 그것의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둘째, <가>와 <나>의 논지를 파악한 후 그들 간의 차이를 이해한다.

셋째, <다>의 입장을 파악한다.

넷째,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의 한계를 논한다.

## 7. 채점 기준

### ■ 답안 구성 요소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가>와 <나>의 차이를 요약하기

- <가>의 논지: 인간이 어떤 것을 직접 기억할 때보다 디지털 매체에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은 정확성과 효율성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 <나>의 논지: 인간이 디지털 매체에 의존하면서 기억의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면, 인간의 뇌는 집중과 같은 지적 능력 면에서 퇴화된다.
- <가>와 <나>의 차이: <가>는 인간이 자신의 기억을 디지털 매체에 의존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나>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메모리의 차이에 근거하여 인간이 디지털 매체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② <다>의 입장을 파악하기

- 반복 학습에 의해 형성된 습관적 기억과 불현 듯 떠오르는 회상과 같은 우발적 기억은 질적으로 다르다.
-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은 습관적 기억이 아니라 우발적 기억이다.



- 우발적 기억은 인간이 아닌 외부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고 검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뇌의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 ③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의 한계를 논하기

- <가>의 주장대로 과거에 비해 디지털 시대에는 반복 학습을 통한 기억의 중요성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다>는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고 검색되는 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한 추억과 같은 우발적 기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비판할 것이다.
- <나>가 인간의 기억과 디지털 매체의 메모리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신경생물학적인 뇌의 작용에 의존해 인간의 기억을 설명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을 뇌의 기능으로 보지 않는 <다>는 <나>가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 <다>는 <가>와 <나>가 모두 우발적 기억과 같은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 ④ <그림>을 활용하기

- <그림>은 인간의 기억이 반복 학습을 통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가>는 디지털 메모리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림>이 보여주는 반복 학습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고, <나>는 컴퓨터 메모리와 전혀 다른 인간의 뇌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그림>에 보여주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 <그림>은 <다>가 주장하는 우발적 기억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니므로, <다>가 <가>와 <나>의 한계를 논할 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 문항의 취지에 맞게 채점 기준은 답안의 내용과 표현 모두에 강조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논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정도, 답안 서술 과정의 논증구성력 등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한다.

앞에서 제시한 답안 구성 요소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9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설득력 높은 논증력과 정확한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적절히 수행했으나,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한 경우

4등급: ①, ②를 적절히 수행했으나, ③과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중 제시문 한 개의 논지 파악이 부실하고, ③과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중 제시문 두 개의 논지 파악이 부실하고, ③과 ④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결론을 충실히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7등급: ①, ② 중 모든 제시문의 논지 파악이 부실하고, ③과 ④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결론을 충실히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수행하는 데 실패한 경우

9등급: 답안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혹은 분량이 1,100자를 넘는 경우

## 8. 예시 답안

과거에는 기억보다 망각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림>에서처럼 인간은 반복 학습을 통해 기억을 오래 보존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가>는 기억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그림>이 보여주는 반복 학습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는 외부 저장 장치나 인터넷



검색의 도움으로 인간 스스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나>는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디지털 매체에 수동적으로 의존할수록 집중과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저하된다고 본다. 이 점에서 <가>와 달리 <나>는 <그림>이 보여주는 반복 학습이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며,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기억하려는 활동을 통해서만 인간의 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갱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는 반복 학습에 의한 기억을 개인의 고유한 기억이라고 보지 않고 우발적 기억을 강조한다. 비록 <가>의 주장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그림>처럼 반복 학습을 통한 기억이 불필요해졌다고 하더라도, <다>는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한 추억과 같은 우발적 기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비판할 것이다. 또한, <나>는 <그림>의 반복 학습이 디지털 시대에도 뇌의 강화를 위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가>와 입장이 다르다. <나>가 인간의 기억과 디지털 메모리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가 <가>보다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신경생물학적인 뇌의 작용에 의존해 인간의 기억을 설명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고유한 우발적 기억을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가>와 <나>는 외부 디지털 매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상반되지만 둘 다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이들이 모두 인간의 기억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교시 계열문항>

### 1. 일반정보

관리번호	2018-2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 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계열) / 1교시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소수자, 다수자, 소수자되기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제시문

#### <가>

우리의 시대는 소수자들의 시대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대중 매체에 의해 획일화된 주체가 되도록 강요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 색다른 생각과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위로부터의 거대한 획일화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 자기 안에서부터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수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수가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수자는 수적으로 소수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다수일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다수의 흑인들이 소수의 백인들에게 권력을 독점당한 채 여전히 주변으로 내몰려 있다.

소수자들은 권력을 지닌 다수자와 국가권력으로부터 배제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소수자들은 국가의 감시 시선에 감지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활동을 벌여 나간다. 자신들의 고유한 욕망을 당당하게 표출하면서 주변으로 향하는 다양한 출구들을 찾아 나선다. 일부 소수자들은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국가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은 국가 장치에 포획되기를 거부하는 특성을 보인다. 소수자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다수자와 투쟁하는 것은 소수자 운동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소수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고유하고 색다른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도 한다. 거대한 전선에서의 힘겨움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를 바꾸면서 자신의 주위도 바꾸어 가는 미시 정치적 힘겨움에 나서는 것이다.

기존의 틀에, 표준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려면 기꺼이 ‘소수자되기’를 감행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풍부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소수자적 특성들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작은 혁명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다양한 소수자적 특성들을 거부하고 표준에 고착되어 저 멀리 있는 권력의 환영에 젖어 획일화된 공간에 갇혀 있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서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는 자유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 개의 고원』에서 다수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다수는 상대적으로 큰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의 결정을 의미한다. 백인, 성인, 남성 등 다수성이 지배의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상태가 다수성을 뜻한다.” 이런 정의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는 다수자가 수적으로 우세한 존재들을 의미하며 소수자는 이에 비해 수적 열세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엔가 숨어 있는 듯 드물고 낮은 소수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



다고 믿는다.

그러나 소수성을 강조하는 이 철학자들에 따르면 “다수성이라는 추상적 유형은 세계를 하나의 모델로 고정시키는 것일 뿐 구체적 형식 속에서 충만하게 실존할 수 없다. 소수는 모든 사람(Everybody)이다.” 소수가 만인이라니? 이 이상스런 철학적 정의가 진실임을 보여주는 사례 하나.

헝가리 태생의 코미디 배우 피터 로르(1904~1964)는 멋진 연기로 1930~40년대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중 한 사람이었다. 찰리 채플린은 피터 로르를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배우”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1950년대 초반 미국 전역에서 매카시즘 열풍이 불어 닥쳤을 때 할리우드의 영화인들 역시 큰 고역을 치렀다. 어느 날 로르의 집에도 연방수사국 직원이 나타나 사상적으로 수상한 인물을 모두 대라고 협박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말했다. 끝도 없이 줄줄이 나오는 이름들을 검은 수첩에 가득 받아 적으며 그 연방수사국 직원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후 연방수사국은 다시는 로르를 찾지 않았다.

“누가 사상 검증이 필요한 자인가?”(“누가 소수자인가?”)라는 연방수사국 직원의 물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두 다!”라고 말한 로르의 유쾌한 답변이야말로 소수성의 철학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연방수사국이 정한 ‘건전한 사상의 소유자’라는 다수적이고 표준적인 모델은 그들의 서류철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모든 이들은 어떤 면에서든 항상 표준에서 벗어나는 실존의 독특성을 지닌다. 소수자는 우리가 특별히 만나야 할 어떤 인물, 어떤 계층이 아니다. 그는 기준에 벗어나는 모든 순간을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이다. 다수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자는 아무도 아닌 자(Nobody)이다.

## 〈다〉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길에 불과 몇 걸음 차이로 옆집 남자들을 피할 수 있었던 운수 좋은 날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같은 처지끼리 인사나 하고 지내지.”

한쪽 목발을 짚고 있는 그녀는 굼직하게 생긴 외모처럼 태도도 시원시원했다. 박명화라고 이름을 밝힌 그녀가 또래 대학 입학생들보다 나이가 네 살이나 더 먹었다고 털어놓은 것은 만난 지 일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나는 썩 내키는 기분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둘의 관계를 의식해 나 역시 결코 만만찮은 나이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둘은 동갑인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인 공통성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똑같이 공유해야 할 두 사람의 처지를 확인하는 일이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모임이 있대, 샘물회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녀는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좀 열적은 기분이 들었다. 소위, 같은 처지끼리 밀어낼 것까지야 없지만 구태여 끌어당겨서 한통속으로 몰려다니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마지못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샘물회의 첫인상은 뜻밖으로 강렬했다.

중국집에서 방과 방을 가르는 사잇문을 떼어 버리고 길쭉하게 튼 공간에 회원들 모두 둘러앉았다. 오래된 나무 탁자 가장자리에는 버드나무 채를 후려친 것처럼 빼곡하게 들어찬 칼자국으로 성한 데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다 칼을 숨겨 다니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야 새길 수 없는 예리한 자국들이었다. 쉽게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참으로 다양한 방식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야! 부실한 인간들 참 많다.”

“저 인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어이구! 저 부실한 인간.”

“부실한 것들, 모였다 하면 골 때린다니까.”



구석자리에서 누군가 능청스레 감탄사를 내뱉었고 그러자마자 이쪽저쪽에서 다시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다.

부실이라는 단어는 샘물회의 성격을 대변하는 유머로 일찌감치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핵심적인 카타르시스로 작동되고 있었다. 여태까지는 늘 신체성의 결격이나 결핍으로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터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아예 드러내 놓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부실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좌중들은 번번이 폭소에 빠졌다.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의 단어가 매번 사람들에게 새로운 듯이 사용되었고 어느새 나 또한 익숙해져갔다. 차츰 방 안의 분위기는 익을 대로 익어서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친밀감으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육체에 고장이 난 사람들을 부실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육체를 싸고 있는 옷을 훌훌 벗어버린 맑은 정신은 가능한가? 대지를 디딜 힘이 달려서 늘 허덕이는 장애인은 널려 있는 땅 위를 마음 놓고 주저앉아 보지도 못했다. 차오르는 열기 속에서 나는 심연의 생채기에 새살이 차오르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 2.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가>와 <나>를 통해 설명하시오. (1,000±100자)

### 3. 제시문 요약

<가>: 윤수종,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학사, 2002)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의 서문이다. 소수자들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현대 사회에는 더욱 다양한 소수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소수자는 숫자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소수자들은 권력을 지닌 다수자와 국가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 특징을 지니며, 따라서 소수자들이 다수자와 투쟁하는 것은 소수자 운동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소수자들은 자신의 내부를 바꾸고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주위를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운동의 움직임을 보인다. 소수자적 특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작은 혁명들을 통해 위로부터의 거대한 획일화 강요에 맞서고 표준화된 틀을 해체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 진은영, 「소수자, 우리는 어디에서 그들과 마주치는가?」(고병권 편, 『R 소수성의 정치학』, 그린비, 2007)

제시문 <나>는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방향성을 주창한 잡지에 수록된 선언적 단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정의에 따르면 다수자와 소수자는 숫자나 양이 아니라 표준의 결정이자 지배적 상태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항상 표준에서 벗어나는 실존의 독특성을 지니기에, 실은 우리 모두가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는 특별한 어떤 인물이나 계층, 어딘가에 숨어 있는 낯설고 드문 이가 아니다. 소수자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순간을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이다. 미국의 코미디 배우 피터 로르의 에피소드는 만인의 소수자성을 증명하는 일례다. 매커시즘 광풍이 엄습한 1950년대 초반, 피터 로르는 연방수사국의 폭로 압박에 대해 사상적으로 수상한 인물은 “내가 알고 있는 모두 다!”라고 대응하였다. 이는 지배 체제가 정한 ‘건전성’이라는 자의적 표준을 조소하는 행위이자 ‘소수자는 모든 사람’이라는 소수성의 철학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대처였다.

<다>: 김미선, 「깊은 우물」(윤수종 엮음, 『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문학들, 2014)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쓴 장애인 소설의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내용이다. ‘나’는 약수터를 오



가는 길에 이웃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마저 꺼릴 정도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20대의 장애인 여성이다.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박명화라는 여성의 소개를 받아 마지못해 참석한 장애인 대학생 모임 ‘샘물회’에서 ‘나’는 뜻밖으로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특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어인 ‘부실’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오히려 서로를 호칭하는 유머로 사용하며 카타르시스를 나누는 광경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나’는 처음의 서먹함을 넘어 모임의 열띤 분위기에 고무되어 그들과 끈끈한 친밀감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장애인을 부실인간이라 차별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장애라는 결핍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점차 눈뜨게 된다. ‘나’는 차별과 비하, 자기소외 등으로 축적된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벽찬 기분으로 고양된다.

#### 4. 출제 의도

인문계열 1회차 계열논술 문항의 주제는 ‘소수자 문제’이다. 소수자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당면 과제다. 신체, 인종, 성별, 계급, 나이, 지역, 성적 지향 등등 다양한 기준의 소수자들과 함께 공존·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수자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소수자들은 특별하거나 낮은 존재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나름의 소수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소수자들 또한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내부를 바꾸며 주위도 바뀌어가는 작은 혁명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본 문제는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파악하고, 그 인식 내용을 통해 소수자 자신의 자각을 통한 정체성 확인의 의의를 제대로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 5.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2)공정성의 삶과 질 (가)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④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예: 장애인 고용제, 공정 거래 제도, 국토 균형 개발 등)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료화한다. (59쪽)  (나)다양성과 관용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성이나 다문화를 단순히 인종이나 민족 문화의 차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①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간과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문화, 종교 갈등, 학교 폭력 등)를 파악한다. (60쪽)	제시문 <가> <나> <다>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라)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시각을 이해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마)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153쪽)	제시문 <가> <나> <다>	



##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2)생명·성·가족·윤리 (다)성과 사랑의 윤리 성(性)과 사랑의 의미,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과 사랑에 대한 성숙한 윤리관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토론한다. ②성 차별과 성적 소수자 문제 (37쪽)	제시문 <가> <나>
성취 기준 2	(4)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다)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 ②차별과 역차별,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40쪽)	제시문 <가> <나> <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4)사회 사상 (다)공동체와 연대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①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 형성 기능(구성적 공동체) (56쪽)	제시문 <가> <다>

문항	고등학교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2	사회	공정성의 삶과 질	사회122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사회1225.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존중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 문화	사회 계 층과 불 평등	사1245.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이들에 대한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생활과 윤리	생 명 · 성 · 가 족 · 윤 리	고생23. 성(性)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과 토론을 통해 성과 사랑의 의미, 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성과 사랑에 대한 성숙한 윤리관을 형성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생활과 윤리	사회 윤 리와 직 업 윤리	고생43. 인권, 역차별,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윤리와 사상	사회 사 상	고윤42.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 및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윤수중	이학사	2002	11-17	제시문 <가>	○
「소수자, 우리는 어디에서 그들과 마주치는가?」 (고병권 편, 『R 소수성의 정치학』)	진은영	그린비	2007	315-316	제시문 <나>	×
「깊은 우물」 (윤수중 엮음, 『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김미선	문학들	2014	179-194	제시문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	박윤진 외 5인	지학사	2014	56-59	제시문 <가><나><다>	○
사회	육근록 외 4인	비상교육	2014	62-65	제시문 <가><나><다>	○
사회.문화	강운선 외 5인	미래엔	2014	150-153	제시문 <가><나><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8인	천재교육	2014	66-67	제시문 <가><나><다>	○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6인	비상교육	2014	186-190	제시문 <가><나><다>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11인	미래엔	2014	228-229	제시문 <가><다>	○

## 6. 문항 해설

### <논제의 구성>

본 논술문항의 주제는 ‘소수자 문제’이다.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소수자 혹은 소수자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글이며, 제시문 <다>는 소수자 당사자가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소수자를 소외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각하게 되는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는 소설의 한 장면이다.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미를 <가>와 <나>를 통해 설명하시오. (1000±100자)

논제는 제시문 <가>와 <나>의 소수자 인식을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고, 제시문 <다>의 소설에서 등장인물 ‘나’의 심리 변화의 의미를 <가>와 <나>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자의 자기 정체성 찾기, 즉 ‘소수자되기’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환기할 수 있도록 논제가 고



안되었다.

논제는 다음의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시오.

둘째, <다>의 소설 속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을 밝힌다.

둘째,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밝힌다.

셋째,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넷째,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가>와 <나>를 통해 설명한다.

## 7. 채점 기준

### 1. 답안 구성요소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답안은 구체적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파악

둘째,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

셋째, <다>의 '나'의 심리 변화 내용 파악

넷째, <다>의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가>와 <나> 내용에 근거해 설명

\*답안은 다음의 세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① <가>와 <나>의 소수자 혹은 소수성에 대한 인식 파악

#### 1) <가>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소수자는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적으로 다수인 사람들도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권력을 독점당한 채 주변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들은 권력을 지닌 다수자와 국가권력으로부터 배제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소수자들이 다수자와 투쟁하는 것은 그 때문이며, 이것은 소수자 운동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소수자들은 다수자와의 큰 싸움만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작은 운동에도 주력한다. 자신의 내부를 바꾸면서 사회도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소수자 운동이 대두되고 있다.



-소수자적 특성을 기꺼이 수용하는 ‘소수자되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틀을 거부하는 새로운 작은 혁명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 2)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들뢰즈와 가타리의 다수성에 대한 정의는 수나 양이 아니라 표준의 결정과 지배의 상태에 기초한다.

-따라서 소수자는 드물고 낮은 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배우 피터 로르의 일화는 표준화를 강요하는 지배 권력의 억압에 대한 지극히 현명한 대처였던 동시에 ‘우리 모두가 소수자’라는 소수성의 철학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일례이다.

-모든 사람들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나름의 독특성을 지니며,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는 우리들 자신이다.

## ② <가>와 <나>의 소수자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

### 1) <가>와 <나>의 소수자 인식의 공통점

-첫째, 소수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수자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과 지배 상태의 문제이며, 따라서 수적으로 다수인 사람들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와 <나>는 공유한다.

-둘째, 소수자는 권력의 표준화·획일화 요구를 거부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가>의 소수자는 권력에 포획되기를 거부하고 작은 혁명을 만들어 나가며, <나>의 소수자는 피터 로르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에서 벗어나는 실존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권력에 저항한다.

### 2) <가>와 <나>의 소수자 인식의 차이점

-첫째, <가>는 소수자와 다수자를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나>는 모든 사람은 소수자라는 인식에서 다수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가>는 소수자 및 다수자의 범위 설정이 가능하지만 <나>는 범위 설정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둘째, <가>는 소수자의 집단적 정체성, 즉 ‘소수자되기’에 중점을 두는 반면 <나>는 소수자 모두가 공유하는 개인의 실존적 독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 ③ <다>의 ‘나’의 심리 변화 내용 파악

-제시문 <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쓴 장애인소설의 일부이다.

-‘나’는 이웃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마저 꺼릴 정도로 위축된 삶을 살아가던 20대 장애인 여성이다.

-박명화의 소개로 마지못해 참석한 장애인 대학생 모임 ‘샘물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어 ‘부실’을 오히려 서로를 호칭하는 유머로 사용해 카타르시스를 나누는 광경에 ‘나’는 충격을 받는다.

-자신들의 결핍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되레 드러냄으로써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나’ 또한 같은 장애인으로서의 친밀감·유대감을 공유하게 된다.

-‘나’의 내면에는 장애인을 부실인간이라고 차별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또한 짙게 되고, ‘나’는 차별과 비하, 자기소외 등으로 축적돼 온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벅찬 기분을 맛보게 된다.

## ④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가>와 <나> 내용에 근거해 설명



### 1) <가>에 의거해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 설명

-<다>의 ‘나’가 샘물회 모임 참가를 통해 장애인으로서의 유대감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은 소수자들이 자신들에게 그간 결핍으로 여겨졌던 소수자적 특성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는 <가>의 내용에 부합한다.

-그간의 위축된 마음을 넘어서 상처가 치유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싹트게 되는 <다>의 ‘나’의 내면 변화의 과정은 <가>의 ‘소수자되기’를 통한 작은 혁명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나>에 의거해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 설명

-육체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부실인간이라 부를 수 없다는 <다>의 ‘나’의 문제제기는 모든 이가 표준을 벗어나는 나름의 독특성을 지니므로 우리 모두가 소수자라는 <나>의 인식을 통해 뒷받침된다.

-장애라는 결핍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 <다>의 ‘나’의 심리 변화는 나름의 낯설고 의심스러운 점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수자라는 <나>의 인식과 긴밀히 연동한다.

## 2. 채점 기준 (9등급 평가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아래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p> <p>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답안 서술이 체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경우</p> <p>2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서술과 표현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경우</p> <p>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한 경우</p> <p>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5등급: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한 경우</p> <p>6등급: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7등급: ①, ②를 부분적으로 충족하고, ③, ④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8등급: 구성요소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답안 완성도에 큰 결함이 있는 경우</p> <p>9등급: 문항의 요구사항과 무관한 글을 썼거나 답안 분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p>	

## 8.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표명한 글로 두 글에서는 소수자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드러난다. 우선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소수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수자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과 지배 상태의 문제이며, 따라서 수적으로 다수인 사람들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와 <나>는 공유한다. 두 번째 공통점은 소수자는 권력의 표준화·확일화 요구를 거부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가>의 소수자는 권력에 포획되기를 거부하고 작은 혁명을 만들어 나가며, <나>의 소수자는 피터 로르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에서 벗어나는 실존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권력에 저항한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가>는 소수자와 다수자를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나>는 모든 사람은 소수자라는 인식에서 다수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가>는 소수자 및 다수자의 범위 설정이 가능하지만 <나>는 범위 설정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둘째는 <가>는 소수자의 집단적 정체성, 즉 소수자되기에 중점을 두는 반면 <나>는 소수자 모두가 공유하는 개인의 실존적 독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제시문 <다>는 장애인으로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던 20대 여성 ‘나’가 마지못해 참석한 장애인모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다.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우선 <가>를 통해 살펴보면, 소수자들에게 그간 결핍으로 여겨졌던 소수자적 특성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내부를 바꾸고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소수자되기가 ‘나’의 내면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작은 혁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 깊다. 또한 위축된 열등감을 넘어서 장애인을 차별해 온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르는 ‘나’의 자각은, 나름의 독특성을 지니므로 모든 이가 소수자라는 <나>의 인식과 맞닿는다. 아무런 의심스러운 점도 지니지 않은 이들은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는 낯선 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나>의 인식이, <다>의 주인공의 심리변화의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3. 문항카드 ③ <인문계열 2교시 공통문항>

### 1. 일반정보

관리번호	2018-3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8년도 수시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공통)/ 2교시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성평등
예상 소요 시간	60분	

### 2. 문항 및 제시문

#### <가>

김지영 씨의 주변에도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일을 다시 시작한 엄마들이 많았다. 원래 일하던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고, 방문 교사나 학원 강사, 공부방 창업 등 사교육 시장에 뛰어든 경우도 있었고, 캐서, 서빙, 정수기 관리, 전화 상담 등 각종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절반 이상이 5년 넘도록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렵게 재취업하더라도 직종과 고용 형태 면에서 모두 하향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 이전의 직장과의 비교해 보면 재취업 시 4인 이하 규모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두 배로 뛰고, 제조업과 사무직이 줄어드는 반면 숙박, 음식점업과 판매직은 늘어난다. 임금 조건 역시 좋을 리 없다.

무상 보육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 놓고 커피를 마시고, 손톱 관리를 받고, 백화점에서 쇼핑이나 하고 다닌다고들 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경제력을 갖춘 30대는 극히 일부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을 나르고, 남의 손톱을 정리하고, 마트와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엄마들이 더 많다. 딸이 태어난 후 김지영 씨는 또래의 일하는 여성들과 마주칠 때면 아이가 있을까, 몇 살일까, 누구에게 맡겼을까 궁금해졌다. 경기불황, 높은 물가, 열악한 노동현장……삶의 어떤 고난도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지영 씨는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반찬거리를 사러 마트에 들렀다가 마트 입구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평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지를 보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급 5600원, 주부 환영.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 점원도 주부인 것 같았다. 괜히 아이스크림을 한 컵 사 먹으며 구인광고에 대해 물었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본인도 두 아이 엄마인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4년 가까이 일했다고 한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그만 두는 거라며 많이 아쉬워했다.

“건물 안에 있는 거라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도 않고, 날이 추워지면 더 한가해요.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푸느라 팔이 좀 아팠는데, 그것도 요령이 생기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2년 넘게 일하면 원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애기 엄마도 참. 무슨 그런 순진한 소리가 다 있어? 근로 계약서 쓰고, 4대 보험 되고 그런 알바 자리 없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두 계약하고 적당히 내 통장으로 입금되다가 남편 통장으로 입금되다가 그러는 거지. 그래도 난 오래 일했다고 퇴직금 조로 조금 챙겨준다더라고.”

같은 아이 엄마라서 그랬는지, 김지영 씨가 순진한 소리를 해서 그랬는지, 점원은 마음이 쓰이는 눈치였다. 아이 어린이집 보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이만한 일자리 없다고, 일단 구인광고는 때



어 놓을 테니 생각해 보고 빨리 연락 달라고 했다. 김지영 씨가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돌아서는 데, 점원이 말했다.

“나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점원의 뜬금없는 말에, 어이없게도 김지영 씨는 울컥 서러워졌다. 내내 점원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 〈나〉

산업화와 더불어 과거에 지배적이던 ‘노동과 삶의 통일’은 깨지고 가족은 노동 및 경제 공동체라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남성은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여성의 노동 및 삶의 상황 역시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여성들의 활동 중심이 집으로 국한되게 되었다. 이 때 여성의 노동 영역은 매일처럼 요구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것에서 완성된 상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동시에 감정적인 과제가 확대되었다. 이제 여성의 과제는 매일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점차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은 눈에 띄지 않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가족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이 남녀 사이에 새 노동 분업이 탄생하였다. 남성이 외부 세계와 직업과 사회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정과 집안일과 가족을 맡게 되었다. 직업적인 활동 영역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본성에 대한 관념까지도 구분되었다. 여기서 남성적 본성이란 활동성과 추진력과 힘과 이성이며, 여성적 본성이란 온순함과 겸손함과 감정과 감수성이다.

새로운 성역할은 이념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토대를 지닌 것이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역할은 임의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부상하는 산업사회의 토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상하는 산업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노동시장의 삶과 타인을 돌보는 일, 즉 ‘자유로운 시장’과 ‘평화의 오아시스로서의 가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에 대해 정반대되는 성적 특성이 구성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조적인 미덕들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졌다. 신분의 제약을 넘어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의 원칙은 출생에 따라 한쪽 성에게는 주어지고 다른 쪽 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남성에게는 자기 주장인 것이 여성에게는 자기 포기가 되는 것이다. 여성은 오로지 아이 돌봄, 곧 모성을 바탕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모성을 위한 자아 포기가 여성의 지고의 행복”이라는 모성에 이데올로기는 18세기에 시작돼 19세기에 번성했으며 20세기에도 지속되어 교육서와 문학서, 예술에 스며들었고, 지금도 온존하고 있다.

## 〈다〉

여성들의 가정생활은 옛날에 비해 힘이 훨씬 덜 든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교한 기계들로 둘러싸여 지낸다. 그들은 콩을 재배하거나 저녁상에 내놓을 닭을 기르지는 않는다. 그저 식료품점에서 필요한 것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또 양털을 깎아 빗질한 뒤, 그것으로 스커트나 코트, 담요를 만들기 위해 피륙을 짤 필요 없이 여성들은 카탈로그를 뒤지거나 백화점에 들러 옷을 구입한다.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따뜻한 물, 분유, 통조림, 전구,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스토브, 전자레인지, 냉장고, 전기냄비, 편리한 조리 기구들, 전화기, 심지어 토요일 아침 TV까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발명품들은 요리, 세탁, 청소, 쇼핑 그리고 아기 양육 등 여성의 일들을 훨씬 쉽게 만들었다. 마침내 여성들은 집 밖에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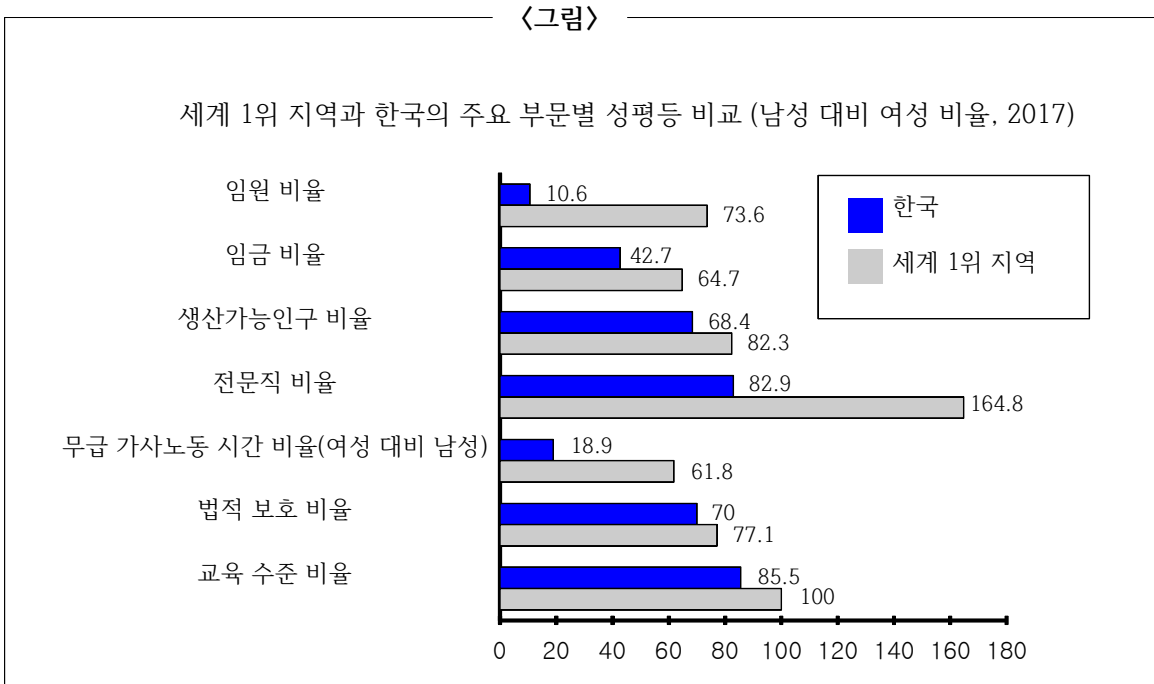
일자리 또한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굴뚝과 조립 라인 산업이 퇴조하고 매우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와 서비스 분야가 성장하는 현실은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무 직종의 모든 일자리, 의료 및 기술 직종, 그리고 가르치는 일, 간호, 가정요양치료, 어린이 돌보기, 소매업, 서비스 산업 등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체로 이런 일자리들



은 남성들이 지닌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이런 일자리는 상당수가 파트타임이거나 근무 시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여성들에게 호소력을 지니는 요소는 아닐까.

우리 시대의 노동력은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기를 출산하는 횟수도 훨씬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출생률의 감소 추세를 지속시키고, 여성들의 노동력 진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보다 적은 자녀들, 더욱 편리해진 가전제품들, 집 밖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일자리, 훨씬 높아진 여성들의 교육 수준 등, 이 모든 요소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력에 합류하도록 부추긴다.

1. <가>의 상황을 <나>와 아래 <그림>을 통해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1,000±100자)



### 3.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7년, 159~161쪽에서 발췌)

제시문 <가>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의 일을 양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고, 아이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재취업을 할 때 직종과 고용형태, 임금이 하향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대학교육을 받았음에도 여성들이 가정과 양립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사이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저임금 단순 서비스직이나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기혼여성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 :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 『모성애의 발명』(이재원 옮김, 알마, 2014년, 59~78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나>는 산업화로 여성과 남성의 노동 분업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남성은 바깥일에, 여성은 가정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정반대되는 성적 특성을 내면화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즉 남성에게는 활동성의 덕목이 여성에게는 온순함과 복종, 순종이 강요됨으로써 새로운 성역할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근대화 과정에서 획득된 자유와 평등은 남성에게만 주어졌고, 여성에게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모성에 이데올로기가 주입되어 지금도 잔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다> : 헬렌 피셔, 『제1의 성』(정명진 옮김, 생각의 나무, 2005년, 57~59쪽에서 발췌후 운문)**

제시문 <다>는 여성이 이제까지 맡아 왔던 가사노동의 부담이 각종 편리한 가전제품 등으로 보다 수월해 되면서 사회진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는 여성들이 집안일에 매이지 않게 생활 여건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고 한다. 더구나 아이도 적게 낳고 있고 여성 친화적인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여성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져서 노동시장 진출이 유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파트타임의 형태로 근무시간을 융통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계속해서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림> : 손해용, “‘82년생 김지영씨’의 유리 천장은 여전합니다”, <중앙일보> 2017.10.19. (재구성)**

<그림>은 세계1위 지역과 한국의 주요 부문별 성평등을 비교한 지표다. 법적 보호와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지만, 낮은 여성임원비율과 여성들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권한이 낮은 직군에 배치되어 임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유리천장이 존재를 암시하고,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을 여성이 일차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4. 출제 의도

출제 의도는 한국 사회 ‘성불평등’을 주제로 제시문 <가>와 <그림>에 나타난 주요 부문의 지표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재취업 현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있다. <가>를 <나>와 <그림>을 근거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이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능력이 있는지 살펴 보는데 출제 의도가 있다.

제시문 <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재취업이 어렵고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에 놓이게 되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과 성역할에 따른 모성에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는 가정과 육아에 우선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다>는 과거보다 편리해진 가정생활과 여성 관련 일자리의 증가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성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시각을 이해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가)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한다.(153쪽) (라) 성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153쪽)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3) 문화와 사회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각 사회마다 문화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도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임을 파악한다. 또한 문화가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한다. 아울러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가)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153쪽)			제시문 (나)
성취 기준 3	(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역동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 변동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다. 그리고 사회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대화 와 산업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의 중요한 변화 양상인 세계화와 정보화를 이해한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방안 에 관해서 알아본다. (나) 근대 사회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근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살펴본다.(154쪽) (다) 산업화에 따른 노동 및 인구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154쪽)			제시문 (다)
문 항	고등학교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문화	사회계층 과 불평등	사1241.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사1244. 성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불평등 상이 발생 하는 원인과 해결 방 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문화	문화와 사회	사1231. 문화의 의미 와 속성을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사회의 복합적인 사회상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문화	현대사회 와 사회변동7	사1262. 근 사회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론 에서 근화를 설명할 수 있다. 사1263. 산업화의 의미와 그에 따른 노동 과 인구의 변화 과정 을 이해하고 노동 인구 문제의 원인과 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82년생 김지영씨'의 유리 천장은 여전합니다	손해용	중앙일보	2017. 10.19.		도표	○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7	159~161	제시문 <가>	×
모성애의 발명	Elisabeth Beck Gernsheim (이재원 옮김)	알마	2014	59~78	제시문 <나>	○
제1의 성	Helen Fisher (정명진 옮김)	생각의 나무	2005	57~59	제시문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이진석(외)	지학사	2015	150~153	성불평등의 의미와 해결방안	×
사회문화	박선웅(외)	금성출판사	2015	154~156	성 불평등문제	×
사회문화	신형민(외)	비상교육	2015	167~170	성 불평등	×

## 6. 문항 해설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의 문제 상황을 <나>와 아래 <그림>을 통해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1000±100자)

제시문 <가>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기혼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제시문 <나>는 여성에게 작용하고 있는 성역할과 모성 이데올로기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생활여건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림>은 세계1위 지역과 한국사회의 주요 부문별 성평등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각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있는 '사회계층과 성불평등'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고교 학습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는 두 단계로 논제가 구성되었다.

1단계는 <가>의 문제 상황을 <나>와 <그림>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

제시문 <가>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을 <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표>에 나타난 각 부문별 불평등 지표들의 차이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에서 아이 양육과 관련한 부담으로 여성들이 재취업시 선택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직종과 고용형태, 임금 등이 열악한 상황이, <나>에서 언급한 남녀간의 성별 분업화와 모성에 이데올로기로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가사노동과 아이 양육의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지어 해석해야 한다. 또한 <그림>에서 나타난 무급 가사노동시간에 여성비율이 높다는 점과 임원비율이 낮은 사실과 <가>에서 언급한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가정의 일을 부담지우고 있음을 해석해야 한다.

**2단계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다>에서 언급한 내용을 비판해야 한다.**

<다>는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어 사회 진출이 용이해졌고,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와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재취업이 사실상 쉽지 않고 또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이 낮다는 점에서 <다>의 논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즉 파트타임의 확대가 여성노동력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과 비정규직 여성문제로 나타나고 있기에, <다>에서 여성들의 사회 노동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고착된 성역할과 모성 이데올로기가 작동함으로써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확보하고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즉 한국사회의 경우 법적, 교육적 차원의 형식적 성평등은 달성되었지만 여성에게 기대하는 엄마로서의 성역할과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실질적인 성평등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림>과의 연관성을 찾아 이를 해석하며 통합적,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 성불평등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 7. 채점 기준

### ※ 답안 구성 요소

#### 1.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

① <가>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경력이 단절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이 비정규직 등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열악한 고용현실을 지적해야 한다.

#### 2. 제시문 <나>의 주장과 <그림>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② <나>의 핵심 주장을 잘 파악해야 한다. <나>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남녀사이에 노동 분업이 형성되어 남성은 사회적 영역에, 여성은 가정 일을 전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발견해야 한다. 이는 활동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역할에 따라 본성으로 내면화되어 여성에게는 모성에 이데올로기가 강조됨으로써 아이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③ <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부문간 지표 차이에서 드러난 맥락을 추론해야 한다. 세계1위 지역과 비교해볼 때 한국사회의 경우 여성과 남성은 법적 측면과 교육수준, 생산 가능인구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임원비율과 무급가사노동시간 비율에서 성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형식적인 평등은 이루어졌지만,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해야 한다.



### 3. 제시문 <나>와 <그림>을 통해 제시문 <가>의 상황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

④ <나>의 성분업, 모성이데올로기와 <그림>의 무급가사노동시간과 임원비율 등의 지표와 <가>에서 나타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연관지어 해석해야 한다. 즉 여성들이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의 문제와 여성이 질이 낮은 일자리를 맡게 된 근본 원인이 사실상 고정화된 성역할과 가부장적 문화에 기반한다는 점을 발견해야 한다. 여성에게 가정에서의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해석해 내야 한다.

⑤ <가>, <나>, <다>를 잘 연결시켜 논지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가정이 우선이고 모성이 중요하다고 강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을 나온 여성이라도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될 경우 재취업이 어렵고,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단순 서비스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불평등의 원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과 조직에서 임원으로 성장이 어렵다는 점은 가장인 남성이 우선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국사회 성불평등의 특징을 해석해야 한다.

### 4. 제시문 <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⑥ <다>의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는 과거에 비해 편리해진 가전제품과 생활여건으로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보다 적은 자녀를 갖게 됨으로써 아이 양육의 부담이 감소되고, 가정 일에서 여성들이 해방되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 친화적인 다양한 일자리들이 등장하고 있고, 파트타임 등 유연한 근무형태가 가능해졌으며, 여성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5. 제시문<가>의 상황을 <나>와 <그림>을 통해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의 한계를 잘 비판하고 있는가?

⑦ <다>의 한계를 전반부 논의를 바탕으로 연결하고 비판해야 한다. 여성들이 남성과 비슷한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질이 낮다는 것과,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여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다>에서 언급한 여성해방은 이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야 한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역할 분리와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전문성이 없는 단순 서비스직에 종사하거나 임원으로의 성장은 쉽지 않다는 점을 비판해야 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사부담 시간도 줄어들지 않아 사회적 노동력이 확대되는 흐름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 • Key Word :

제시문 가) 여성노동, 재취업, 육아, 파트타임, 비정규직, 최저임금, 경력단절여성

제시문 나) 성분업, 여성적 본성, 성역할, 모성애 이데올로기, 젠더

제시문 다) 여성해방, 유연한 근무시간, 편리해진 가전제품, 교육수준, 사회적 노동력

#### ※ 채점 기준

■ 채점 기준은 위의 ①에서 ⑦까지의 답안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9등급으로 평가한다.



1.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2. 제시문 <나>와 <그림>에 근거하여 <가>의 문제 상황과 원인을 해석하고 있는가?
3. 앞의 해석에 바탕을 두어 제시문 <다>의 한계를 정확히 비판하고 있는가?
4. 답안 전개가 전체적으로 논리적이며, 내용이 분석적으로 서술되고 있는가?
5. 국어 정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장이 정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1 등급: 위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체계적인 논증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 2 등급: 위의 5가지 기준 가운데 1-4는 충족시키지만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 3 등급: 위의 5가지 기준 가운데 1-4는 충족시키지만 논리 전개가 서툰 경우
- 4 등급: 위의 5가지 기준 가운데 1-3은 충족시키지만 정서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 5 등급: 위의 5가지 기준 가운데 1-3은 충족시키지만 4와 5의 기준을 못 지키는 경우
- 6 등급: 위의 5가지 기준 가운데 지문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해 1-3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
- 7 등급: 위의 5가지 기준 가운데 1-3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4와 5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
- 8 등급: 위의 5가지 기준을 대체로 지키지 못하고 답안분량이 1,100자를 넘는 경우
- 9 등급: 위의 5가지 기준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답안분량도 현저히 미달일 경우

## 8. 예시 답안

<가>는 한국사회에서 결혼한 여성들이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거의 없고, 어렵게 재취업을 해도 직종과 고용, 임금수준이 낮다.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또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가정에서의 역할에 일차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했어도 단순 서비스직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등 여성의 사회적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나>는 산업화로 성별분업이 고착화되면서 여성에게 모성애 이데올로기를 통해 아이 돌보기와 가사노동을 내재화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은 한국사회가 법적 보호와 교육 수준에서는 대체로 평등하나, '임원 비율'과 '무급 가사노동시간 비율'을 세계 1위 지역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불평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임금비율'과 '전문직 비율'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결혼 후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전문직 분야에서 임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지급도 성에 따른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에서 편리한 가전제품이 등장하고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유연하게 일을 선택할 수 있어 사회진출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즉 법과 제도, 교육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현저하게 길고, 임원 승진이 어렵다는 사실은 <다>의 논지가 이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임원 비율이 낮은 것은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육아와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우선 부담을 지움으로써 경력단절로 사회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력이 증가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의 이중부담으로부터 여성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를 비판할 수 있다.



## 2-4. 문항카드 ④ <인문계열 2교시 계열문항>

### 1. 일반정보

관리번호	2018-4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 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계열) / 2교시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전, 문학,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이치, 처세, 친일, 비폭력 저항 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제시문(제시문 요약)

#### <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세상이 휩쓸려가는데 따르지 않고 피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림자와 메아리가 묵묵히 앉아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럴 리는 없다. 어째서 상고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넷물이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 중략 ……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마땅히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니 행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그만둔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올바르게 되어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마음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도 운명과 귀신이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 <나>

갑자기 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었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똘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졌다.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꾸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도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울리고 있었다.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해숙이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 중략 ……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뜻뜻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측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술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 <다>

아마다바드의 집회가 끝난 바로 직후 나는 나디아드로 갔다. 후에는 널리 유행이 된 말이지만, 내가 히말라야적 오산(誤算)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쓴 것은 여기서였다. 아마다바드에 있을 때도 내 잘못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나디아드에 와서 사태의 진상을 내 눈으로 보고 케다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문



득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 중략 .....

누구나 시민의 불복종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먼저 국가의 모든 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이 무섭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킨다. 도덕률에 관계되지 않는 법인 경우에 특히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복종은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발적인 순종은 아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의 모든 법을 이치적으로, 또한 자기의 자유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성한 자기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킨다. 이와 같이 사회의 모든 법을 성실히 지키고 난 후에야 누구나 어떤 법이 선하고 옳으며, 어떤 법이 사악하고 부당한지 능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런 다음에야 어떤 특정한 법에 대해 명확한 조건 아래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부여된다.

내 잘못은 이처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잘 알지 못한 데 있었다. 나는 씨울들이 이러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기 전에 시민 불복종에 나서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잘못이 내가 보기엔 히말라야같이 큰 것이었다.

2.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비판하고 <다>에서 말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1,000자±100자)

### 3. 출제 의도

-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처세의 갈등과 주체적 삶'이라는 주제 아래 서로 다른 상황 속에 놓인 지문을 각각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다.
- 고전적 사유가 갖는 사상적 깊이와 주제를 이해하고, 삶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따르고,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문학 텍스트(소설, 자서전)를 통해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 창의력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고전	
	성취 기준 1	(7) 고전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깨닫게 된 점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양을 형성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약되어 있다.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경로이다. 고전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과 교양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한다.(147쪽)
		관련 제시문 <가>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문학	
	성취 기준 1	(13)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작품 속의 세계와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자신의 삶과 생각을 통해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독자는 풍부한 감수성, 예리한 통찰력, 따뜻한 포용력, 바람직한 가치관 등을 두루 갖춘 내면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삶의 다양성을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자아의 내면세계가 보다 넓고 깊어짐으로써 타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개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138쪽)
		관련 제시문 <나>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다)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 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④ 준법과 시민 불복종(40쪽)			제시문 <다>
문항	고등학교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2	고전	고 전 의 탐구	31067-1. 고전이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양 형성의 능력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1067-2. 고전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깨닫게 된 점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안목과 교양을 형성할 수 있다. 31067-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학	문 학 과 삶	310513-1.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생각을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다. 310513-2.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생활과 윤리	사 회 윤 리 와 직 업 윤 리	고생43. 인권, 역차별,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고전	정민 외	해냄에듀	2015	284-296	제시문<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5	162-173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수려기’, (『나를 찾아 가는 길』)	이용휴	돌베개	2014	69-70	제시문 <가>	×
‘꺼삐딴 리’ (『한국소설문학대계』33)	전광용	동아출판	1995	253-255	제시문<나>	×
‘히말라야적 오산’ (『간디 자서전』)	간디	한길사	2003	604-605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15	144-145	제시문<가>	×
고등학교 국어2	문영진 외	창비	2015	128-131	제시문<나>	×
고등학교 고전	정민 외	해냄에듀	2015	284-296	제시문<다>	○

## 5. 문항 해설

논제의 구성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비판하고 <다>에서 말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이 무엇 인지를 설명하시오.(1,000자±100자)**

논제는 ‘처세의 갈등’과 ‘주체적 삶’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는 <가>의 논지를 이해하고, 소설 <가>와 자서전 <나>가 제시하는 구체적 상황을 이해한 다음, <가>의 논지를 적용하여 <나>의 서술화자가 보여준 태도를 비판하고, <다>의 서술화자가 도달한 인식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의 논지를 파악하시오.

둘째, <나>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분석하고 <가>에 근거하여 이를 비판하시오.

셋째, <다>에 나타난 ‘비판적 저항 운동의 조건’을 요약하고, <가>에 근거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단계의 사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의 논지 파악하기

둘째, <가>의 논지로 <나>에 나타난 ‘그’의 태도 분석하고, 비판하기

셋째, <가>의 논지로 <다>에 나타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 요약하고 설명하기

각 제시문 요지

<가>에 제시된 「수려기(隨廬記)」는 18세기 연암 박지원과 쌍벽을 이룬 혜환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의 글이다. 이 글은 어떤 이가 ‘따르며 살리라’는 지향을 담아 자신의 집에 ‘수려(隨廬)라는 이름을 붙이자, 그 건물의 이름에 담긴 뜻을 풀어 준 기문(記文)이다.

<가>는 세상사 만물이 나름의 법칙대로 흘러가니, 가급적 일반적 추세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 추세, 시세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이치’를 따져 따를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 이치가 바로 ‘자기 마음’에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마음에 되물어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난 후, 행하기를 강조한다. 즉 <가>의 논지는 일반적인 추세, 시세를 따르되 행하는 이의 자기마음, 즉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도록 행하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처세의 갈등을 요령 있게 전개하고 있지만 어떤 행동이나 실천을 앞둔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지 하는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합당한 '기준'을 핵심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조건 혹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제시문 <나>는 1962년 발표된 전광용의 소설 「꺼삐딴 리」 가운데 일부이다. 일제 때는 친일을 하고 해방 이후의 북한에서는 소련군 장교의 환심을 사서 친소 행동을 벌이다가 이남에 내려와서는 다시 미국에 편향하는 행태를 보이는 외과의사 이인국을 통해 작가는 한국 근대사의 상처와 명예를 재삼 확인하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국가도 양심도 문제 삼지 않는 인간 유형을 창조해냈다.

<다>의 소설 속 '그'(이인국)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안위만을 좇는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다. '그'는 해방 후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과거 친일 행적이 문제될까 싶어 재빨리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일제 식민 시절, '그'는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일본어 상용에 적극 동참하는데, 온 집안이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 즉 당시 국어를 적극 사용하여 일제로부터 표창까지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정세가 급변하자 이번엔 소련군 치하에 적응할 방법에 골몰하면서 양심이나 소신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 않은 채 과거를 은폐하려는 심리와 행동을 보이고 있다.

<다>에 제시된 『간디 자서전-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는 간디가 1927년과 1929년에 각각 상.하로 나누어 출간한 자서전의 일부로, 이 대목에는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하던 도중에 겪은 일과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반성 등이 담겨 있다.

<다>는 민중들 스스로의 인식과 실천이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 속에서 '나'(간디)가 깨닫게 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과 스스로의 과오를 적고 있다. '나'는 민중들의 불법과 폭력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민중들 스스로의 인식과 준비 정도를 간과한 채 성급하게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라고 한 것이 커다란 잘못이었음을 알게 된다. '나'는 이러한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일부로부터 조소를 받기도 하지만 더욱 냉철한 반성을 통해 비폭력 저항 운동이 지켜야 할 원칙과 조건을 생각하기에 이른다. 비폭력 저항 운동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치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때라야 비로소 특정한 법에 대해 명확한 조건 아래서 운동이 성립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 6. 채점 기준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적절한가.

-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답안 구성 요소별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①<가>가 말하는 '따르며 산다'의 의미 이해

- <가>는 세상사 만물이 나름의 법칙대로 흘러가니, 가급적 일반적 추세를 따르라고 한다. 물론 백이숙제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개는 남들 혹은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시세를 거역하긴 어려우니 따르며 살라는 것이다. 심지어 우(禹)임금이나 공자 같은 성현들도 동시대의 풍속, 관례를 따른 것이야말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가>는 일반적 추세나 시세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이치'를 따져 비로소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치가 바로 '자기 마음'에 있으니 반드시 자기마음에 되물어 거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난 후, 행하기를 강조한다.

- 즉 <가>의 논지는 일반적인 추세나 시세를 따르되 행하는 이의 자기마음, 즉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도록 행하라는 것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니 망설임 없이 행하고,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생긴다면 이치에 어긋난 것이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가>는 표면적으로는 처세의 갈등을 요령 있게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나 실천을 앞둔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지 하는 따름의 ‘대상’보다는 그러한 따름의 합당한 ‘기준’을 핵심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조건 혹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 ②<가>의 근거로 <나>에 나타난 ‘그’의 갈등 상황 및 태도를 분석하고 비판하기

- <다>의 소설 속 ‘그’(이인국)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안위만을 쫓는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해방 후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리적 갈등 상황에 봉착한다. 세상이 바꾸자 무엇에 따라 처세해야할지 고민은 깊어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똘’하는 모습이 제시문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 무엇에 따를 것인지, 바뀐 정세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는 장면은 ‘움짚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일제 식민 치하에서 국어, 즉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 사용에 적극 동참한 공로로 받았던 표창장을 해방되자마자 벽장에 숨겨놓았었는데, 그것을 꺼내 글자 한 자도 남지 않게 꼼꼼히 찢어 버린다. 소련군을 따르는 데 자신의 과거 친일 행적이 문제될까 싶어서 재빨리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다.
- ‘그’(이인국)의 이러한 행동은 ‘아름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는 표현 등으로 볼 때, 분명 자기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다. 온 집안이 일본어 사용에 동참해서 일제로부터 표창과 치하를 받았고, 해방 된 이후에 다시 우리 국어를 쓰는 것이 어색할 정도였던 그는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국가도 양심도 소신도 저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의 논지로 볼 때, ‘그’(이인국)의 이러한 태도는 이치에 맞는 따름(처세)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나>에 묘사된 그의 심리는 마음의 거리낌이 적지 않다. 이러한 거리낌은 양심에 비추어 나오는 것일 텐데, 그는 양심의 가책이나 자기마음의 머뭇거림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태도나 행동은 합당한 기준에 부합하는 따름이 아니고,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 ③<가>에 근거하여 <다>에서 말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 요약하고 의미 설명하기

- <다>는 비폭력 저항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태를 마주하면서 ‘나’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가져온 시행착오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있다. 일련의 폭력사태는 ‘나’로 하여금 큰 잘못을 깨닫게 하는데, 오산의 핵심은 민중들의 준비 정도가 미흡한데도 성급하게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게 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과 이에 기반을 둔 대중 운동의 대의를 성찰하기에 이른다.
- <다>에서 말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은 구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충실히 양심적으로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즉 비폭력 저항 운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자유 의지로 행하는 실천이라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특정 법의 옳고 그름을 능히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런 다음에야 특정 법에 대한 명확한 조건 아래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 <가>의 관점에 근거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은 구성원들이 국가의 법(시세)에 따르면서도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즉 자발적이고, 자유 의지로 행해야 하며, 그럴 때라야 이치에 맞는 따름으로서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비폭력 저항 운동의 구성원들은 마음의 꺼림이 있는 상태, 즉 자발적 순종과 자유 의지에 의하지 않고 시세를 따르지 않으면서 폭력 사태를 초래했다. ‘나’(간디)는 이를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항 운동을 유보하는 냉정한 결정에 이르는 것이다.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위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p> <p>1등급: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고, 답안 서술이 체계적이며 완성도가 높은 경우</p> <p>2등급: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고, 서술과 표현에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경우</p> <p>3등급: ①, ②를 모두 충족하고, ③을 부분적으로 충족한 경우</p> <p>4등급: ①, ②를 모두 충족하고, ③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5등급: ①, ② 중 한 개만 충족하고, ③을 부분적으로 충족한 경우</p> <p>6등급: ①, ② 중 한 개만 충족하고, ③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7등급: ①, ②, ③ 중 한 개만 충족한 경우</p> <p>8등급: 구성 요소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답이 완성도에 큰 결함이 있는 경우</p> <p>9등급: 문항의 요구사항과 관계없는 글을 썼거나 답안 분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p>	

## 7. 예시 답안

<가>의 논지는 ‘시세를 따르되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치에 맞으면서도 시세를 거스르지 않는 삶이라고 본다. 서술화자는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곧 행하는 이의 자기마음, 즉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보아 거리낌이 없는 때, 세상의 추이에 따라 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처세의 갈등을 요령 있게 전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따를지 하는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합당한 ‘기준’을 핵심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나>의 소설 속 ‘그’(이인국)는 시세에 적극적으로 따른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는 식민과 해방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친일행각 같은 떳떳치 못하고 양심에 거리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변하자 자신의 안위만을 좇아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치에 맞는 따름(처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는 저항 운동의 복판에서 민중들의 준비 정도와 정세에 따른 ‘나’의 오산과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을 서술하고 있다. <가>의 관점에 근거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은 구성원들이 국가의 법(시세)에 따르면서도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즉 자발적이고, 자유 의지로 행해야 하며, 그럴 때라야 이치에 맞는 따름으로서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비폭력 저항 운동의 구성원들은 마음의 꺼림이 있는 상태, 즉 자발적 순종과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법(시세)을 따르지 않으면서 급기야 폭력 사태를 초래했다. ‘나’(간디)는 이를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유보하는 냉정한 결정에 이르는 것이다.



## 2-5. 문항카드 ⑤ <인문계열 3교시 공통문항>

### 1. 일반정보

관리번호	2018-5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8년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공통) / 3교시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 정의, 절차적 정의, 롤스, 블라인드 채용
예상 소요 시간	60분	

### 2. 문항 및 제시문

#### 공 통 문 항

##### <가>

블라인드(blind)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신체 조건이나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는 식으로 선입견이나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입사지원서나 면접 등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신체 조건, 가족 관계, 학력과 같은 인적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랬던 것이 요즘에는 개인에 대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채용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앞장선 것은 바로 정부다. 정부는 2017년 7월 5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322개 공공기관 전체가 블라인드 채용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8월부터는 149개 지방 공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됐다. 또한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 공공기관 전체에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바탕을 둔 채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력서에 출신지와 출신 대학, 신체적 특징 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 방침이 발표되자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그로 인해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이 중시되는 비합리적인 사회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펙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반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그것이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인 학력이나 학점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같은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



#### 〈나〉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은 완전한 절차적 정의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비교할 때 가장 잘 이해된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로서 공정한 분할의 가장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를 때 그가 제일 마지막에 먹게 된다면 그는 케이크를 똑같은 크기로 자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가 갖는 두 가지 특징, 즉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준과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는 형사 재판에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결과는 피고가 자신이 고발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지만, 종종 죄 없는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이러한 순수 절차적 정의가 갖는 실제적인 큰 이점은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수하게 다양한 여건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특정 인간의 지위를 계속 추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수 절차적 정의는 근본적으로 평등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 입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 해당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의 본질적 특성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에 있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아무도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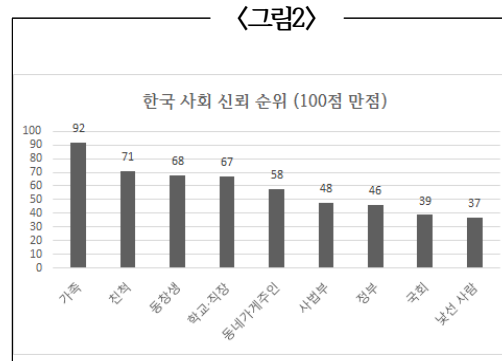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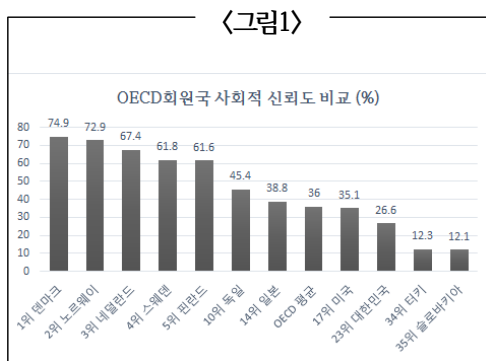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회 정의는 절차적 공정성을 통해 지켜진다. 너무나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회에서 정확한 미래 예측이나 절대적 정당 혹은 궁극의 선을 확신하기 힘들 때, 절차적 공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어떤 규정과 원칙을 정할 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만들지는 않는다. 규칙과 원칙은 항상 예측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규범과 규칙은 보통 직접 관찰이 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가 학벌과 스펙에 집착하고, 토플이나 토익 점수에 매달리고, 월 미하는지도 모르는 쓸데없는 각종 수치와 보고서에 매달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절차적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뭔가 객관적인 자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고 그 사실을 믿지도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청년실업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현재와 같은 초경쟁사회에서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사라졌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몇 개 안 되는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험 성적이 주요 결정 요인이 되었다. 그 외의 주관적인 요인들은 불공정과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다.



하지만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함을 강조하다 보면, 정당화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강조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치로 측정 가능한 능력이 중요한 영역에서라면 이런 객관화된 방식의 선발은 문제될 것이 없다. 원래 똑똑한 사람, 그냥 능력 있는 인재를 원하는 영역은 그런 객관화된 평가로 선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봉사 정신, 사랑, 애정, 열정 등과 같은 덕목이 필요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는 이런 선발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학생을 아끼는 마음, 교육을 좋아하는 마음, 환자와 생명을 아끼는 마음,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객관적 수치화는 종종 획일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등한시하여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공영역에서라도 그런 주관적 가치의 회복이 이뤄져야 하고 공정성을 조금 포기하는 용기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궁극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수 있다.

1. <가> 정책에 대해 아래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나>와 <다>에 근거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기술 하시오. (1,000±100자)



### 3.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김진호, 「블라인드 채용」(『경북매일』 게재일 2017.10.24.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가>는 2017년도부터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과 그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하고 있는 신문 칼럼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학력, 신체조건,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채용 방식이 도입된 이유는 학연, 혈연, 지연, 성별 등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채용의 기준을 침범하여 작용할 가능성을 막고, 그 결과로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사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 적용을 두고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절차적 공정성을 달성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학력이나 학점을 평가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반론도 존재한다.

제시문 <나> : 존 롤스, 『정의론』(이학사, 2003년, 46~47쪽, 135~137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나>는 사회 정의 및 절차적 공정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 항상 참조되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발췌한 지문이다. 롤스에 따르면,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다른 우연한 사회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규칙이 요구되는 데, 그러한 규칙은 그것을 정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가치관 등을 모른다는 ‘무지의 베일’을 가정할 때에 달성된다고 말한다. 즉 그럴 때에만 개인의 태생이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정의의 원칙들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제시문 <다> : 허태균, 『어쩌다 한국인』 (중앙books, 2015년, 345~346쪽, 356~357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다>는 절차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심리적인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황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예측 가능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수치화가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객관적 수치화를 통해 부정과 불공정이 개입될 소지를 없애고 그 결과로 절차적 공정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객관적 수치화,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정량평가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개인의 열정과 같은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정량적인 부분의 강조는 오히려 확실성을 낳을 수도 있어 사회의 다양성, 창의성을 훼손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4. 출제 의도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불신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다.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등 각종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그러한 문제는 학연, 지연, 혈연, 성별과 복잡하게 얽혀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한 가지 해결 방안으로서 2017년 정부 정책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비합리적 요소가 공정한 절차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현재 한국 사회가 매우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실현된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다.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절차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사회 정의 및 절차적 공정성을 설명해 온 이론적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그것은 어떠한 취지와 내용을 가진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그러한 정책 실현에는 어떠한 한계도 보이는데 대해 주어진 지문 속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7]
관련 성취기준	<p>(2) 공정성과 삶의 질</p> <p>(가) 개인과 공동체</p> <p>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p>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①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58쪽)			제 시 문 <다>
성취 기준 2	②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59쪽)			제 시 문 <가>
성취 기준 3	③ 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파악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주권자로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59쪽)			제 시 문 <나>
성취 기준 4	④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예: 장애인 고용제, 공정 거래 제도, 국토 균형 개발 등)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료화한다.(59쪽)			제 시 문 <가>
문항	고등학교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	공정성과 삶의 질	사회1221.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	공정성과 삶의 질	사회1222.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	공정성과 삶의 질	사회1223. 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를 한 다양한 제도 장치를 제시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주권자로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	공정성과 삶의 질	사회1224. 사회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5	42~61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블라인드 채용」	김진호	『경북매일』	2017			○
『정의론』	존 롤스	이학사	2003	46~47쪽, 135~137쪽		○
『어쩌다 한국인』	허태균	중앙books	2015	345~346쪽, 356~357쪽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MiraeN	2014	185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4	152, 178		○

## 6. 문항 해설

제시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정책에 대해 아래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나〉와 〈다〉에 근거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기술하시오. (1,000±100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 네 가지 사고의 흐름과 종합이 요구된다.

### ■ 답안구성요소

① <가>에서 말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대해 ‘사회 신뢰 조사’와 연결하여 사고하기.

<가>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학연, 혈연, 지연 등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합리적 요소를 시정하고, 직무능력이라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시행의 근간에는 <그림1>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2>에서 나타나듯, 그 이유가 가족, 친척, 직장 등 사적관계 및 소속집단에 대한 신뢰도보다, 사법, 행정, 국회 등 공적영역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② <나>와 <다>에 근거하여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의의에 대해 정리하기.

블라인드 채용은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만 지켜진다면 그 과도 마찬가지로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순수 절차적 정의는 ‘무지의 베일’을 가정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출생이나 신체적 특성, 사회적 관계 등 우연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는 한국 사회가 공적 영역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기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즉 한국사회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회이기에 절차적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③ <나>와 <다>에 근거하여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한계에 대해 정리하기.

순수 절차적 정의가 무지의 베일을 ‘이상적’으로 가정할 때 가능해 진다는 사실에서 추론되듯, 블라인드 채용의 시행에는 학력과 학점 등을 기입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다>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다>는 절차적 정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 등은 평가할 수 없으며, 눈에 보이는 객관적 지표만이 강조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획일성을 초래하거나 여러 개성 및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의 주장은 여전히 절차적 정의를 훼손할 수 있음도 지적될 수 있다.



## 7. 채점 기준

### ■채점 기준

위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①, ②, ③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논증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2등급: ①, ②, ③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문장과 정서법(正書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3등급: ①, ②, ③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③의 기술이 다소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는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③이 부족한 경우

5등급: ②는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①이 잘 되지 않았거나, ③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과 ② 모두 부정확하고, ③도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모두 부정확하거나, 설명이 없는 경우

8등급: ①, ②, ③ 중 두 요소 이상이 빠져 있거나 논지에서 벗어난 경우

9등급: ②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답안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혹은 분량이 1,100자를 넘는 경우

## 8. 예시 답안

<가>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학연, 혈연, 지연 등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합리적 요소를 시정하고, 직무능력이라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시행의 근간에는 <그림1>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2>에서 나타나듯, 그 이유가 가족, 친척, 직장 등 사적관계 및 소속집단에 대한 신뢰도보다, 사법, 행정, 국회 등 공적영역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채용은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만 지켜진다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순수 절차적 정의는 ‘무지의 베일’을 가정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출생이나 신체적 특성, 사회적 관계 등 우연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는 한국 사회가 공적 영역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기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즉 한국사회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회이기에 절차적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은 옹호될 것이다.

다만 순수 절차적 정의가 무지의 베일을 ‘이상적’으로 가정할 때 가능해 진다는 사실에서 추론되듯, 블라인드 채용의 시행에는 학력과 학점 등을 기입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다>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다>는 절차적 정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 등은 평가할 수 없으며, 눈에 보이는 객관적 지표만이 강조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획일성을 초래하거나 여러 개성 및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2-6. 문항카드 ⑥ <인문계열 3교시 계열문항>

### 1. 일반정보

관리번호	2018-6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계열) / 3교시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전>, <사회>,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자유의 범주, 문화상대주의
예상 소요 시간	60분	

### 2. 문항 및 제시문

#### <가>

일찍이 위대하던 것들은 이제 부패하였다. 사제(司祭)는 토끼 사냥에 바쁘고 사교(司敎)는 회개와 순례를 팔아 별장을 샀다. 살찐 수도사들을 외면하고 위클리프의 영역 복음서를 몰래 읽는 백성들이 성서의 진리를 성직자의 독점에서 뺏으니 교회의 종소리는 헛되이 울리고 김빠진 찬송가는 먼지 낀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였다. 불신으로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교회를 지킬 유일한 방패는 이단 화형령(火刑令)과 스미스필드의 사형장뿐이었다.

영어 번역 복음서 비밀독회에서 돌아온 재봉직공(裁縫職工) 바비도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희미한 등불은 연신 깜박인다. 가끔 무서운 소름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생각하면 할수록 못된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다. 순회재판소는 교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차례차례로 이단을 숙청하고 있다. 내일은 이 교구가 걸려들 판이다. 성경만이 진리라고 열변을 토하던 경애하는 지도자들도 대개 재판정에서는 영어 번역 복음서를 읽는 것이 잘못이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시인하고 지난 일을 눈물로써 회개하였다. 자기와 나란히 앉아 같은 지도자의 혁신적 성서 강의를 듣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목숨으로써 지키기를 맹세하던 같은 재봉직공이나 가죽직공들도 모두 맹세를 깨뜨리고 회개함으로써 목숨을 구하였다. 온 영국을 휩쓸고 있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구차한 생명들이 풀잎같이 떨고 있다. 권력을 쥔 자들은 권력 유지에 양심과 양식이 마비되어 이 폭풍에 장단을 맞추고, 힘없는 백성들은 생명의 보전이라는 동물의 본능에 따른 것을 돌아볼 여지가 없다.

여저께까지 옳았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아무리 보아도 틀림없이 옳던 것이 하루아침에 정반대인 극약으로 변하는 법이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비위에 맞으면 옳고 비위에 거슬리면 그르단 말이나? 가난한 자, 괴로워하는 자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의일진대, 선천적으로 결정된 운명의 밧줄에 묶여서 라틴말을 배우지 못한 그들이, 쉬운 자기 말로 복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어째서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극약무도한 것이란 말이나?

#### <나>

명주(溟州) 땅에서 좋은 약재가 많이 생산되므로 나라에서 의원을 보내어 해마다 약을 캐는데, 나는 이 소임을 전담하여 자주 그 곳을 가게 되었다. 처음 갔을 적에 약 캐는 인부가 자기네들 가운데서 한두 명을 지목하며, “저놈들은 뱀을 씹어 먹는 놈들이라.”하며, 치를 떨고 밥도 함께 먹지 아니하며 자리도 함께 앉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쳐 주지를 아니하였다. 그 뒤에 한 해를 지나서 가보니, 그것을 비난하는 자가 적어



졌으며, 지난날 이른바 뱀을 씹어 먹는다는 자들과 서로 친밀해져서 기탄이 없었다. 또 한 해를 지나서 가 보니, 마을에 이른바 뱀 씹어 먹는 놈이라는 말도 없고 비난하는 말도 이미 없어졌다.

아, 뱀은 인충(鱗虫)의 유(類)라, 물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다 천하고 악한 것인 줄을 알고 피하며, 가까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면 누구나 다 구토(嘔吐)하고 벌벌 떠니 그것은 왜인가? 사람의 천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명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못된 짓을 하는 자를 배척한 것은 그 천성을 오롯하게 가진 자가 많았던 까닭이요, 중간에 씹어 먹는 자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배척하는 자가 있었던 것은 그 천성을 오롯하게 가져 유속(流俗)에 물들지 않은 자가 여전히 있었던 때문이요, 나중에는 온 고을이 그 그런 점을 알지 못하여 비난하는 말도 일체 없어지고 서로 더러운 습관에 젖게 된 것은, 사람의 본성이 다 물욕에 가려서 다시 그 시비를 따질 역량조차 없어진 까닭이다.

한 고을 백성이 어찌 다 자기 천성을 상실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반드시 처음에 못된 짓을 만들어 내어 그릇되게 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의 말은 “뱀도 역시 충어(虫魚)의 종류라, 살지고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가까이 있어 잡기도 쉬우며, 그 형상을 논하면 장어(長魚)와 무엇이 다르랴?”고 하는 식이다. 이에 시험 삼아 구워서 소금을 친 후 맛을 보니 그 맛도 무방하고, 차츰 마음이 익숙해져 기탄이 없게 되며 세월이 쌓이는 동안 하나의 풍습으로 변하여 뽐뽐스레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이때가 되면 그 네들이 뱀 먹는 것이 추악한 것임을 어찌 알 것인가? 일찍이 나무라고 배척하던 자도 또한 따라서 본뜨며 하는 말이, “저도 사람인지라 입맛은 다 같을 텐데, 유독 이것을 즐기는 것은 웬일일까? 아마도 반드시 지극한 맛이 그 속에 들어 있는 모양이다. 내가 처음에 나무란 짓이 어찌 망령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으며, 저들이 즐기는 것도 또한 소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어찌 알 수 있으랴?”하여, 서로 젓고 물드니 딱한 일이다.

## 〈다〉

현재의 가치와 다르거나 인간적 존엄을 지니지 못한 탓에 어쩔 수 없이 타인들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harm)을 끼친 까닭에 비난을 받는 것은, 단순한 명목상의 차이 이상으로 다르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를 강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에서 불쾌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서 그 사람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면 우리는 싫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 일은 물론이고 그 사람도 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로 그의 삶을 우리 식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벌을 벌써 받고 있다고 또는 받게 되리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이미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데, 그러한 잘못을 이유로 그의 삶을 더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를 처벌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에게 그런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나쁜 일들을 어떻게 피하거나 치유할 수 있을지 가르쳐줌으로써 그가 받는 벌을 경감시켜줄 방도를 열심히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동정이나 싫어함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노나 강제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기에 그를 사회의 공적(公敵)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 흥미나 관심을 보임으로써 선의로 간섭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를 가장 심하게 대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물리적 해악을 가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그에게 응징을 가해야 하고 명백한 징계의 표시로 고통을 주어야 하며 그 처벌이 충분히 무겁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범법자로 법정에 얹히고 우리는 그를 심판하여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2. <가>의 ‘바비도’의 행위와 <나>의 ‘뱀을 씹어 먹는 자’의 행위가 지닌 공통 속성들을 포착하고, <다>의 준칙을 적용하여 이 행위에 대한 <가>의 ‘순회재판소’와 <나>의 ‘나’의 대응 방식을 평가하시오. (1,000±100자)

### 3. 제시문 요약

#### <가> 김성한의 『바비도』

위클리프의 영역 복음서를 읽는 백성들이 늘어나자 성서의 진리가 성직자들의 독점에서 벗어나 백성들끼리의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성서의 기존 해석에 대한 불신이 퍼지게 되자 이들을 이교도라 규정하고 그들을 화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바비도 또한 영어 번역 복음서의 비밀독회에 참여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 자기를 이끌던 혁신적 지도자들도 모두 그 잘못을 인정해 버리고, 자기와 함께 성서를 공부하던 재봉직공이나 가죽직공의 동료들 또한 이 행위를 회개하여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바비도는 이러한 상황이 몹시 괴롭다.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원래 뜻인데, 어째서 자기 나라의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어째서 사형을 받아야 할 일인가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

#### <나> 강희맹, 「담사설」

명주 땅에는 뱀을 씹어 먹는 자들이 있다. 처음에는 일부만 뱀을 먹었고 그들은 그 행위로 비난을 받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난 받는 일도 사라졌다. 뱀이란 것은 벌레의 종류인지라 누구라도 그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면 천하게 생각하고 또 구토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천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주 땅에서 천성을 오롯이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점차 풍속에 물들면서 그 본성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물욕에 가려져서 다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성을 잃게 된 것은 처음의 어떤 이의 나쁜 유혹 때문이다. 뱀도 물고기나 다름 바 없고 특히 생김새로 보자면 장어나 다름 바 없는데 이를 먹어 보니 큰 탈도 없는지라 차차 익숙해져 그렇게 된 것이다. 처음 나무라던 이도 무언가 이 유가 있을 것이라며 맛을 보고는 그 유혹에 빠져드니, 이는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 <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현재의 가치관에 배치되거나 인간적 존엄을 지니지 못하여 비난 받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까닭에 비난을 받는 것은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를 멀리할 수는 있지만 그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는 이미 그 자체로 자신의 삶의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동정이나 싫어함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공공의 적이 되어 어떤 벌을 받아야 할 존재는 아니다. 그를 가장 심하게 다루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가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회는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그에게 명백한 징계를 가해야 한다. 즉, 그를 범법자로 규정하고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 4. 출제 의도

<가>는 사회의 금기를 깨뜨린 한 재봉직공의 일화를 담고 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그 당시 금기시되고 있던 영어로 된 성서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별 뚜렷한 까닭 없이 이 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번민하고 있다. 아무에게도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은 그의 행동을 제한하는 교회의 행동은 정당한 것인가?



<나> 역시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고 있는 행위에 대한 일화를 담고 있다. 뱀을 먹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금기시되는 행위였다. 그러나 차차 고을 사람들이 그 행위에 동조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 관찰자인 ‘나’는 그들을 평하며 싫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또한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다. ‘나’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다>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 일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 그 행위자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라면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이 세 지문의 연관성은 <가>·<나>에서 사회적 금기를 깨뜨린 행위가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다>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가>는 금기를 깨뜨린 후 법적인 제재, 즉 강제적인 처벌을 받고 있고, <나>는 비난과 동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에게 가하고 있는 법적인 처벌과 비난은 <다>의 준칙에서 볼 때 정당한 것인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5.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 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div>과목명: 생활과 윤리</div>		관련
	<div>성취기준 1</div>	<p>(예) 다문화 사회의 윤리</p> <p>지구촌 시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다문화적 시민의식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즉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윤리의 문제,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범위와 한계, 다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등의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과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p> <p>①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윤리의 문제</p> <p>② 다문화에 대한 존중 및 관용과 한계</p> <p>③ 다문화와 문화적 정체성(42쪽)</p>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2	<p>(나) 다양성과 관용</p> <p>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성이나 다문화의 단순히 인종이나 민족 문화의 차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p> <p>①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간과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문화, 종교 갈등, 학교 폭력 등)를 파악한다.</p> <p>②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 인정이 필요한 상황(지역, 인종, 계층 등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p> <p>③ 다문화 사회(지역, 인종과 민족, 성, 계층, 장애 등 고려)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60쪽)</p>	

###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고전		관련
성취기준 3	<p>(4) 고전이 쓰인 시대와 문화 등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고전의 지혜와 통찰을 수용한다.</p> <p>고전에는 그것이 쓰인 시대와 배경이 되는 문화 등의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만인평등, 양성평등, 종교의 자유, 자연과 우주에 대한 견해 등 현대에서는 상식에 가까운 일도 과거에는 다른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읽음으로써 선인들의 지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당대의 통찰이 오늘날에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수용할 수 있게 한다.(146쪽)</p>	

문항	고등학교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2	생활과 윤리	문화와 윤리	고생54.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윤리의 문제,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범위와 한계, 다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등의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조화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사회	공정성과 삶의 질	사회1225.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존중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6.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와 함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이 관점을 적용하여 다양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7.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고전	고전의 탐구	31064-1. 고전이 쓰인 시대와 그 배경이 되는 문화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31064-2. 고전이 쓰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고전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수용할 수 있다. 31064-3. 고전에 담긴 지혜와 통찰이 오늘날에 가지는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5	212-223		○
고등학교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5	62-75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바비도	김성한	책세상	1994	232-242		×
담사설	강희맹(고정욱 역음)	자우	2001	79-82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서병훈 옮김)	책세상	2014	143-173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사상	정창우 외	(주) 미래앤	2015	220-222	개인과자유	○
사회 문화	박선웅 외	(주)금성출판사	2015	105-109	문화상대주의	○
고전	한철우 외	(주)교학사	2015	147	문화상대주의	○

## 6. 문항 해설

문제 : <가>의 ‘바비도’의 행위와 <나>의 ‘뱀을 씹어 먹는 자’의 행위가 지닌 공통 속성들을 포착하고, <다>의 준칙을 적용하여 이 행위에 대한 <가>의 ‘순회재판소’와 <나>의 ‘나’의 대응 방식을 평가하시오.

‘바비도의 행위’란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은 것이다. ‘뱀을 씹어 먹는 자의 행위’란 뱀을 씹어 먹는 것이다. 이 둘의 공통 속성은 첫째, 당시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그어져 있던 선을 넘는 행위들이다. 둘째,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이다. 영어로 된 성서를 읽는 것을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 보기는 어려우며, 뱀을 먹는 것 또한 다소 혐오스럽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남에게 어떤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속성으로 점차 민중들로부터 호응 받은 행위를 들 수도 있다.)

<다>의 준칙이란, 남에게 물리적 해악을 끼치지 않은 경우 그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싫어하거나 동정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으며, 남에게 물리적 해악을 끼친 경우라면 그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순회재판소의 행동은 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에게 물리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에 대해 법적인 잣대를 대어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행위는 이 준칙에 부합한다. 비난과 싫어함의 선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 7.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공통속성을 2개 이상 쓰고, 준칙 2개를 정확히 이해하여 기술하고 있다. + 어법이 정확하다.	9
	공통속성을 2개 이상 쓰고, 준칙 2개를 정확히 이해하여 기술하고 있다. + 어법이 무난하다(오류 3-4개 이내)	8
	공통속성을 2개 이상 쓰고 있으나, 준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하고 있다. 혹은, 공통속성을 1개만 쓰고, 준칙을 정확히 이해하여 기술하고 있다. + 어법이 정확하다	7
	공통속성을 2개 이상 쓰고 있으나, 준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하고 있다. 혹은, 공통속성을 1개만 쓰고, 준칙을 정확히 이해하여 기술하고 있다. + 어법이 무난하다(오류 3-4개 이내)	6
	공통속성을 1개 쓰고, 준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하고 있다. + 어법이 정확하다.	5
	공통속성을 1개 쓰고, 준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하고 있다. + 어법이 무난하다.(오류 3-4개 이내)	4
	공통속성을 1개만 쓰고, 준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어법이 정확하다	3
	공통속성을 1개만 쓰고, 준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어법이 무난하다(오류 3-4개 이내)	2
	어법 오류가 많은 글, 요점이 없는 글	1

## 8. 예시 답안

<가>의 바비도와 <나>의 뱀 씹어 먹는 자의 행위적 공통 속성은 기존의 금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비도는 성서를 영어로 번역해 읽음으로써 기존의 성직자들이 전유하던 라틴어 위주의 복음 상황을 깨뜨리고 있고, 뱀 씹어 먹는 자는 뱀을 거리낌 없이 씹어 먹음으로써 뱀을 먹지 않던 기존의 금기를 깨뜨리고 있다. 또 다른 공통 속성은 이러한 행위들은 그들의 개인적 차원의 선호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물리적 해악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어로 풀이한 성경을 읽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뱀을 씹어 먹는 것 또한 자신의 기호에 관련된 것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의 준칙에서 <가>의 순회재판소의 행위를 평가해 보자면, 그릇된 행위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어로 복음을 번역하여 공부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법정에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은 <다>의 준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에서 법적인 제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오로지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바, 영어로 번역하여 성서를 읽는 것



은 남에게 그러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의 준칙에서 <나>의 ‘나’의 행위를 평가해 보자면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서 사람들이 뱀을 먹는 것은 비록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남에게는 어떤 물리적 해악도 끼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비록 <나>의 ‘나’는 뱀을 먹는 행위가 인간의 오롯한 천성을 잃은, 더러운 습관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딱한 일’ 정도로 비난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다>의 준칙에서 말하는 ‘동정이나 싫어함’의 선을 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2-7. 문항카드 ⑦ <자연계열 공통문항>

### 1. 일반정보

관리번호	2018-7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공통)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과학기술, 생명, 개인, 공동체, 자유주의
예상 소요 시간	60분	

### 2. 문항 및 제시문

#### <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보는 사상이다. 자유주의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가족, 신분, 국가, 계급, 신 등의 억압이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현실 속에서 보통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중시한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무제한 행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 진정한 자유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자유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무제한의 자유가 불러올 혼란을 우려했던 밀(Mill, J. S.)은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앞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내세웠다.

#### <나>

유전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취직이나 결혼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우생학’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단일 유전자 질환에 걸린 배아를 선별해서 착상시키거나 태아를 임신 중절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러한 특징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치 판단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희귀 질환 환자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치 판단이 확장되면 이른바 비질병성 소인, 즉 키나 외모에 대한 부분까지도 부모가 선택적으로 판단해서 원하는 소질을 가진 자녀를 낳고자 할지도 모른다. 물론 아직까지 이러한 소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초보적인 단계이며 기껏해야 확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남보다 우수한 자녀를 원하는 오늘날의 추세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해도 이를 시도하려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하얀 피부, 큰 키, 높은 지능 등은 선호되는 유전적 소인이기는 하나 이미 여기에는 특정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질병성 소인을 조작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지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장차 현재 인류의 능력을 넘어서는 ‘슈퍼 인류’의 출현을 예견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체력, 신장, 지능, 수명 면에서 현재의 인류보다 우월한 인류가 출현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만약 모든 인간이 이 기술의 혜택을 받아 더 우월한 인류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 정의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 모든 인간이 기술의 혜택으로 더 우월한 인류가 된다면 그 인류는 현생 인류와 더 이상 같은 종족이 아닐 수도 있다.

### 〈다〉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구성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삶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관점’에 크게 기대고 있다.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런 자연적 재능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좋은 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전적 제비뽑기의 결과다. 우리가 가진 유전적 재능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성취물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 재능으로 시장경제에서 거둬들인 수확물을 전부 소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착각이요, 자만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상대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덜 갖고 태어난 사람들과 그 수확물을 공유할 의무가 있다.

이 지점에서 선물로 주어진 삶과 연대성 사이의 연결고리가 생긴다. 선물로 주어진 재능의 우연성을 명확히 인식하면, 즉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 능력주의 사회가 거만한 가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성공은 능력과 미덕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는 왕관이며, 부자들이 부자인 것은 가난한 이들보다 그런 부를 누릴 자격이 더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 말이다.

만일 우리가 유전공학으로 인해 유전적 제비뽑기의 결과를 무시하고 운 대신 선택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인간의 능력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개념은 점차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을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는 존재로 여기는 관점도 사라질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순전히 스스로 그럴 만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성공의 원인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더욱 강하게 취할 것이다. 사회 밑바닥의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신에, 단순히 부적격한 존재로 여겨짐으로써 우생학적 교정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타고난 재능의 우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능력주의가 더욱 심해져 관대함도 줄어들 것이다.

유전학적 지식이 발달하여 완벽한 유전적 통제가 가능해지면 자신의 재능과 운이 갖는 우연성을 진지하게 숙고할 때 가능한 연대성도 사라질 것이다. 예컨대, 예비 부모가 자녀의 유전자를 선별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면, 그것을 피하는 부모들의 행태는 ‘계기판만 보고 하는 맹목 비행’처럼 여겨지고, 그 부모에게 아이가 갖고 태어난 유전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녀의 운명에 대한 책임성이 증폭되면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과의 연대감이 줄어들 수 있다. 자신의 운명에 본질적으로 우연성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수록 자신의 운명을 타인들과 공유할 이유는 많아진다.

1. 〈보기〉의 유전자 조작 서비스를 〈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 서비스의 상용화를 허용할지 여부를 〈나〉와 〈다〉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하시오. (1,000±100자)

#### 〈보기〉

한 회사는 미래 자녀의 유전 질환 노출 위험도를 측정하여 정상 배아를 골라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녀에게 최고의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자녀의 기억력, 기질, 인내력, 공감능력, 유머감각, 낙관적 태도 등의 여러 특성들을 조작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 3.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3, 198-199쪽 (일부 수정)

<가>는 자유주의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상이며,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다만, 무제한의 자유가 불러올 혼란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자유가 허용된다.

제시문 <나> 권복규/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이화출판, 3판, 2014, 235쪽, 240쪽 (일부 수정)

<나>는 어떤 특정 유전질환에 걸린 배아를 선별하여 출산한다면, 희귀질환 환자나 장애인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질병적 소인까지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슈퍼인류’가 출현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제시문 <다> 마이클 샌델, 『완벽에 대한 반론』, 이수경 역, 와이즈베리, 2016, 117-119쪽, 115쪽 (일부 수정)

<다>는 자연적인 재능은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우연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택적으로 능력을 조작할 수 있게 되면, 능력주의가 노골화되고, 무능력자는 더욱 무시되는 등 차별이 더욱 노골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대성은 운에 의해 인간의 능력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상황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인간의 능력을 조작하게 되면, 운이 좋은 운이 좋은 사람과 불운한 사람과의 연대감이 사라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 4. 출제 의도

문제1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류가 처하게 된 윤리적 문제를 서로 다른 입장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자율’, ‘과학기술과 인류의 미래’, ‘과학기술과 윤리’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출제 의도이다.

###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p>(1) 사회를 바라보는 창 (가) 개인 이해 인간은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존재이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이해하여, 시민 사회에서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며, 더 나아가 타인과 사회 공동체 및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한다.</p> <p>②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관계 및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56쪽)</p>	제시문 <가> , <다>
성취 기준 2	<p>(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58쪽)</p> <p>②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59쪽)</p>	제시문 <가> , <다>

##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1	<p>(4) 사회 사상 (ㄴ) 개인과 자율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권리와 의무 및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관용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한다.</p> <p>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국가 중립성 논의 포함)(55쪽)</p>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p>(4) 사회 사상 (ㄴ) 공동체와 연대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p> <p>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56쪽)</p>	제시문 <다>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3	<p>(3)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ㄱ) 과학 기술과 윤리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성과와 과학 기술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본질과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인식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윤리적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요구되는 과학 기술의 윤리적 책임에 대하여 탐구한다.</p> <p>②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윤리적 문제(38쪽)</p>	제시문 <나>, <보> <기>, 문제1



문항	고등학교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	사회를 바라보는 창	사회1212.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	공정성과 삶의 질	사회1222.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윤리와 사상	공동체와 연대	고윤42.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선과 개인 선의 조화 방안에 해 토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윤리와 사상	국가와 윤리	고윤43. 국가와 개인의 유기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이 균형 있게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여 이것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생활과 윤리	과학 기술과 윤리	고생31.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윤리 문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과학 기술과 관련된 윤리 문제와 책임을 이해하고, 과학 기술에 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윤리 시각을 확립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4	198-199	제시문 <가>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명윤리와 법	권복규/김현철	이화출판	2014	235, 240	제시문 <나>	○
완벽에 대한 반론, 와이즈베리, 2016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2016	117-119, 115	제시문 <다>	○
“유전자 만능주의? 게놈 산업의 그림자 ‘우생학’”,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7		<보기>	○
완벽에 대한 반론, 와이즈베리, 2016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2016	70	<보기>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김선옥 외	금성출판사	2014	211-217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4	12-14, 44-52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4	148-153	제시문 <나>, 문제2, <보기>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4	96-103	제시문 <나>, 문제2, <보기>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4	115-121	문제1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220-235	제시문 <다>	○

## 6. 문항 해설

이 문항은 <보기>의 한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유주의 입장을 소개한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설명한 뒤, 그 기술의 상용화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유전자 조작에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제시문 <나>, <다>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문항이다.

<보기>에는 유전질환 노출 위험도를 사전에 검사하여 정상배아를 선별하여 출산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한 회사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 기억력 등의 특성을 조작하는 유전자 조작기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인간을 향상시키는 는 ‘유전적 강화’(enhancement)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악의 원칙). 국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자유 제한의 요건으로서의 해악의 원칙을 활용하여 <보기>를 충실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전자 조작 기술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의 유전자 조작 서비스는 비질병성 소인을 조작하여 우월과 열등 또는 정상과 비정상의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를 제시문 <나>에 따라 검토해보면,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한 차별과 불평등 등 정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설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인류가 더 우월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시문 <다>는 유전적 재능은 운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하게 그 재능을 받아들이고 타인과 그 재능을 공유해야 한다는 연대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만약 유전자 조작으로



유전적 재능이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연대성이 깨지고 사회 밑바닥의 사람들은 우생학적 교정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고, 능력주의는 더욱 노골화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재능이 운에 따라 분배됨에 따라 형성되는 연대성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

## 7. 채점 기준

### □ 답안 구성요소

답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1)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보기>를 검토

<보기>는

① 국민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①과 ②의 논지를 바탕으로 <보기>의 유전자 조작 서비스를 검토해야 한다.

#### 2) <보기>의 서비스의 상용화 허용 여부를 <나>의 관점에서 검토

아래의 두 가지 논지를 바탕으로 <보기>의 유전자 조작 서비스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보기>의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한,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가치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며, 결국 그들을 ‘비정상’ 또는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차별하게 되는 등 사회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④ 기억력, 기질 등 비질병성 소인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우월한 소인을 가진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의미있는 일인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 3) <보기>의 서비스의 상용화 허용 여부를 <다>의 관점에서 검토

<다>의 핵심 전제는 인간의 능력은 제비뽑기를 하는 것처럼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연대성이 생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좋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겸허하게 자신의 운에 의해 획득된 재능을 타인과 공유하려고 하고, 좋은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을 사회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연대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능이 운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보기>의 유전자 조작 서비스를 검토해야 하며, 특히 <다>의 핵심 논지인 ⑥의 관점을 충분히 서술해야 한다.

⑤ 이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고 태어나게 될 자녀를 비정상적이거나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게 되어 그들이 더욱 무시되고 차별도 노골화 될 것이다.

⑥ 능력주의가 노골화되고, 좋은 재능을 타고 나지 못한 사회 밑바닥의 사람들은 보상(사회복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자 또는 우생학적 교정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즉 운에 따라 재능이 분배될 때 형성될 수 있었던 사회적 ‘연대성’이 파괴될 것이다.

### □ 채점기준

위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1), 2), 3)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했으며, 체계적인 논증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 2등급: 1), 2), 3)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했지만, 문장과 정서법(正書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 3등급: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충분히 재서술(paraphrasing)하지 않고 제시문의 논지를 단순반복하거나 문장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많은 경우.
- 4등급: 1), 2), 3) 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으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어느 하나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서술하지 않은 경우
- 5등급: 1), 2), 3) 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으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어느 하나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서술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문장과 정서법 등이 부족한 경우
- 6등급: 1), 2), 3) 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으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두 개 항목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서술하지 않은 경우
- 7등급: 전체적으로 문제의 취지를 파악했으나, 2), 3) 중 어느 하나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서술하지 않은 경우
- 8등급: 1)만 제대로 서술했을 뿐, 2)와 3)에 대한 서술이 논지를 벗어났거나 서술 자체를 누락한 경우
- 9등급: 1), 2), 3) 모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답안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혹은 분량이 1,100자를 넘는 경우.

## 8.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권리에 대해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된다. 다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만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보기>의 유전자 조작 서비스는 자신의 자녀를 향상시키는 기술일 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고 국가나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기술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나>는 기억력, 기질 등 비질병성 소인을 조작하는 것은 일종의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다. 즉 좋은 소인이 정상이고, 좋지 못한 소인은 비정상이고 열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지 못한 소인을 타고 태어났으나 유전자 조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어 더욱 차별받게 될 것이다. 설사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자 조작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류가 지금보다 더 우월한 인류, 이른바 ‘슈퍼인류’가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인류가 전체적으로 기억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유머감각도 뛰어나게 ‘조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는 인간의 능력은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좋은 재능을 타고난 자는 겸허하게 자신의 운에 의한 혜택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었고, 좋지 못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사회복지 등의 혜택으로 그 불운을 상쇄할 수 있었음에 주목한다. 그런데 만약 <보기>의 유전자 조작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기억력, 유머감각 등의 재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성공한 자는 더욱 오만해지고 실패한 자는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성공한 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일궈낸 성공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성공의 과실을 타인과 공유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실패한 자는 더욱 무시당하고 차별을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능력주의가 노골화되고, 운이 좋은 자와 불운한 자와 서로 연대하여 유지되었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전자 서비스 상용화를 허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2-8. 문항카드 ⑧ <자연계열 계열문항>

1. 일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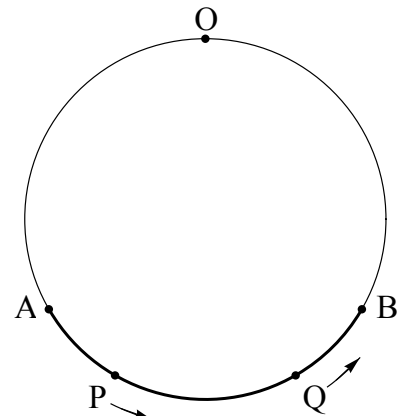
관리번호	2018-8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 번호	자연계열(계열) / 2교시 : 2-1, 2-2, 2-3(a), 2-3(b)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기하와 벡터
	핵심 개념 및 용어	‘시각, 속력, 거리’, 부등식, 부등식의 영역, 함수의 극한, 도함수, 로그함수
예상 소요 시간	50분/전체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둘레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그림 1>과 같이 세 점 O, A, B를 원의 둘레의 길이가 3등분이 되도록 정한다. 두 점 P, Q가 점 O를 출발하여 원의 둘레를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움직인다고 하자. 이 때 두 점 P, Q가 모두 호 AB 위에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 (단, 여기서 호 AB는 점 O를 포함하지 않는 호를 의미한다.)

점 P의 속력을 1, 점 Q의 속력을  $v$ 라 하자. (단,  $v \geq 1$ ) 이 때 두 점이 호 AB 위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여러 경우로 나누어 증명할 수 있다.



<그림 1>

(i)  $1 \leq v \leq 2$ 인 경우: 점 P가 점 A에 처음 도착할 때의 시각이  $\frac{1}{3}$ 이

므로 이 때 점 Q는 점 O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frac{v}{3}$ 인 점이다. 그런데,

$\frac{1}{3} \leq \frac{v}{3} \leq \frac{2}{3}$ 이므로 점 Q가 호 AB 위에 있게 된다.

(ii)  $2 \leq v \leq \frac{5}{2}$ 인 경우: 점 P가 점 B에 처음 도착할 때의 시각이  $\frac{2}{3}$ 이므로 이 때 점 Q는 점 O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frac{2v}{3}$ 인 점이다. 그런데  $\frac{4}{3} \leq \frac{2v}{3} \leq \frac{5}{3}$ 이므로 점 Q는 원의 둘레를 한 바퀴 회전한 후 점 O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frac{1}{3}$  이상  $\frac{2}{3}$  이하가 되어 호 AB 위에 있게 된다.

(iii)  $v > \frac{5}{2}$ 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두 점 P, Q가 호 AB 위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위의 사실을 좌표 평면에서 설명하여 보자. 점 P의 속력이 1이므로 시각  $t$ 일 때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t$ 가 된다. 이 때 점 Q가 움직인 거리는 점 Q의 속력이  $v$ 이므로  $vt$ 가 된다. 따라서 시각이  $t$ 일 때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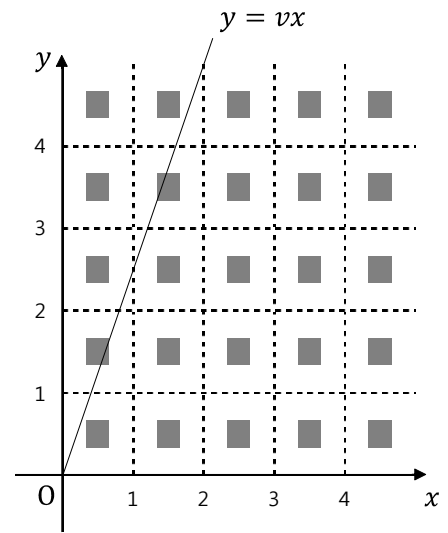


P와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순서쌍  $(t, vt)$ 로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직선  $y = vx$  위의 한 점이 된다.

한편 음이 아닌 정수  $m, n$ 에 대하여 연립부등식

$$\begin{cases} m + \frac{1}{3} \leq x \leq m + \frac{2}{3} \\ n + \frac{1}{3} \leq y \leq n + \frac{2}{3} \end{cases}$$

의 영역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점 P와 점 Q가 움직인 거리의 순서쌍이 이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점 P가 <그림 1>의 원의 둘레를  $m$ 바퀴 회전한 후에 호 AB 위에 있고 점 Q는 <그림 1>의 원의 둘레를  $n$ 바퀴 회전한 후에 호 AB 위에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 점 P, Q가 호 AB 위에 동시에 있을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직선  $y = vx$ 가 <그림 2>에서 색칠한 부분의 영역과 만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나>

$x > 0$ 인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f(xy) \leq f(x) + f(y) \quad \dots\dots ①$$

$$f(x) \leq x - 1 \quad \dots\dots ②$$

을 만족시키는 함수  $f(x)$ 를 구해보자. 먼저 ①에 의하여  $f(1) \leq 2f(1)$ 이므로  $f(1) \geq 0$ 이고, ②에 의하여  $f(1) \leq 0$ 이므로  $f(1) = 0$ 이다. 이제  $x > 0$ 이라고 하자. 그러면  $x + h > 0$ 인 실수  $h$ 에 대하여 부등식 ①과 ②에 의해

$$f(x+h) \leq f(x) + f\left(\frac{x+h}{x}\right) \leq f(x) + \frac{x+h}{x} - 1 = f(x) + \frac{h}{x} \quad \dots\dots ③$$

가 성립한다. 또한

$$f(x) = f\left((x+h) \cdot \frac{x}{x+h}\right) \leq f(x+h) + f\left(\frac{x}{x+h}\right) \leq f(x+h) - \frac{h}{x+h} \quad \dots\dots ④$$

이다. 따라서 ③과 ④에 의하여  $h > 0$ 이면

$$\frac{1}{x+h} \leq \frac{f(x+h) - f(x)}{h} \leq \frac{1}{x} \quad \dots\dots ⑤$$

이고,  $h < 0$ 이면

$$\frac{1}{x+h} \geq \frac{f(x+h) - f(x)}{h} \geq \frac{1}{x} \quad \dots\dots ⑥$$

이다. 부등식 ⑤, ⑥과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

$$\lim_{h \rightarrow 0+} \frac{f(x+h) - f(x)}{h} = \frac{1}{x}, \quad \lim_{h \rightarrow 0-} \frac{f(x+h) - f(x)}{h} = \frac{1}{x}$$

이다. 즉,

$$f'(x) = \lim_{h \rightarrow 0} \frac{f(x+h) - f(x)}{h} = \frac{1}{x}$$

이다. 그러므로  $f(x) = \int \frac{1}{x} dx = \ln x + C$ 이고,  $f(1) = 0$ 이므로  $C = 0$ 이다. 따라서  $f(x) = \ln x$ 이다. 한편  $f(x) = \ln x$ 는 부등식 ①과 ②를 만족시킨다.



2-1. <가>에서 점 Q의 속력  $v$ 가  $7 \leq v \leq 8$ 일 때, 두 점 P, Q가 호 AB 위에 동시에 있을 수 있음을 보이시오. 또한 점 Q의 속력  $v$ 가 9일 때, 두 점 P, Q가 호 AB 위에 동시에 있게 되는 최초의 시각을 구하시오.

2-2. <가>에서 점 Q가 원의 둘레를 두 바퀴 회전하기 전에 두 점 P, Q가 호 AB 위에 동시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속력  $v$ 의 범위를 <그림 2>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단,  $v \geq 1$ )

2-3.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  중에서

$$f(x+y) \geq f(x) + f(y) + 4xy$$

$$f(x) \geq 0$$

을 만족시키는 함수  $f(x)$ 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2-3(a).  $f(0)$ 을 구하시오.

2-3(b).  $f(x)$ 를 <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 3. 제시문 요약

<가>

원 위에 두 점이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이 두 점이 주어진 호 위에 있을 수 있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첫 번째로 속력의 범위에 따라 여러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증명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 좌표평면을 이용하여 부등식의 영역과 직선이 만나는 문제로 바꾸어 설명한다.

<나>

$x > 0$ 인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f(xy) \leq f(x) + f(y) \quad \dots\dots ①$$

$$f(x) \leq x - 1 \quad \dots\dots ②$$

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한다. 이를 위하여 도함수의 정의와 부등식을 이용하여  $f'(x) = \frac{1}{x}$ 임을 증명한다. 이제 적분을 이용하면  $f(x) = \ln x$ 이다. 한편  $f(x) = \ln x$ 는 부등식 ①과 ②를 만족한다.

### 4. 출제 의도

학생들의 이해 능력, 분석 능력, 그리고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의 두개 영역에서 지문을 선정하여 그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하였다. <가>는 두 점이 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움직일 때 두 점이 모두 어떤 영역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두 가지 사고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한 과정은 한 점의 속력을 1, 다른 한 점의 속력을  $v$ 라 했을 때,  $v$ 의 범위를 나누어 설명하였고, 다른 과정은 시각이  $t$ 일 때 두 점이 움직인 거리를 순서쌍  $(t, vt)$ 로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직선  $y = vx$  위의 한 점이 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직선  $y = vx$ 가 그 영역과 만나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나>는  $x > 0$ 인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어떤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문제 2-1>에서는 <가>에서 첫 번째 과정에서의 제시문, 즉  $v$ 의 범위를 나누어 설명하는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였다. <문제 2-2>에서는 좌표평면에서 설명하였던 <가>에서의 두 번째 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였다. <문제 2-3>에서는 <나>에서 논의 된 과정을 적용하여 제시문과 다른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 5.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교육과정	<p><b>1. 제시문 &lt;가&gt;</b>            [수학I] 방정식과 부등식 - 부등식의 성질            도형의 방정식 -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부등식의 영역            [기하와 벡터] 평면운동 - 속도와 가속도</p> <p><b>2. 제시문 &lt;나&gt;</b>            [미적분I]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극한,            다항함수의 미분법 - 미분계수와 도함수            다항함수의 적분법 - 부정적분            [수학II] 도형의 방정식-직선의 방정식            [수학III] 함수 - 함수의 뜻과 그래프            [미적분I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법            적분법 - 여러 가지 적분법</p> <p><b>3. 문제 2-1</b>            [기하와 벡터] 평면운동 - 속도와 가속도</p> <p><b>4. 문제 2-2</b>            [수학I] 방정식과 부등식 - 부등식의 성질            도형의 방정식 -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부등식의 영역            [기하와 벡터] 평면운동 - 속도와 가속도</p> <p><b>5. 문제 2-3(a)</b>            [수학I] 방정식과 부등식 - 부등식의 성질            [수학III] 함수 - 함수의 뜻과 그래프</p> <p><b>6. 문제 2-3(b)</b>            [미적분I]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극한            다항함수의 미분법 - 미분계수와 도함수            다항함수의 적분법 - 부정적분            [수학III] 함수 - 함수의 뜻과 그래프            [미적분II] 적분법 - 여러 가지 적분법</p>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성취수준

**제시문 <가>**

- ① '시각, 속력, 거리'를 이해한다.
- ② '부등식의 대소 관계'를 이해한다.
- ③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이해한다.
- ④ '연립 부등식의 영역'을 이해한다.
- ⑤ 상이한 두 제시문의 관계를 이해한다.

**제시문 <나>**

- ① '함수의 뜻', '함수의 극한',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 '도함수'를 이해한다.
- ② '자연로그', '로그함수의 미분'을 이해한다.
- ③ '부정적분의 뜻', '부정적분의 계산', '함수  $1/x$ 의 부정적분'을 이해한다.

**문제 2-1**

- ① '시각, 속력, 거리'를 이해한다.

**문제 2-2**

- ① '시각, 속력, 거리'를 이해한다.
- ② '부등식의 대소 관계'를 이해한다.
- ③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이해한다.
- ④ '연립 부등식의 영역'을 이해한다.
- ⑤ 상이한 두 제시문의 관계를 이해한다.

**문제 2-3(a)**

- ① '함수의 뜻',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문제 2-3(b)**

- ① '함수의 뜻', '함수의 극한',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 '도함수'를 이해한다.
- ② '부정적분의 뜻', '부정적분의 계산'을 이해한다.

문항	고등학교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2-1	기하와 벡터	평면 운동	기백1231. 미분법을 이용하여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백1232. 정적분을 이용하여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2	수학 I	직선의 방정식 부등식의 영역	수학1321.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1352.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하여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하와 벡터	평면 운동	기백1231. 미분법을 이용하여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백1232. 정적분을 이용하여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3(a)	수학 I	여러 가지 부등식	수학1241.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수학 II	함수	수학2211.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2-3(b)	미적분 I	함수의 극한 미분계수 부정적분	미적1211.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미적1311/1312. 미분계수의 뜻과 기하학적 의미를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미적1411/1412. 부정적분의 뜻을 알고,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수학 II	함수	수학2211.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미적분 II	여러 가지 적분법	미적2413-3. 지수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수학」(교육과학기술부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2322-01)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I	정상권외 7인	금성출판사	2016	108,132,147, 192
	수학II	조도연외 12인	천재교육	2016	70
	미적분I	정상권외 7인	금성출판사	2016	52,92,156
	미적분II	이준열외 9인	천재교육	2016	32,37,170
	기하와 벡터	이준열외 9인	천재교육	2016	120
기타	View-obstruction problems	T. W. Cusick	Aequationes Math	1973	165-170
	On the functional inequality $f(x+y) \geq f(x)f(y)$	J. E. Wetzel	The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1967	1065-1068

## 6. 문항 해설

부등식, 함수, 미분, 적분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항들은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기하와 벡터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시각, 속력, 거리’, 연립 부등식의 영역, 이 둘 사이의 관계, 함수의 극한, 미분에 대한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7.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① 점 P가 점 A에 처음 도착할 때의 시각이 $\frac{1}{3}$ 이고 이 때 점 Q가 점 O부터 움직인 거리가 $\frac{v}{3}$ 인 점이라는 사실을 안다.	2
	② $\frac{7}{3} \leq \frac{v}{3} \leq \frac{8}{3}$ 이므로 점 Q가 원의 둘레를 두 바퀴 회전한 후 점 O부터 움직인 거리가 $\frac{1}{3}$ 이상 $\frac{2}{3}$ 이하가 되어 호 AB 위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인다.	2
	③ 점 Q의 속력 $v$ 가 9일 때, 점 P가 점 A에 처음 도착할 때의 시각이 $\frac{1}{3}$ 이므로 이 때 점 Q는 점 O부터 움직인 거리는 $9 \times \frac{1}{3} = 3$ 임을 보인다.	2



	④ 점 Q가 세 바퀴를 회전한 후에 점 A에 처음 도착하는 시각은 $9t = 3 + \frac{1}{3}$ 을 만족하는 $t = \frac{10}{27}$ 를 구한다.	3
	⑤ 한편 $\frac{1}{3} < \frac{10}{27} < \frac{2}{3}$ 이므로 $t = \frac{10}{27}$ 일 때 점 P도 호 AB 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1
2-2	① 점 Q가 원의 둘레를 두 바퀴 회전하기 전에 두 점 P, Q가 호 AB 위에 동시에 있기 위해서는 직선 $y = vx$ 는 연립부등식 $\begin{cases} \frac{1}{3} \leq x \leq \frac{2}{3} \\ \frac{1}{3} \leq y \leq \frac{2}{3} \end{cases} \text{ 또는 } \begin{cases} \frac{1}{3} \leq x \leq \frac{2}{3} \\ 1 + \frac{1}{3} \leq y \leq 1 + \frac{2}{3} \end{cases}$ 의 영역과 반드시 만나야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2
	②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R$ , 두 번째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S$ 라 했을 때, 직선 $y = vx$ 가 $R$ 과 만나기 위한 $v$ 의 최댓값은 직선이 점 $\left(\frac{1}{3}, \frac{2}{3}\right)$ 를 지날 때이기 때문에 $1 \leq v \leq 2$ 일 때 직선 $y = vx$ 가 $R$ 과 만난다는 사실을 보인다.	3
	③ 직선 $y = vx$ 가 $S$ 와 만나기 위한 $v$ 의 최댓값은 직선이 점 $\left(\frac{1}{3}, \frac{5}{3}\right)$ 를 지날 때이고 최솟값은 직선이 점 $\left(\frac{2}{3}, \frac{4}{3}\right)$ 를 지날 때이기 때문에 $2 \leq v \leq 5$ 일 때, 직선 $y = vx$ 가 $S$ 와 만난다는 사실을 보인다.	3
	④ ①, ②, ③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속력 $v$ 의 범위가 $1 \leq v \leq 5$ 임을 안다.	2
2-3(a)	① 첫 번째 부등식에 의하여 $f(0) \geq 2f(0)$ 이므로 $f(0) \leq 0$ 임을 보인다.	2
	② 두 번째 부등식에 의하여 $f(0) \geq 0$ 이므로 $f(0) = 0$ 임을 구한다.	1
2-3(b)	①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 가 $f(x+y) \geq f(x) + f(y) + 4xy \quad \dots\dots \textcircled{1}$ $f(x) \geq 0 \quad \dots\dots \textcircled{2}$ 을 만족할 때, 실수 $h$ 에 대하여 부등식 ①과 ②에 의해 $f(x+h) - f(x) \geq f(x) + f(h) + 4xh - f(x) = f(h) + 4xh \geq 4xh \quad \dots \textcircled{3}$ 가 성립함을 보인다.	4
	② $f(x) = f(x+h-h) \geq f(x+h) + f(-h) - 4h(x+h) \quad \dots\dots \textcircled{4}$ $\geq f(x+h) - 4h(x+h)$ 가 성립함을 보인다.	4
	③ ③과 ④에 의하여 $h > 0$ 이면 $4x \leq \frac{f(x+h) - f(x)}{h} \leq 4(x+h) \quad \dots\dots \textcircled{5}$ 이고, $h < 0$ 이면 $4x \geq \frac{f(x+h) - f(x)}{h} \geq 4(x+h) \quad \dots\dots \textcircled{6}$	3



	임을 보인다.	
	<p>④ 부등식 ⑤, ⑥과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p> $\lim_{h \rightarrow 0^+} \frac{f(x+h)-f(x)}{h} = 4x, \quad \lim_{h \rightarrow 0^-} \frac{f(x+h)-f(x)}{h} = 4x$ <p>이기 때문에</p> $f'(x) = \lim_{h \rightarrow 0} \frac{f(x+h)-f(x)}{h} = 4x$ <p>임을 파악한다.</p>	3
	<p>⑤ <math>f(x) = \int 4xdx = 2x^2 + C</math>이고, <math>f(0) = 0</math>이므로 <math>C = 0</math>임을 파악한다. 따라서 <math>f(x) = 2x^2</math>임을 보이고, 한편 <math>f(x) = 2x^2</math>는 부등식 ①과 ②를 만족함을 확인한다.</p>	3

## 8. 예시 답안

### ■ 2-1

점 P가 점 A에 처음 도착할 때의 시각이  $\frac{1}{3}$ 이므로 이 때 점 Q는 점 O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frac{v}{3}$ 인 점이다. 그런데  $\frac{7}{3} \leq \frac{v}{3} \leq \frac{8}{3}$ 이므로 점 Q는 원의 둘레를 두 바퀴 회전한 후 점 O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frac{1}{3}$  이상  $\frac{2}{3}$  이하가 되어 호 AB 위에 있게 된다.

이제 점 Q의 속력  $v$ 를 9라 하자. 점 P가 점 A에 처음 도착할 때의 시각이  $\frac{1}{3}$ 이므로 이 때 점 Q가 점 O로부터 움직인 거리는  $9 \times \frac{1}{3} = 3$ 이다. 따라서 점 Q가 세 바퀴를 회전한 후에 점 A에 처음 도착하는 시각을 구하면 된다. 방정식  $9t = 3 + \frac{1}{3}$ 을 만족시키는  $t$ 를 구하면  $t = \frac{10}{27}$ 이다. 한편  $\frac{1}{3} < \frac{10}{27} < \frac{2}{3}$ 이므로  $t = \frac{10}{27}$ 일 때 점 P도 호 AB 위에 있다. 따라서 답은  $\frac{10}{27}$ 이다.

### ■ 2-2

점 Q가 원의 둘레를 두 바퀴 회전하기 전에 두 점 P, Q가 호 AB 위에 동시에 있기 위해서는 직선  $y = vx$ 가 연립부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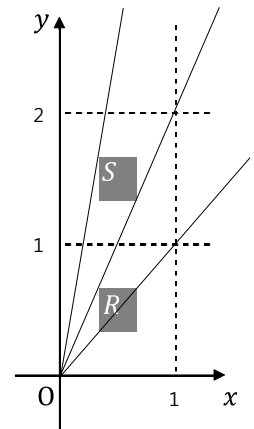
$$\begin{cases} \frac{1}{3} \leq x \leq \frac{2}{3} \\ \frac{1}{3} \leq y \leq \frac{2}{3} \end{cases} \quad \text{또는} \quad \begin{cases} \frac{1}{3} \leq x \leq \frac{2}{3} \\ 1 + \frac{1}{3} \leq y \leq 1 + \frac{2}{3} \end{cases}$$

의 영역과 만나야한다. (<그림3> 참조)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R$ , 두 번째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S$ 라 하자. <그림 3>에서 직선  $y = vx$ 가  $R$ 과 만나기 위한  $v$ 의 최댓값은 직선이 점  $\left(\frac{1}{3}, \frac{2}{3}\right)$ 를 지날 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 \leq v \leq 2$ 일 때 직선



$y = vx$ 가  $R$ 과 만난다. 또한 직선  $y = vx$ 가  $S$ 와 만나기 위한  $v$ 의 최댓값은 직선이 점  $\left(\frac{1}{3}, \frac{5}{3}\right)$ 를 지날 때이고, 최솟값은 직선이 점  $\left(\frac{2}{3}, \frac{4}{3}\right)$ 를 지날 때이다. 따라서  $2 \leq v \leq 5$ 일 때, 직선  $y = vx$ 가  $S$ 와 만난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속력  $v$ 의 범위는  $1 \leq v \leq 5$  이다.



### ■ 2-3(a)

첫 번째 부등식에 의하여  $f(0) \geq 2f(0)$ 이므로  $f(0) \leq 0$ 이고, 두 번째 부등식에 의하여  $f(0) \geq 0$ 이므로  $f(0) = 0$ 이다.

### ■ 2-3(b)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  중에서

$$f(x+y) \geq f(x) + f(y) + 4xy \quad \dots\dots ①$$

$$f(x) \geq 0 \quad \dots\dots ②$$

을 만족시키는 함수  $f(x)$ 를 구해보자. 실수  $h$ 에 대하여 부등식 ①과 ②에 의해

$$f(x+h) - f(x) \geq f(x) + f(h) + 4xh - f(x) = f(h) + 4xh \geq 4xh \quad \dots\dots ③$$

가 성립한다. 또한

$$f(x) = f(x+h-h) \geq f(x+h) + f(-h) - 4h(x+h) \geq f(x+h) - 4h(x+h) \quad \dots\dots ④$$

이다. 따라서 ③과 ④에 의하여  $h > 0$ 이면

$$4x \leq \frac{f(x+h) - f(x)}{h} \leq 4(x+h) \quad \dots\dots ⑤$$

이고,  $h < 0$ 이면

$$4x \geq \frac{f(x+h) - f(x)}{h} \geq 4(x+h) \quad \dots\dots ⑥$$

이다. 부등식 ⑤, ⑥과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

$$\lim_{h \rightarrow 0+} \frac{f(x+h) - f(x)}{h} = 4x, \quad \lim_{h \rightarrow 0-} \frac{f(x+h) - f(x)}{h} = 4x$$

이다. 즉,

$$f'(x) = \lim_{h \rightarrow 0} \frac{f(x+h) - f(x)}{h} = 4x$$

이다. 그러므로  $f(x) = \int 4x \, dx = 2x^2 + C$ 이고,  $f(0) = 0$ 이므로  $C = 0$ 이다. 따라서  $f(x) = 2x^2$ 이다. 한편  $f(x) = 2x^2$ 는 부등식 ①과 ②를 만족시킨다.



### 3. 기타 고사(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고사) 출제 문항

※ 기타고사의 문항별 분석 결과(국어, 수학, 영어)는 ‘IV-2-다’ 참조

### 3-1. 국어(관리번호 : 2018-9)

### 3-1-1. 문제지

1. 다음 중 구개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3점)

- ① L ② 匚 ③ 己 ④ ㄨ

2. 다음 옛 글자 중 가장 현대까지 사용되었던 것은? (2점)

- ① 、 ②  $\overline{\sigma}$  ③  $\Delta$  ④  $\bigcirc$

3. 다음 중 발음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2점)

- ① 꽃을[꼬츨]                      ② 꽃이름[꼬디름]  
③ 꽃말[꼰말]                     ④ 꽃이[꼬치]

4. 다음 단어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은? (2점)

- ① 쥬스(juice)                      ② 센터(center)  
③ 커피숍(coffee shop)          ④ 리더십(leadership)

5. 다음 중 음운 탈락이 없는 것은? (2점)

- ① 가서 ② 와서 ③ 부삽 ④ 시월

6. 음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점)

- ① 소리의 길이는 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 ② 우리나라 음운에서 자음은 총 19개가 있다.
- ③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다.
- ④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7. 다음 단어 중 조어법이 다른 것은? (2점)

- ① 덮개 ② 덧버선 ③ 선생님 ④ 돌다리

8. 밑줄 그은 부분의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3점)

- ① 나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 ② 홍길동은 실존 인물일까?
- ③ 밥을 먹는데 전화가 올랐다.
- ④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9. 밑줄 그은 어휘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2점)

- ① 물건을 갓수대로 정리해 모아 두었다.



- ② 감정이 격해지면 술잔 기울이는 횟수도 잦아진다.
- ③ 우리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
- ④ 최근의 가게부를 기초로 하여 항목별 백분율을 잡아 예산을 세웠다.

10. ‘쇠귀에 경 읽기’란 속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점)

- ① 아무리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쓰는 말이다.
- ② ‘쇠’는 ‘金’의 의미이다.
- ③ ‘귀’는 ‘耳’의 의미이다.
- ④ ‘경’은 책의 일종이다.

11. 다음 중 품사의 범주가 다른 하나는? (2점)

- ① 그녀 ② 나무 ③ 빨리 ④ 하나

12. 다음 예시 중 잉여 표현이 없는 것은? (2점)

- ① 동서고금 ② 초가집 ③ 해변가 ④ 남은 여생

※ 다음 규정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라

제4장 제3절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3. 위의 규정에 의할 때, 다음 밑줄 그은 것 중 올바른 것은? (3점)

- ① 실망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새로 시작해 봐.
- ② 구름이 걷히자 산봉우리가 들어났다.
- ③ 그의 조부는 놀음을 하다가 가산을 탕진했다.
- ④ 이 요리는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만들.

14. 보기의 단어들을 의미 관계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은? (2점)

【보기】

- ㉠ 사과 - 과일                      ㉡ 조부 - 조모                      ㉢ 문학 - 시
- ㉣ 상승 - 하강                      ㉤ 배우자 - 반려자                      ㉥ 문상 - 조문

	상하 관계	반의 관계	유의 관계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15. 다음 중 한자의 독음이 잘못된 것은? (2점)

- ① 孝道 - 효도 ② 南大門 - 동대문 ③ 獨島 - 독도 ④ 人氣 - 인기

16.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의 의미를 지닌 것은? (3점)

- ① 각주구검(刻舟求劍) ② 사면초가(四面楚歌) ③ 어부지리(漁父之利) ④ 조삼모사(朝三暮四)

17.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의미가 다른 것은? (3점)

- ① 아이는 손을 흔들며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②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③ 할머니가 손자의 손에 용돈을 쥐여 주었다.  
④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다.

18.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유어는 순우리말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단어이다.  
② 한자어는 한자 문화권의 나라들에서 쓰는 말이지만 우리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③ 개념어와 추상어는 한자어보다 고유어에서 더 발달했다.  
④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분화된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다.

19. 다음 문장 중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가장 없는 것은? (3점)

- ① 부지런한 철수와 영희가 마당을 쓸고 있다.  
② 승엽은 혜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③ 민수도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④ 나는 너랑 다정하게 살고 싶다.

20. 다음 중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3점)

- ① 필터에 연소로 발생한 재가 쌓이게 되면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고, 매연을 저감시키는 장치의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  
② 오늘 대구를 방문한 김 씨는 대구시 지부장이 총재 경선을 중도에 포기한 것은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③ 비파춤은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무대에 등장해 인형극의 묘미를 느낍니다.  
④ 정부가 마련한 구조 조정안의 특징은 현재 정원의 10%인 340명을 연차적으로 줄입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라보면 항상 이쁜  
이쁘고 나서 또 이쁜  
조그만 간이역  
앞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별일이야  
벌써 가고 있네 어디론가



기차에 탄 듯 바람에 불리듯

-정현종 <간이역> 전문

간이역은 역과 역 아닌 것의 중간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새마을이니 무궁화니 통일이니 하는 이름을 지닌 기차들에게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면 되는, 역이 아닌 그 무엇이다. 그러나 한때 비둘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은 '특정통일'이라는 재미없는 이름으로 바뀐 완행열차에게 그것은 엄연히 멈추었다 가야 하는, 역이다. 속도와 능률을 숭상하는 이들이 보기에 간이역이란 거추장스러운 ㉠궤방꾼이 아니면 쓸모없는 우수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속도와 능률의 뒷전에서 느낌과 비능률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간이역은 삶이 본디 그러해야 할 꼴을 대리한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속도지상주의의 세계가 쏜살같이 지나쳐 버린 가치를 그것은 표상한다. 그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적'이라는 한마디로 요약 가능한, 긍정과 부정을 두루 포함하는 성질의 것이다.

(가)-----)은/는 '간이역'이라는 말이 떠올리는 긍정적인 심상들이다. 외로움, 고단한 삶, 소외, 벽지, 연착……은 그 부정적인 ㉡짜패들이라 할 수 있다. 간이역에서 열차들은 그냥 통과하지 않으면 한정 없이 연착한다. 그러할 때, 간이역으로 이르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끊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연착을 일삼는 완행일망정 엄연히 기차가 ㉢발착한다는 점에서 간이역을 오가는 길이 아주 끊긴 것은 아니다. 끊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길과 그럼에도 엄연히 이어진 길 사이에 간이역은 가까스로 존재하는 것인데, 안쓰러운 기다림과 편안한 체념이 부딪치며 피워 올리는 긴장의 불꽃으로부터 시인·소설가 들은 나름의 문학적 ㉣영감을 지폈음이다.

2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 글은 교통의 발전이 국제 외교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 ② 이 글은 교통의 발전이 애국심 고취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 ③ 이 글은 교통이 발전하여 우리 삶이 편리해져도 소외되고 뒤쳐진 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④ 이 글은 시인·소설가가 연착된 기차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설렘에서 문학적 영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2.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 : 남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 ② ㉡ :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 ③ ㉢ : 출발과 도착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④ ㉣ :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23. 위 글에서 소개된 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3점)

- ① 간이역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의 정서를 환기하여, 글의 흥미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 ③ 이별을 모티프로 한 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내용의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 ④ 간이역의 긍정적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이후 전개될 간이역의 교통적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illegible]

(가)

따라서 우리는 화폐 거래가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한탄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가치를 보유해야 하는 필연성에 의해 돈은 동일한 경제 영역에 속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매우 강력한 결속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소비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돈은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고자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개인들을 우리와 연결시켜준다. 따라서 현대인은 고대 게르만족의 자유인이나 그 후의 농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급자와 공급원에 의존한다. 현대인의 삶은 매 순간 돈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창출된 수백 가지의 결합 관계에 의존한다. 만약 이러한 결합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대인은 마치 혈액 순환이 차단된 유기체의 일부처럼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⑥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문소유(문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돈이 사람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② (가) : 돈은 인간 간의 유대를 가능하게 해 주기도 한다.
- ③ (나) : 집착과 이해관계를 떠난 소유의 의미를 질문하고 있다.
- ④ (나) : 진정한 소유란 나 혼자 갖는 것이다.

26.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돈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덧없음을 느낄 수 있었어.
- ② (가) : 돈 없는 현대 사회란 실제로 존재할 수는 없을 거야.
- ③ (나) :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 가지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어.
- ④ (나) : 이해관계에 따른 소유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

2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는 화폐경제의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있으며, (나)는 간디를 예로 들어 절약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주제는 “돈 한 푼을 쥐면 손에서 땀이 난다”는 속담과 유사하고, (나)의 주제는 “돈 주고 못 살 것은 지개”라는 속담과 같은 맥락에 있다.
- ③ (가)는 욕망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나)는 욕망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④ (가)는 자본이 지닌 윤리적 가치를 긍정하고 있으며, (나)는 자본의 폐해를 강조하고 있다.

28. ㉔의 수사 기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닭 잡아 먹고 오리 발 내어 놓는다.
- ② 열심히 공부하여 피곤을 느끼는 것은 하나의 약(藥)이다.
- ③ 실제로 자기가 아파보지 않고는 남이 아픈 것을 모른다.
- ④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순하지만 매우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 추구, 인간의 고통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연민이 그것이다. 이 ㉑( )들은 마치 거센 바람처럼 나를 이리저리로, 고뇌의 깊은 바다로, 절망의 벼랑으로 휘몰았다.

내가 사랑을 추구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주는 황홀함 때문이다. 그 황홀함은 너무도 큰 것이어서 그 환희의 몇 시간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인생을 모두 바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내가 사랑을 추구한 그다음 이유는 사랑이 외로움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끔찍한 외로움 속에서 인간의 의식은 몸서리치며 세상의 가장자리 너머 차갑고 측량할 수 없는 ㉒**죽음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내가 사랑을 추구한 마지막 이유는 사랑의 합일 속에서 성자들과 시인들이 상상했던 천국의 신비스런 축소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추구했고,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기엔 너무 좋은 것일지도 모를 그 사랑을 나는 찾아내었다.

똑같은 열정으로 나는 지식을 추구했다. 나는 인간의 가슴을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별들이 빛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수(數)가 혼돈을 다스리는 저 피타고라스적 힘을 이해하고 싶었다.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㉓( )을 나는 성취했다.

사랑과 지식은 가능한 한 높이높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늘 연민이 나를 다시 ㉔(



)으로 끌어내렸다. 고통의 절규가 메아리치며 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진다. 굶주리는 아이들, 압제자에게 고문당하는 사람들, 아들들에게 미운 짐이 돼버린 무력한 노인들, 그리고 외로움과 가난과 고통에 찬 세계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조롱한다. 나는 세상의 ㉠( )을 줄여보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나 또한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내 삶이었다. 나는 그것이 살아볼 만한 삶이었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 삶을 다시 살아보고 싶다.

- 버트런드 러셀, 『자서전』서문

29. 위의 글을 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글쓴이가 자신이 수학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반성하기 위해
- ②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이끈 열정과 평생을 바쳐 추구하고자 한 가치를 회고하기 위해
- ③ 글쓴이가 말년에 돌아본 자신의 삶은 매우 따분하고 단조로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 ④ 글쓴이가 젊은 시절에 가난하고 병든 사회적 약자를 돕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30.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열정    ② ㉡ : 지식    ③ ㉢ : 지상    ④ ㉣ : 선

31. ㉣와 같은 수사 기법이 보이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②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③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
- ④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땀이 알을 품고  
빼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메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가노라 말도  
못 다 이르고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 떨어질 것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구나  
아으 미타찰에 만나볼 나  
도 님으며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나)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쉴저재 녀려신고요  
어귀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논디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어느 행상의 아내, 「정읍사」

(다)

님다히 소식을 아므려나 아쟈흐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올가  
내ㅁㅁ 둠디업다 어드러로 가쟈말고  
잡거니 밀거니 뉘픈뉘히 올라가니  
㉢구름은 ㅋ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보며  
지척(咫尺)을 모릅거든 천리(千里)를 브라보랴  
출하리 물?의가 비길히나 보랴흐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디가고 뵈비만 걸렸논고  
강천(江天)의 혼자셔셔 디논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아득 훈더이고

- 정철, 「속미인곡」 중



35.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3점)

- ① 장르의 발생순서는 (가) - (다) - (나)이다.
- ② 모두 전형적인 4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 ③ (가), (나), (다) 중 어느 한 작품은 화자와 시적 대상이 동일한 공간에 있다.
- ④ (다)의 화자와 님은 표면적으로는 남녀이지만, 역사적 상황과 연관 지어 볼 때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이다.

36. 다음 중 ㉠, ㉡, ㉢, ㉣의 원관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은? (2점)

- ① ㉠ : 한 가지 - 같은 부모                      ② ㉡ : 준 디 - 위험한 곳
- ③ ㉢ : 구름 - 자유                                      ④ ㉣ : 일월 - 그리운 임

37. (가), (나), (다)의 장르적 속성을 잘못 말한 것은? (3점)

- ① (가)는 ‘사뇌가’라고도 부르며 정형시에 속한다.
- ② (나)는 주로 소박한 민중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 ③ (다)는 초기 작품들의 경우 마지막 구(句)가 3·5·4·3에 준하는 운율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 ④ (다)는 3장 6구 45자를 기본형식으로 한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아, 대답 잘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 죽지 않겠니?” 하실 때에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별별 떨며 대답하였다. “아버지 안자(顔子)의 말씀에도 일단사(一單食)와 일표음(一瓢飮)에 낙역재기중(樂亦在其中)이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禽獸)이지요. 보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조상이 벌여놓은 밥 그것을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집 개나 일반이지요” 하였다. 그렇다. 먹고 죽으면 그것은 하등 동물이다. 더구나 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조상의 재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만들기는 둘째 쳐놓고 받은 것도 쓸 줄 몰라 술이나 기생에게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수와 같이 배 뚜드리다가 죽는 부자들의 가정에는 별별 비참한 일이 많다. 태(殆: 거의)히 금수와 구별을 할 수도 없는 일이 많다. 그런 자는 사람의 가족을 잠깐 빌어다가 쓴 것이지 조금도 사람이 아니다. 저 뎁싸리 그늘 밑에 드리누우려 하여도 개가 비웃고 그 자리가 아깝다고 할 터이다. …(중략)…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이철원 김 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 여하튼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잠깐 들쭉운 가족뿐 아니라 내장의 구조도 확실히 금수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냐,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을 찾지 않으면 누구더러 찾으라하리! 산정(山頂)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것도 사람이 할 것이다. 오냐, 이 팔은 무엇 하자는 팔이고 이 다리는 어디 쓰자는 다리냐?

경희는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두 다리로 꺾충 뛰었다.

- 나혜석, 「경희」중



38. 다음 중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경희는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이고자 한다.
- ② 어머니는 경희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다.
- ③ 아버지는 경희에게 한없이 자상한 존재이다.
- ④ 경희는 신여성의 이중성을 깨닫고 있다.

39. 다음 중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중 인물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 ②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서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대한 긴박감 넘치는 묘사를 통해 극적인 생동감을 준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40. 다음 중 위의 소설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3점)

- ①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새로운 가치를 둘러싼 세대의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
- ② 조상의 가르침과 효의 미덕을 무시하고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희의 모습에서 신여성의 이기심을 느낄 수 있었어.
- ③ 이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과거의 삶이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이나 반추가 아니라 현재라는 생각이 들었어. 현재의 삶 속에서 전통과의 갈등은 여전히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문제인 것이지.
- ④ 어른이 된 주인공 경희가 가부장제가 지닌 억압을 깨닫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3-2. 수학(관리번호 : 2018-10)

3-2-1. 문제지

1.  $\frac{(2016^2 - 1)(2018^3 + 1)}{(2018^2 - 1)(2018^2 - 2018 + 1)}$ 의 값을 계산하면? (4점)

- ① 2015                      ② 2016                      ③ 2017  
④ 2018                      ⑤ 2019

2.  $\frac{ax+3y+b}{2x+y+1}$ 가  $x, y$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하는  $a, b$ 의 값을 계수로 갖는 이차방정식  $t^2 + at + b = 0$ 의 두 근을  $\alpha, \beta$ 라고 할 때,  $\alpha^2 + \beta^2$ 의 값은? (6점)

-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3. 세 변의 길이가  $x, x+2, x+4$ 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  값들의 합은? (4점)

- ① 7                      ② 9                      ③ 12                      ④ 14                      ⑤ 18

4. 원  $x^2 + y^2 = 2$ 에 접하고 점  $(3, -1)$ 을 지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방정식을  $x + ay + b = 0$ 이라 할 때,  $-2a + b$ 의 값은? (6점)

- ① -4                      ② -2                      ③ 0                      ④ 2                      ⑤ 4

5.  $a = (\sqrt{2} - \sqrt{5})^{99}$ 일 때,  $(\sqrt{2} + \sqrt{5})^{99}$ 을  $a$ 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6점)  
(단,  $i = \sqrt{-1}$ 이다.)

- ①  $-\frac{1}{a}$                       ②  $\frac{1}{a}$                       ③  $-a$                       ④  $-\frac{i}{a}$                       ⑤  $\frac{i}{a}$

6. 전체 집합  $U$ 의 두 부분집합  $A, B$ 에 대하여

$n(U) = 60, n(A^c \cap B) = 20, n(B^c) = 30$ 일 때,  $n(A \cap B)$ 의 값은? (4점)

-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7. 실수 전체의 집합  $R$ 에 대하여 함수  $f: R \rightarrow R$ 를

$$f(x) = \begin{cases} 1, & x \text{가 유리수일 때} \\ 0, & x \text{가 무리수일 때} \end{cases}$$

라고 정의할 때, 합성함수  $f \circ f$ 의 치역은? (4점)

- ①  $\{0\}$                       ②  $\{1\}$                       ③  $\{0, 1\}$   
④ 유리수 전체의 집합                      ⑤ 실수 전체의 집합

8.  $x$ 에 대한 이차방정식  $nx^2 - x + n(n+1) = 0$  ( $n = 1, 2, 3, \dots$ )의 두 근을  $\alpha_n, \beta_n$ 이라고 할 때,

$\sum_{n=1}^{100} \left( \frac{1}{\alpha_n} + \frac{1}{\beta_n} \right)$ 의 값은? (4점)



- ①  $\frac{99}{101}$       ②  $\frac{100}{101}$       ③ 1      ④  $\frac{102}{101}$       ⑤  $\frac{103}{101}$

9.  $9^{-\frac{3}{2}} \times 16^{\frac{1}{4}} \div \sqrt{81^{-3}}$ 의 값은? (4점)

- ①  $3^{-9} \times 2$       ②  $3^{-3} \times 2$       ③  $3^3$   
④  $3^3 \times 2$       ⑤  $3^9 \times 2$

10.  $3^x = 4^y = 12^z$ 일 때,  $xy - yz - zx$ 의 값은? (6점)

(단,  $xyz \neq 0$ 이다.)

- ① -2      ② -1      ③ 0      ④ 1      ⑤ 2

11.  $\log \frac{1}{n}$ 의 지표가 -3 일 때, 자연수  $n$ 의 개수는? (4점)

- ① 9      ② 90      ③ 99      ④ 900      ⑤ 990

12. A와 B를 포함하여 7명을 일렬로 세울 때 A와 B 사이에 1명이 있을 확률은? (6점)

- ①  $\frac{1}{21}$       ②  $\frac{2}{21}$       ③  $\frac{3}{21}$       ④  $\frac{4}{21}$       ⑤  $\frac{5}{21}$

13. 3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을 맞히면 통과하는 테스트가 있다. 정답률이 60%인 학생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3문제를 모두 맞혔을 확률은? (4점)

- ①  $\frac{3^3}{5^3}$       ②  $\frac{3^4}{5^3}$       ③  $\frac{1}{5}$       ④  $\frac{1}{3}$       ⑤  $\frac{2}{3}$

14. 이항분포  $B(100, p)$ 를 따르는 확률변수  $X$ 의 평균이 50일 때,  $X^2$ 의 평균은? (4점)

- ① 2500      ② 2525      ③ 2550      ④ 2575      ⑤ 2600

15. 확률변수  $X$ 와  $Y$ 는 각각 정규분포  $N(1, 4)$ 와  $N(3, 1)$ 을 따른다. 실수  $a, b$ 에 대하여 두 확률  $P(1 \leq X \leq a)$ 와  $P(b \leq Y \leq 3)$ 이 같을 때,  $2b + a$ 의 값은? (6점)

- ① -1      ② 1      ③ 3      ④ 5      ⑤ 7

16. 함수

$$f(x) = \lim_{n \rightarrow \infty} \frac{(x-3)^{2n+1} + (x-1)^{2n+1}}{(x-3)^{2n} + (x-1)^{2n}} \quad (n \text{은 자연수})$$

가 불연속이 되는  $x$ 의 값은? (6점)

- ① 0      ② 1      ③ 2      ④ 3      ⑤ 없다

17. 두 곡선  $y = x^3 + ax + b$ ,  $y = -x^2 + cx + 1$  이 점 (1, 2)에서 서로 접할 때,  $3a + 2b + c$ 의 값은? (4점)

- ① -2      ② -1      ③ 0      ④ 1      ⑤ 2



18. 길이가 1인 줄을 잘라서 하나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원을 만들려고 한다. 두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6점)

①  $\frac{1}{\pi+4}$

②  $\frac{2}{\pi+4}$

③  $\frac{3}{\pi+4}$

④  $\frac{4}{\pi+4}$

⑤  $\frac{5}{\pi+4}$

19. 미분가능한 함수  $f(x)$ 에 대하여  $\int_1^x (x^2-t)f(t)dt = 2x^4 - 2x^3 + ax^2 + x + b$ 일 때,  $a-b$ 의 값은? (6점)

①  $-2$

②  $-1$

③  $0$

④  $1$

⑤  $2$

20. 이차함수  $y = 3^n x^2 - 2x$  ( $n = 1, 2, 3, \dots$ )와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_n$ 이라고 할 때,  $\sum_{n=1}^{\infty} S_n$ 의 값은? (6점)

①  $\frac{1}{12}$

②  $\frac{1}{9}$

③  $\frac{1}{6}$

④  $\frac{2}{9}$

⑤  $\frac{1}{3}$



3-3. 영어(관리번호 : 2018-11)

3-3-1. 문제지

I. 아래의 밑줄 친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의 단어를 찾으시오. [각 2.5점]

1. Figure skater Michelle Kwan used to watch her brother play ice hockey, which inspired her to learn figure skating.

- ① contented    ② educated    ③ fulfilled    ④ ignited    ⑤ motivated

2. As the Barrons drove to the marina on Saturday morning, James looked forward to the day with happy anticipation.

- ① appreciated    ② convinced    ③ expected    ④ participated    ⑤ invited

3. There is an article in the newspaper today that is related to an important medical breakthrough.

- ① pertains    ② adjusts    ③ interacts    ④ strikes    ⑤ consists

4. Scientists took out some DNA samples from the dinosaur egg after more than 30 years' research.

- ① evolved    ② extracted    ③ reconstructed    ④ discouraged    ⑤ inserted

5. No one is immune to pain and suffering. Take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suffering by tackl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realities.

- ① strong    ② weak    ③ vulnerable    ④ exempted    ⑤ accepted

6. While being pushed around by certain failures, we all need support if we are not to succumb to despair.

- ① surrender    ② fail    ③ win    ④ free    ⑤ exercise

7. Although the first inhabitants of Australia have been identified by physical appearance, culture, language, and locale, none of these attributes truly establishes a person as a member of the Aboriginal People.

- ① reasons    ② characteristics    ③ donations    ④ results    ⑤ benefits

8. During periods of stress or excitement, the heart rate increases and airways to the lungs become dilated.

- ① decreased    ② shrunken    ③ trembled    ④ exploded    ⑤ expanded

II.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찾으시오. [각 2.5점]

9. A: So, you mean this Friday? How about 4:30 at my place?



B: \_\_\_\_\_ I can leave the office at around 4:30.

A: Or will 5 p.m. work for you?

B: I will try.

- ① That sounds perfect.
- ② I'm sorry, I'm late.
- ③ Can we make that 5:30?
- ④ What about this Sunday?
- ⑤ I'm losing you.

10. There are a lot of opinions about millennials these days. Some people think they're entitled. Some people think they're lazy. And some people think they're so focused on being "special snowflakes" that they're incapable of \_\_\_\_\_. (A) . But if we focus on stereotypes, we lose sight of the real story. Millennials are \_\_\_\_\_. (B) . Millennials feel stuck.

- |                 |             |
|-----------------|-------------|
| ① A: grown up   | B: indebted |
| ② A: growing up | B: indebt   |
| ③ A: shrunken   | B: indebted |
| ④ A: grown up   | B: debted   |
| ⑤ A: growing up | B: indebted |

11. \_\_\_\_\_ (A) violence in movies increases, \_\_\_\_\_ (B) do crime rates in our cities. To combat this problem we must establish a board to censor certain movies, \_\_\_\_\_ (C) we must limit admission to persons over 21 years of age. \_\_\_\_\_ (D) our legislators are not concerned about this issue since a bill calling for such actions recently failed to receive a majority vote.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to complete the paragraph?

- |           |       |             |               |
|-----------|-------|-------------|---------------|
| ① A: When | B: so | C: for      | D: Now        |
| ② A: If   | B: so | C: now      | D: Thus       |
| ③ A: If   | B: as | C: later    | D: Lastly     |
| ④ A: As   | B: so | C: or       | D: Apparently |
| ⑤ A: As   | B: so | C: moreover | D: Therefore  |

12. As the name suggests, rainforests get a great deal of rain. In fact, it is \_\_\_\_\_ (A) raining in these tropical forests. Because of the wet conditions, these areas \_\_\_\_\_ (B) have forest fires. Rainforests get at least eighty inches of rain a year, and some may get \_\_\_\_\_ (C) four hundred inches. One reason rainforests get so much precipitation is because they have a \_\_\_\_\_ (D) temperature, which is usually between 75 and 80 degrees Fahrenheit.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to complete the paragraph?

- |                    |              |               |                |
|--------------------|--------------|---------------|----------------|
| ① A: always almost | B: really    | C: as much as | D: strong      |
| ② A: always almost | B: severely  | C: so much as | D: hot         |
| ③ A: almost always | B: rarely    | C: as much as | D: steady      |
| ④ A: almost always | B: really    | C: so much as | D: fluctuating |
| ⑤ A: almost always | B: seriously | C: as much as | D: fluctuating |



13. Critics contends that the new missile is a weapon whose importance is largely symbolic, more a tool \_\_\_\_\_ a real military need.

- ① to manipulate people's perceptions than for fulfilling
- ② to manipulate people's perceptions rather than fulfilling
- ③ to manipulate people's perceptions rather than that it fulfills
- ④ for manipulating people's perceptions than for fulfilling
- ⑤ for manipulating people's perceptions than to fulfill

14. A surge in new home sales and a drop in weekly unemployment \_\_\_\_\_.

- ① claims, suggesting about the economy that it might not be so weak as previously thought by some analysts
- ② claims, suggesting the economy might not be as weak as previously thought to be by some analysts
- ③ claims suggest that the economy might not be as weak as some analysts previously thought
- ④ claims suggests that the economy might not be so weak as some analysts have previously thought
- ⑤ claims suggests that the economy might not be as weak as have been thought by some analysts

### III.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각 2.5점]

15.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 and B in the dialogue?

A: Do you have any experience working in a library?

B: No, not as an employee, but as a student. I'm working toward my doctorate at the university. I'm almost finishing my dissertation now.

A: So you are familiar with the electronic search equipment?

B: Yes, I'm. I used several databases for my review of the literature in my dissertation, and I know how to use most of the search equipment that you have here.

A: What about hours? If you're working on your dissertation, will you be able to work? It requires twenty hours of your time per week.

- |                |               |
|----------------|---------------|
| ① A: inspector | B: employee   |
| ② A: employer  | B: candidate  |
| ③ A: professor | B: student    |
| ④ A: curator   | B: researcher |
| ⑤ A: advisor   | B: researcher |

16. Which of the following is INCORRECT translation in English?

- ① 숲에서는 재촉하지 말라.

Don't halloo till you are out of the wood.

- ② 낙숫물이 뿔돌을 뚫는다.

Constant dropping wears away a stone.



- ③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  
Blood will have blood.
- ④ 간결함은 지혜의 핵심이다.  
Brevity is the soul of wit.
- ⑤ 지나간 것에 미련두지 말라.  
What's done cannot be undone.

IV.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각 3.5점, 단 33번 문항은 4점]

17. Twenty years ago, only half of the students who graduated from Einstein High School went on to attend a college or university. Today, two-thirds of the students who graduate from Einstein do so. \_\_\_\_\_. This improvement has occurred despite the fact that they could not raise school's funding, when adjusted for inflation, is about the same as it was 20 years ago. Therefore, we do not need to make any substantial increase in the school's funding at this time.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suitable for the blank (A)?

- ① Einstein has improved its educational effectiveness over the past two decades.
- ② Einstein has produced more female graduates than male counterparts.
- ③ Einstein has run profitable business and made a lot of money.
- ④ Einstein has been famous for providing scholarships to more than two thirds of the students.
- ⑤ Einstein has been suffering from the inflation for the past 20 years.

18. Globalization, the increasing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of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has three sides: the good side, the bad side, and the ugly side. The good side of globalization is all about the efficiencies and opportunities open markets create. The bad side of globalization is all about the new risks and uncertainties brought about by the high degree of integration of domestic and local markets,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high degree of imitation, price and profit swings, and business and product destruction. The ugly side of globalization is when nations and local communities try to escape the vicious cycle of income and employment declines through simultaneous currency devaluations; and by raising trade barriers that in essence put an end to globalization and a beginning to trade wars, as was the case in the 1930s.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to what the passage says?

- ① Globalization has three sides: the good side, the bad side, and the ugly side.
- ② The good side of globalization highlights the efficiencies and opportunities of creating open markets.
- ③ The bad side of globalization is all about the new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are caused by people's fear for the high degree of competition and profit fluctuation.
- ④ The ugly side of globalization can be observed when nations and local communities begin to promote international employment as well as to encourage local exchanges.
- ⑤ The three sides of globalization, therefore, have to be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in



order to have a successful globalized market.

19. We might be sending kids to school in self-driving cars by 2020. Williams predicts that education tech will continue the push towards individualized instruction for students. But that does not mean they'll be taught by teacher-avatars and given tests via drone. Jake Schwartz, CEO and cofounder of General Assembly, predicts that as technology advances, its limits will become clear. "Online is not a cure-all for education issues in this country, but it can help provide greater access to new skills training," he says. "This is powerful when combined with curricula and programming created and led by practitioner educators."

What can be MOST inferred from this passage?

- ① As technology advances, it can be predicted that kids will be taught by teacher-avatars.
- ② Use of technology in education would be more powerful when it is practiced by educators and integrated with curricula.
- ③ Using online in the classroom could be an answer to all of educational problems.
- ④ As technology advances, kids will be deprived of learning opportunities on their own.
- ⑤ Simply finding ways to put more tablets in kids' hands would be only way to have a successful learning.

[20-22] Recent technological (A) advances in manned and unmanned undersea vehicles, along with breakthroughs in satellite technology and computer equipment, (B) have overcome some of the limitations of divers and diving equipment for scientists doing research on the great oceans of the world. Without a vehicle, divers often became (C) sluggish, and their mental concentration was severely limited. Because undersea pressure affects their speech organs, communication among divers has always been difficult or impossible. But today, most oceanographers avoid the use of vulnerable human divers, (D) preferring to reduce the risk to human life and make direct observations by means of instruments that are (E) lower into the ocean.

20.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INCORRECT expression?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1. Divers have had problems in underwater communications because

- ① they did not pronounce clearly.
- ② the pressure affected their speech organs.
- ③ the water destroyed their speech organs.
- ④ they became drowsy under the water.
- ⑤ the vehicles they used have not been perfected.

22. This passage suggests that the successful exploration of the ocean depends upon

- ① controlling the water and its temperature.
- ② radios that divers use to communicate.
- ③ controlling currents and the weather.



- ④ underseas vehicles as well as divers.
- ⑤ the limitation of diving equipment.

[23-25] Perhaps it was his own lack of adequate schooling that inspired Horace Mann to work so hard to accomplish the important reforms in education that he advocated. While he was still a boy, his father and older brother died, and he \_\_\_\_\_ (A) \_\_\_\_\_. Like most of the children in his town, he attended school (B) only two or three months a year. Later, with the help of several teachers, he was able to study law and (C) become a member of the Massachusetts bar, but he never (D) forget those early struggles. While serving in the Massachusetts legislature, he signed an historic education bill that (E) set up a state board of education. Under his leadership, the curriculum was restructured, the school year was increased to a minimum of six months, and mandatory school was (F) extended from age sixteen.

23.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suitable for the blank (A)?

- ① became responsible for supporting his family
- ② left from his family and went to the city
- ③ quit his study in order to make money
- ④ lost his hope and became helpless
- ⑤ gave up his dream to be a teacher

24.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INCORRECT expression?

- ① B            ② C            ③ D            ④ E            ⑤ F

25. Which of the following titles would best express the main topic of the passage?

- ① The Responsibility of Children in Massachusetts
- ② The Father of American Public Education
- ③ Philosophy of Education
- ④ Legislation of Public Education in the USA
- ⑤ Politic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26-27] Eight degrees Fahrenheit. It may not sound like much-perhaps the difference between wearing a sweater and not wearing one (A) on an early-spring day. But for the world in which we live, which climate experts project will be (B) at least eight degrees warmer by 2100 should global emissions continue on their current path, this small rise will have grave consequences, ones that are already (C) becoming apparent, for every ecosystem and living thing-including us. According to the National Climate Assessment, human influences are (D) a number one cause of global warming, especially the carbon pollution we cause by burning fossil fuels and the pollution-capturing we prevent by destroying forests. Evidence shows that 2000 to 2009 was hotter than any other decade in at least the past 1,300 years. (E) This warming is altering the earth's climate system, including its land, atmosphere, oceans, and ice, in far-reaching ways.



26.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INCORRECT expressions?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to what the passage says?

- ① Climate experts expect that by 2100 at least eight degrees will be warmer than now if we successfully curb global emissions.  
② Eight degrees fahrenheit increased temperature will cause devastating problems for every ecosystem and living thing-including us.  
③ Human beings should change current way of energy consumption if they want to avoid global warming.  
④ The carbon pollution and de-forestation are the serious causes of global warming.  
⑤ The earth's climate system is drastically altered by global warming.

[28-29] One of the advantages of having vending machines in schools is that food items can be easily made available to children. If stocked with    (A)   , these machines can be of great use to kids. However, there also are disadvantages of consuming foods sold through these machines.

Therefore, it becomes important to study the    (B)    of vending machines in schools. The negative influence of vending machine business on school kids can be observed (C) in the form of obesity epidemic which has affected mostly the developed nations. It is necessary to educate children about the ill effects of eating junk food - which contains fats and sugar in excess. The facts about vending machines in schools, their merits and demerits and the effects of consuming junk food need to be properly explained to children. A positive change can be    (D)    only through combined efforts by people from every section of the society.

28. Choose the answer that matches most suitable words for blank (A), (B) and (D) in order.

- |                            |                  |                  |
|----------------------------|------------------|------------------|
| ① A: junk food items       | B: pros and cons | D: bringing in   |
| ② A: junk food items       | B: benefits      | D: bring in      |
| ③ A: sodas and sugary food | B: benefits      | D: explained.    |
| ④ A: healthy food items    | B: advantages    | D: brought about |
| ⑤ A: healthy food items    | B: pros and cons | D: brought about |

29. What is the meaning of underlined (C)?

- ① Obesity can be seen as one of evidences of under-developed nations.  
② Every people in the developed nations suffers from obesity.  
③ Obesity is one of the serious problems for most of the developed nations.  
④ Obesity can be found as a symbol of poverty in developing nations.  
⑤ People are vulnerable to obesity in the developing nations.

[30-33] Current feminist history, in validating women's own stories of their experience, has encouraged scholars of women's history to view the use of women's oral narratives as the methodology, (A) next to the use of women's written autobiography, that brings historians closest to the "reality" of women's lives. (B) Such narratives, unlike most standard histories, represent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affirm the importance of women's contributions, and furnish present-day women with historical continuity that is essential



to their identity,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Scholars of women's history should, however, be as cautious about accepting oral narratives at face value as they already are about written narratives to provide a disinterested commentary on events or people. (C) Moreover, the stories people tell to explain themselves are shaped by narrative devices and storytelling conventions, as well as by other cultural and historical factors, in ways that the storytellers may (D) be unaware. The political rhetoric of a particular era, for example, may influence women's interpretations of the significance of their experience. Thus a woman who views the Second World War as pivotal in increasing the social acceptance of women's paid work outside the home may reach that conclusion partly and unwittingly because of wartime rhetoric (E) encouraging a positive view of women's participation in such work.

30. The passage is primarily concerned with

- ① contrasting the benefits of one methodology with the benefits of another.
- ② discussing the appeal of a particular methodology and some concerns about its use.
- ③ describing the historical origins and inherent drawbacks of a particular methodology.
- ④ showing that some historians' adoption of a particular methodology has led to criticism of recent historical scholarship.
- ⑤ analyzing the influence of current feminist views on women's interpretations of their experience.

3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used in a correct way?

- ①A                      ②B                      ③C                      ④D                      ⑤E

32.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to what the passage says?

- ① Women's oral histories validate the significance of women's achievements.
- ② Women's oral histories depict experie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women.
- ③ Women's oral histories acknowledge the influence of well-known women.
- ④ Women's oral histories present today's women with a sense of their historical relationship to women of the past.
- ⑤ Women's oral histories are crucial to the collective identity of today's women.

33.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the function of the last sentence of the passage? (4점)

- ① It describes an event that historians view as crucial in recent women's history.
- ② It provides an example of an oral narrative that inaccurately describes women's experience during a particular historical period.
- ③ It illustrates the point that some women are more aware than others of the social forces that shape their oral narratives.
- ④ It identifies the historical conditions that led to the social acceptance of women's paid work outside the home.
- ⑤ It provides an example of how political rhetoric may influence the interpretations of experience reported in women's oral narratives.



##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숙명여자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

2018년 3월 15일 발행

발 행 인 · 총 장 강 정 애  
발 행 처 · 숙명여자대학교  
운영책임자 · 입학처장 차 용 진

###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02) 710-9931 Fax. (02) 2077-7453 e-mail : admit@sm.ac.kr

\* 이 보고서의 내용이나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숙명여자대학교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사용을 금합니다.